



襄陽文化

제35호

襄陽文化院



양양10경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정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류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본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동근 돌'이 그 속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기슭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는 1종 국적이 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조의 양양산陽樓에 봉수대가 있었으며, 어민정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체험항이다.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솔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려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호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좌선 수행처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정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수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9경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모습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불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 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랑인 하륜과 조준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충은 등에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앞 바위에 하조대 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10경 양양 서핑로드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이 바다를 우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핑을 시작하기 적당해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襄陽文化

제35호

襄陽文化院

PHOTO CLUB



2023 양양문화원 정기 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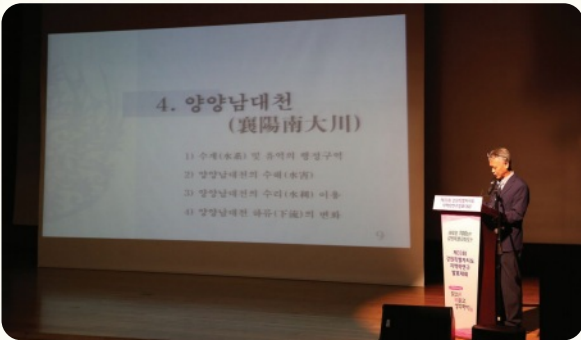
2023 문화학교 개강식



제45회 양양문화제 만세운동재현행사



제45회 양양문화제 농악경연대회



제33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학연구발표대회(춘천)



실버스타K 양양여울소리민요단



제28회 도시물놀이경연대회(화천)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문화원회원및문화학교수강생 유적지답사(정선)



제13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페인팅)



향토문화교육(답사)



강원문화대축전(속초)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크컷팅식



문화학교 수료식



허억봉대금강좌 종강식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박상민	7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9
신년사 양양군의회위원장 오세만	10
신년사 국회의원 이양수	11

향토사료

●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에 대한 고찰(考察) 양양문화원부설 양양학연구소	12
--	----

2023 문화학교 소개

● 2023년도 문화학교 소개(활동사진및수상,공연내역) 편집실	35
● 2023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편집실	42

양양소식지 자료

● 양양의 남대천과 한수이야기외(1-12월) 편집실	44
--------------------------------	----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讚美襄陽南大川) 입선시

●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편집실	79
----------------------------	----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체험(페인팅) 소감문

● 양양중학교 3학년 학생	103
----------------	-----

양양 구석구석

● 등대가 있는 마을	110
-------------	-----

건강상식

● 건강을 해치는 부족한 잠, 불면증 이도약국 약사 이우진	114
------------------------------------	-----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118
--------------------	-----

행복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함께하는 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MG양양새마을금고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이사장 : 김 주 혁

전 무 : 이 준 희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희망찬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군민 여러분과 문화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해에 보살펴주신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해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 회복은 되었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와 우리 양양군은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한 해였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그이름을 바꾸어 진정한 자치시대의 문을 열었고, 우리 양양도 41년 군민의 염원이던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 착공식과 미래 먹거리 산업인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시작되는 등 변화의 중심 양양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문화원도 3년간 개최하지 못하였던 군민들의 한마당 축제인 양양문화제를 모든 군민들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치루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 우리의 삶인 전통민요 보존을 위한 제13회 전국 동구리 경창대회를 그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유의미한 대회로 개최하였으며 우리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각종 역사 자료들의 전산화 사업인 아카이빙 사업을 3년차 사업으로 착실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갑진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우리의 내실을 다져가야하는 한 해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양양문화제를 개최했으나 초고령화 된 인구 구조로 인해 군민 체육대회는 명랑운동회로 대체하는 등 시대변화에 순응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양문화원장
박 상 민

그리하여 금년에는 개최장소도 종합운동장에서 잘 가꾸어진 남대천 수변 공원으로 이전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군민의 축제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로 건축하게 될 문화원 원사는 작년도에 기본 설계가 발주되어 금년도에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명년도에는 건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 정명 600년사와 3·1만세운동 기념관을 만드는 준비도 착실히 추진해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학교도 미래세대를 위한 초등학생 판소리 과정을 개설하는 등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원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탐방과 평생 학습 도시 동참사업도 확대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원 지역문화에 중심이 되는 문화원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의 성원 속에서 우리 고장의 찬란한 전통문화가 꽃 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면서 희망찬 갑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올해는 동방을 수호하는 푸른 용의 해입니다.
힘찬 청룡과도 같은 기세로 마음속에 간직해둔 뜻을
마침내 이루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해 우리 군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착공'이라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을 마주했습니다.
험난했던 41년 세월, 가시밭길 노정(路程)의 끝에서 마주한
오색의 하부정류장은 눈부신 종착지로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맞기까지 많은 응원과 지지,
참여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도 오색케이블카를 향한 염원으로 보여줬던
양양군민의 저력과 독심, 위대한 군민 정신을
발휘한다면 분명히 희망 가득한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명품에는 언제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명품도시 양양'에 감동의 스토리를
담아가는 길에 발걸음을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새해!
더도 덜도 말고 그저 삼백예순다섯 날,
만면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양양군 의회의장
오 세 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 문화지인 「양양문화」제35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가치를 전해주시는 양양문화원 박상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양군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은 예부터 동서남북의 네 방위 중 동쪽을 지키는 수호신입니다.

상서로운 청룡의 기운을 받아 우리 양양을 중심으로 2024년 한 해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원합니다.

제9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맞이하는 두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628년만의 새로운 이름을 얻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였고, 양양 군민들의 41년 염원인 오색케이블카가 드디어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손양면 일원에는 연어 자연산란장이 착공 되었고, 동원산업의 2,000억원 투자를 통해 필환경 스마트 육상 연어양식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 마무리, 육아지원센터 준공으로 인한 정주권 도시 기반조성 등 올 한해 양양군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양양 군민들의 관심과 염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2024년 새해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자의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국회의원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의 아쉬움은 보내시고, 다가 온 2024년은 그 어느 때보다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상민 양양문화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양은 선사 문화 뿐만아니라 불교·유교 문화와 3·1만세운동, 호국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조화롭고 또 독자적인 향토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특히,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제」등 다채로운 행사들은 우리 양양만의 전통문화 보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해오신 것처럼 올 한해도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용의 기운으로 힘찬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에 대한 고찰(考察)

윤여경 | 양양문화원

1. 머리말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모든 생명체의 구성요소이다. 지구상에는 약 13억 8,600만km³의 물이 있으며 이 가운데 97.5%인 13억 5,100만km³가 바닷물을 포함한 소금물이다.

민물은 3,500만km³로 이 가운데 69.55%인 2,400만km³가 빙하와 만년설 등 고체 형태로 존재하며 30.06%인 1,100만km³는 지하수로 존재한다. 하천, 호수 및 용천수(湧泉水) 등 인류가 사용하는 지상의 물은 전체 물의 0.0086%로 전체 민물의 0.39%인 9만km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구름을 비롯하여 기체 형태로 존재한다. 물의 구성 형태는 빙하기와 간빙기 또는 지각변동에 따라 그 비율이 끊임없이 바뀌지만 지구상에 부존하는 절대량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증발, 응결 및 강수(降水) 등의 순환을 통해 생명체를 탄생시키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¹⁾

전체 민물의 0.39%인 9만km³에 의해 인류의 흥망(興亡)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이 바뀌었다. 인류 문명은 물의 이용의 역사이다. 강의 범람과 극심한 가뭄을 극복하면서 물을 이웃하여 삶의 터전을 개척해 왔다. 4대 문명 또한 강가에서 발상(發祥)하였다. 농경문화를 근간으로 하여 정착하게 되고 치수(治水)와 관개(灌溉)를 위한 협동과 질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양양남대천(襄陽南大川)도 이러한 과정을 이어 오면서 양양지역을 위해, 인류를 위해 묵묵히 역사를 안고 오늘도 도도히 흐르고 있다.

동해안에서 가장 긴 남대천(南大川)은 8000년전의 신석기(新石器)인이 정착하는 터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1) YTN SCIENCE 기사일: 2018. 1. 3.

이렇게 중요한 역사적 현장인데도 양양남대천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차제에 조선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만이라도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이렇게 미미(微微)하게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 인식을 같이하는 글들이 차근차근 쌓이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세월(歲月) 앞에서는 하천의 모양도 쓰임도 늘 변화하고 있기에 오늘이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욱 기억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최고의 선(善)은 물과 같다 하여 상선약수(上善若水)²⁾라 하였다. 굳이 물을 미화하지 않아도 물에 대한 고마움은 모두가 알고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과하면 늘 탈이 났다. 홍수(洪水)나 폭우(暴雨), 해일(海溢)에 의한 재앙(災殃)뿐 아니라 오염(汚染)이 문제가 되는 세상이다.

요즘 수변공간은 인간의 정서와 생활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화된 도시는 생활환경 구성에 있어서 하천과 물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과거에는 수변을 이용해 농사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것이 현대에는 여가문화나 레포츠 공간으로 변해 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양남대천의 역할은 풍수지리(風水地理)에서도 매우 중요시되었다. 1416년(조선 태종 16) 양주(襄州)에서 양양(襄陽)으로 개칭할 때 '산의 남쪽이자 물의 북쪽인 산남수북(山南水北)'에 관청이 위치했으니 양지바른 곳이었음을 간파하였다. 그래서 양의 기운인 별양(陽) 자로 고쳐 쓰게 되니 양양(襄陽)이란 지명은 지형적으로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강이 있는 바로 그 곳에 위치한 명당(明堂)이란 뜻이다.³⁾

이번을 계기로 하천의 역할을 살펴보고 양양남대천의 발원지와 옛 명칭, 수계, 홍수 현황, 수리 이용, 남대천 하구의 변화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옛 문헌을 참고하여 기록해 보았다.

2. 하천(河川)과 강(江)의 구분

하천에 흐르는 물은 대부분 담수(淡水)로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하천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으며, 오래된 도시들은 대부분 하천을 중심으로 건설되었다.

하천이란 일반적으로 물과 그 물이 지나가는 길을 의미한다.⁴⁾ 즉 물은 속성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므로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게 되는 것을 이르러 지자요수(智者樂水)라 하였다.⁵⁾

그 물길 등이 모여 큰 호소(湖沼)나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이 물길을 하도(河道)라 하고 유수에 접하는 지면을 하상(河床)이라 하며 하도와 하상을 합하여 하천이라고 한다.⁶⁾

강(江)은 하천(河川) 중에 규모가 크고 물줄기가 강한 것이다. 강보다 작거나 강으로 합류하는 지류의 물줄기는 '천(川)' 또는 '내'라고 한다.

2) 『노자의 도덕경』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3) 지명을 정하는 원칙 중 하나로 山南水北曰陽 日之所照曰陽

4) 『물환경보전법』상 공공수역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지자요수 인자요산 (智者樂水 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는 뜻. 논어(論語)에 나온다.

6) 『하천의 정의』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의 어원은 '가람'이며, 한자로 강(江)자는 중국의 양자강(揚子江)을 가리키던 것이 모든 강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⁷⁾

3. 하천의 역할(役割)

하천은 단절로 인하여 경계를 의미한다. 단절은 이어짐을 열망하여 이동의 통로가 되었다. 배나 다리를 고안하여 건너고 수로를 이용하여 대량 운송도 한다. 하천은 지형적 영향으로 산과 함께 단절을 고착화하여 마을 간, 자치단체 간, 국가 간의 경계가 된다.

또한 하천을 따라 배를 이용한 물자 운송과 농어업의 발달로 상업도시와 농업으로 인한 문명의 진화가 있었다.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여서 방어의 수단으로 곧잘 사용되었으며 대규모 병력의 도하 작전에 이용되고, 때로는 이동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교량 파괴도 자주 접한다.

하천에는 여러 생물이 번식하고 있는데 양양 남대천에 서식하는 어류 중에는 바다와 하천을 오가는 어류도 다수 있으며 이 중 연어가 대표적이다.

과거부터 강은 인간의 생존과 밀접하다. 피서용이나 식수 공급지로 사용했고 강 근처에서 번식하는 동식물들을 식자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빨래나 농사 등 생활용수로도 활용했다.

현대에는 산업화 혹은 무분별 활용으로 건천(乾川)화 문제와 심각한 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천은 자연정화(自然淨化)라는 큰 역할을 함으로써 생태계 균형에 많은 영향을 준다.

양양남대천은 하상계수⁸⁾가 매우 커서 과거에는 큰 홍수가 한번 났다 하면 물길이가 바뀌었으며 부실한 제방으로는 재난 대응이 제한되어서 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보았다.

법률상으로는 하천은 하천법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크게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강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관리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별한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국가하천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하천이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을 말한다. 하천법상 양양남대천은 지방하천에 속해있다.

4. 양양 남대천(襄陽 南大川)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년)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대천은 부 남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대천(南大川)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 중에서는 유로(流路)가 가장 길어서 큰 대(大)자

7) 강(江)은 물이 흐르는 길이다. 하늘에서 내린 비가 바다로 흘러가는 경로에 해당된다. 한국어 고유어로는 가람이라고도 한다.

8) 하상계수는 하천의 최소 유량을 1로 두고, 최대 유량과의 비율로 나타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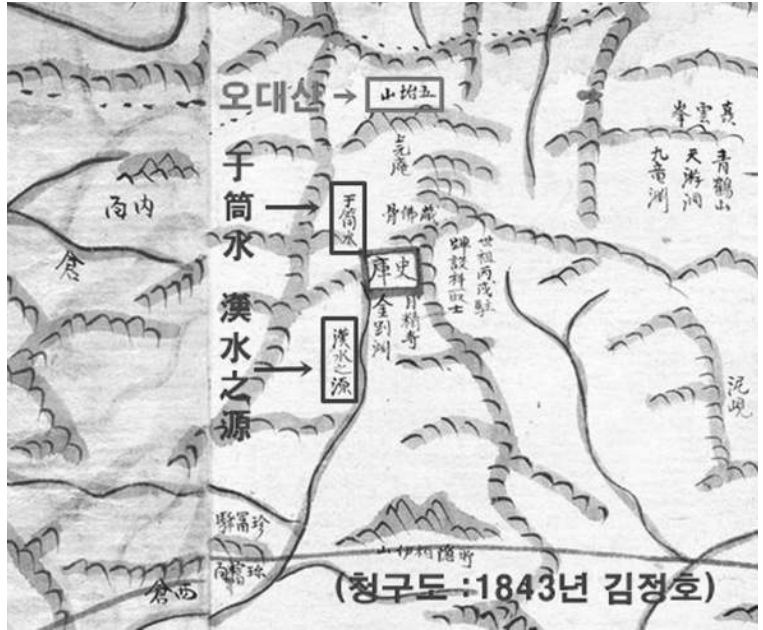
를 붙였다. 말 그대로 양양 남대천은 “양양부의 남쪽에 위치한 큰 하천”이란 뜻이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강릉부(江陵府)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나령(所冬羅嶺)의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현 북면 쪽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물과 오색천(五色川)과 구룡령에서 내려오는 후천(後川)의 물이 합쳐진다는 이야기다.⁹⁾

예부터 한수와 남대천은 혼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양 남대천의 또 다른 이름은 한수로 언어학적으로는 大(큰 대) 자의 순 우리말로는 흔히 后(후) 천(川)은 물이니, 한수(漢水)¹⁰⁾ 또는 한천(漢川)이 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도 양양 남대천과 함께 오대산 두로봉 우통수(于筒水)인데 11) 서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한강으로 가고 동으로 흐르는 물은 양양 남대천으로 흘러드니, 두 강 모두 우리말로 한수다. 환경부의 한강 대권역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의하면 양양 남대천도 한강 권역 속해 있다.¹²⁾

우통수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충열왕 7년(1281)에 일연이 펴낸 사서인 『삼국유사』에 처음 나타



청구도에 표기되어있는 于筒水와 漢水之源



우통수 발원지 모습 (자료:강원도민일보)



서대 수정암 (자료:평창신문)

9) 『新增東國輿地勝覽』山川條：南大川 在府南二里出 江陵府五臺山 與小冬羅水合流經府南入海

10) 『關東誌』山川條：南大川은 俗稱漢水云也

11) 『世宗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서는 오대산 서대(西臺)의 우통수를 한강의 발원지로 기록하였다.

12)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나는데 “오대 신앙을 정착시킨 신라의 보천태자가 수정암에서 수도할 때 이 물을 매일 길어다가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고 한다.”¹³⁾

양양남대천 발원지에 대하여 『세종지리지』를 보면 명산(名山)은 오대(五臺)이다. ‘부(府) 서쪽에 있다. 봉우리 5개가 고리처럼 벌려 섰는데, 크고 작기가 고른 까닭에 오대산이라 한다. 서대(西臺) 아래 수정암(水精庵) 옆에서 우리샘(檻泉)¹⁴⁾이 솟아나는데, 물의 빛과 맛이 보통 물보다 낫고, 그 무게도 또한 그러하므로 우통수(于筒水)라고 하며, 즉 금강연(金剛淵)은 한강물[漢水]의 근원이 된다’.¹⁵⁾

‘봄·가을에 그 고을 관원으로 하여금 제사 지내게 한다. 한강 물이 비록 여러 곳의 물을 받아 흐르나, 우통수가 중심이 되어 빛과 맛이 변하지 아니해서 중국의 양자강(揚子江)과 같으므로, 한(漢)이란 이름이 이로 인(因)하여 되었다.’¹⁶⁾

1) 수계(水系) 및 유역의 행정구역

양양 남대천 본천의 수계는 동해안에서 가장 길어서 약 60km에 이르며, 후천의 수계는 약 26km, 오색천의 수계는 20km로 총 100km가 넘는다.

행정구역상 우통수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¹⁷⁾에서 발원하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가마소골로 흘러들어 부연동(釜淵洞) 마을 가운데를 가로지르다 현북면 범수치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3개 시군에 걸쳐져 흐른다.

어성전리에서 면옥치리, 장리, 도리로 이어지면서 손양면과 경계를 이루며 서면 내현리, 수리, 용천리, 양양읍 월리, 서문리, 남문리, 연창리, 송암리, 조산리로 이어진다.

남대천이 서면 용천리를 지나 양양읍 월리로 막 들어서는 입구에 “두물뫼(지금은 형체가 없어졌다)”가 있는데 북평리 건지산(乾芝山) 앞에서 남대천과 후천이 합쳐졌기 때문에 “양수(兩水)머리”라고 했다.¹⁸⁾

양양남대천은 본천(本川)을 포함한 7개의 지방하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하천은 13개로 남대천 하구까지 이어져 동해로 들어간다.

(1) 양양남대천의 수계(水系)

- 본천(本川) : 오대산 두로봉(1,422m)에서 발원하여 하구까지 약 60km에 이른다. 발원지(發源地)~군계(郡界)까지 약 20km이고, 군계(郡界)~하구(河口)까지 약 40km이다.
- 후천(後川) : 응복산(1,360m)에서 발원한 벽계천은 미천골(米川谷) 입구(入口)에 이르고, 약수산(1,306m)과 구룡령(1,117m)에서 발원한 청계천은 갈천리를 지나 미천골 입구에서 응복산(鷹伏山)의 계천(溪川)과 합류하여 서림, 영덕, 공수전, 범부리를 지나 임천리까지 약 26km이다.

13) 『삼국유사』 『신동국여지승람』

14) 필비함천(沸沸檻泉)은 『시경』의 대아(大雅) 첨양(瞻卬)편이 나온다. 함천(檻泉)은 바르고 곧게 위로 나오는 샘이다.

15) 『역사·문화로 본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고찰』 김도현, 2018. 『靑邱圖』 漢水之源표기

16) 『世宗實錄地理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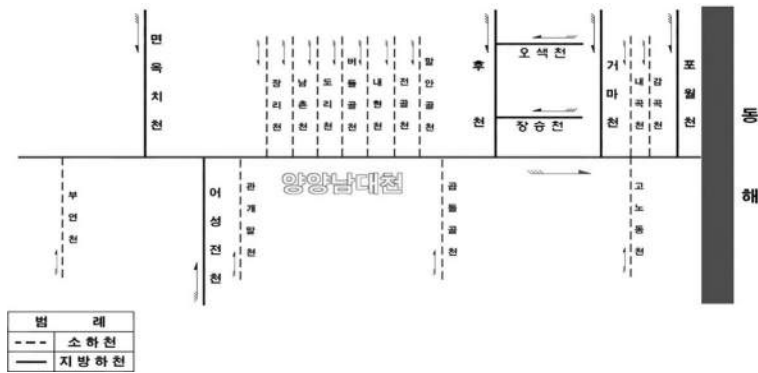
1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1995년.

18) 『양양지방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p.120.

- 오색천(五色川) : 점봉산(1424m), 오색령(1004m), 대청봉(1708m)에서 발원하여 송천리까지 약 20km이다.

(2) 양양남대천과 관련된 지명

- 법수치리(法水峙里)는 양양남대천 상류에 위치해있어 물이 맑아 불가(佛家)의 법수(法水)를 용출(涌出)한 곳과 같다는 전설에 의한 마을 이름이다.
- 어성전리(漁城田里)는 마을을 둘러싼 산들이 산성(山城)을 이룬 분지형(盆地形)으로 기름진 전답(田畝)이 수십만평(數十萬坪)이고 오대산(五臺山)과 응복산(鷹伏山)에서 발원한 물이 합수(合水)하여 평탄한 하상(河床)을 넓게 펼쳐 물고기 서식(棲息)에 적지이다. 그래서 예부터 이곳을 ‘장작불 태고 어탕(魚湯)에 이밥을 배불리 먹으니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理想鄉)’이라 불렀다.¹⁹⁾



양양남대천 수계별 지천(枝川)

- 중류인 서면의 본천(本川)에는 물골마을 또는 수동(水洞)이라 불렀던 수리(水里)가 있으며 용소(龍沼)에서 샘이 솟는다는 용천리(龍泉里)가 있다.
- 서면의 후천(後川)에는 구룡령(九龍嶺) 입구의 갈천리(葛川里)가 있는데 춘궁기(春窮期)에 칩뿌리로 입에 풀칠하였기에 마을 앞 하천에 칩가루가 가라앉아 속칭 ‘치래’라고 하였다.
- 황이리(黃耳里)의 미천골(米川谷)에는 신라 말에 선림원(禪林院)이라는 강원(講院)이 있었는데 성불하기 위해 찾아든 학승들을 위해 조석으로 공양미를 몇 가마씩 씻다 보니 쌀 씻은 물이 내를 이루어 후천까지 흘러들어 수색(水色)이 마치 막걸리를 뿌려놓은 듯 탁해 보였다. 이를 본 후천변(後川邊)의 서림, 영덕 주민들이 쌀 미(米)자 내 천(川)자를 써서 이 골짜기 이름을 미천골(米川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속칭 ‘사(쌀)래골’이라고도 한다.

19) 앞의 책, p.243.

- 송천리(松川里)는 하천 가운데 송림이 울창하여 강물이 송림 양쪽으로 흘러서 일명 ‘소(솔)래’ 라고도 한다.
- 용소리(龍沼里)는 하천의 큰 소(沼)에서 용이 승천하여 ‘용소(수)골’ 이라 한다. 송어리(松魚里)는 마을 앞 하천에 송어, 연어, 자라가 많아서 ‘송어골’ 이라고도 하였다.
- 수상리(水上里)는 1936년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 때 하천물이 벼랑에 부딪혀 위로 돌아 내려갔다 하여 ‘물 옷구미’ 수상리(水上里)라 부른다.
- 하류인 양양읍내로 흐르는 물도 과거에는 거마천이 문수사 앞으로 흘러 군청사거리에서 서문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 청곡리, 포월리를 지나 포월천과 합쳐져 조산리에서 바다로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포월리 앞에는 큰 개(大浦)가 있어 달이 뜨면 아름답게 비춘다하여 개 포(浦)자에 달 월(月)자 포월리(浦月里)가 되었다고 하며, 청곡리와 조산리 사이의 앞뜰을 도평(島平)이라 부르는 것도 ‘물로 둘러싸인 섬 버덩(들)’ 이란 뜻이다.
- 『관동지』에는 여름에는 남대천을 건널 때 배(舟)를 이용하였는데, 월리는 본래 양양부에서 가자면 반드시 물을 건너야 하는 마을로 넘을 월(越)자를 썼는데 일제가 달월(月)로 바꾸었다고 한다.
- 수여리는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물수(水), 남을 여(餘)자를 써서 수여리(水餘里)라 하였다.²⁰⁾

2) 양양 남대천의 수해(水害)

(1) 수해의 원인은 하상계수(河狀係數)

우리 하천의 홍수위를 조사하면서 반드시 언급하는 것이 하상계수인데 최대 유량과 최소 유량과의 비율로 하황계수(河況係數)라고도 한다. 이 수치가 1에 가까우면 하황이 양호한 것이고 수치가 크면 클수록 하천의 유량 변화가 큰 것이다. 하상계수는 치수(治水)나 이수(利水)에 중요한 지표이다. 하상계수가 큰 경우 댐을 축조하여 홍수 시 물을 일시 저장, 하류의 수해를 방지하기도 하고 갈수기에는 댐의 저수를 방류하여 이수(利水)가 될 수 있게 한다.²¹⁾

양양 남대천은 환경부 한강수위관측소에서 양양대교에 설치한 유량 자료를 토대로 수십년간 통계를 가지고 하상계수를 산출해야 하나 측정을 시작한지 10년 미만이라 확정적인 하상계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20년 920, 2021년 298, 2022년 760²²⁾으로 3년간 연도별 하상계수를 알 수 있는데 2020년과 2022년은 강수량 변동이 매우 높지만 2021년에는 매우 가물었음을 알 수 있다. 하상계수가 높으면 집중 호우, 태풍, 수해에도 취약하며 봄철 식수난에도 불리하다.

유럽이나 남미의 강이나 베트남, 중국에 비하면 양양 남대천을 비롯한 우리나라 강들은 하상계수가 20배 이상 되기 때문에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겪고 있다.

20)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166.

21) 네이버지식백과 하상계수, 자연지리학사전 2006. 5. 25

22) 한국수문조사연보 유량편

〈표 1〉 국내외 하상계수 비교

국 명	하 천 명	하상계수	국 명	하 천 명	하상계수
대한민국	한 강	393	중 국	양 자 강	22
"	낙 동 강	372	베 트 남	매 콩 강	35
"	금 강	299	인 도	갠지스강	35
"	섬 진 강	734	이 집 트	나 일 강	30
"	영 산 강	682	프 랑 스	세 느 강	23
"	임 진 강	785	독 일	라 인 강	14
"	예 성 강	1,320	미 국	미조리강	75

(2) 조선왕조실록으로 보는 역대 수해(水害) 기록

역대 조선왕조실록 중 수해(水害)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기록은 태종 4년(1422년) 7월 25일(陰曆) ‘대신을 흥국사와 낙산사로 보내 기청회(祈晴會)²³⁾를 베풀었다’²⁴⁾는 기록을 보면 이는 오랜 장마가 있었던 기록으로 추측된다.

이 밖에도 1600년도에 4번의 큰 물난리 피해 보고가 있는 등 8번의 피해가 실록에 등장한다. 날짜가 모두 음력임을 감안(勘案)한다면 장마철보다는 태풍철에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되지 않은 수재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2〉 조선왕조실록 역대 수해기록

순서	왕조실록	사건일시(음력)	피 해 내 용
1	중종권101	38년(1543) 8.2	양양 등지의 풍재, 수해상황을 보고하라
2	명종권17	9년(1557) 7.27	양양 등지에 큰물이 지고 ²⁵⁾ 간성에 우박이 내렸다.
3	선조권189	38년(1605) 7.23	양양부내 100여호 대소인가 재산과 가축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고 산사태에 압사, 해변에 시체가 즐비
4	인조권28	11년(1633) 8.22	양양 등지에 폭풍과 홍수가 일어난다.
5	인조권48	25년(1647) 9.22	양양 고을에 큰물이 지고 큰바람 불어
6	현종권1	즉위(1659) 8.19	양양부에 큰비로 산이 무너져 7인이 깔려 죽다.
7	순조권19	16년(1816) 8.5	떠내려가거나 파괴된 가옥 99호, 익사 및 압사 15명
8	고종 권4	4년(1867) 9.13	양양, 간성 등 고을에서 물에 떠내려갔거나 무너진 집과 깔려 죽은 사람에 대하여恤典(恤典)을 베풀도록...

23) 기청회(祈晴會) : 장마철 등에 날씨가 맑기를 기원(祈願)하는 불교의식

24) 『조선왕조실록』太宗 券八 四年 七月 二十五日 甲子遣內臣于興國寺等及洛山寺設祈晴法會

25) 큰물지다 : ‘홍수가 나다’로 전라도 방언

(3) 1900년대 이후 수해(水害) 기록

■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은 1936년 병자년 7월 말부터 9월에 걸쳐 강원도를 강타한 물난리를 가리킨다²⁶⁾. 1925년 을축년(乙丑年) 수해 때 강원도에서는 80년 만의 대참사(大慘事)를 당했지만²⁷⁾, 1936년 병자년 포락에 비할 바가 아니다.

1936년 8월 26일부터 29일까지 통천에서 삼척까지 폭우가 동해안을 강타했다. 강릉시는 준공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제방이 터지고 강릉 남대천의 강릉교가 무너질 정도로 시내가 물에 휩쓸려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양양은 한밤중에 제방이 터지며 남대천이 범람해 양양읍내가 싹 쓸리며 천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현산공원에 있는 위도비(慰悼碑)에는 사망 584명, 부상 500명, 가옥과 농경지 침수 또는 유실 등 많은 수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전한다.²⁸⁾

■ 1954년 9·13 수해(水害)

‘9·13 수해’는 갑오(甲午)년인 1954년 9월 12일부터 36시간 동안 초속 23m 이상의 강풍과 980mm의 강우량을 동반한 태풍의 엄습으로 양양군 전 지역에 수해가 발생하여 사망 32명, 중상 18명, 경상 25명, 가옥 유실 135호, 가옥 파괴 704호, 가옥 침수 1,195호, 선박유실 102척, 선박파괴 85척, 도로유실 500여 곳 등 이재민 900여명이 발생한 수해다.

특히, 육군(陸軍) 제1101야전공병단(野戰工兵團)이 새로 건설한 남대천 목재(木材) 교량(橋梁)이 완전히 유실되었으며, 당시 남대천 하구의 도평(島坪)뜰에 국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포 36문, 탱크 2대, 군용 천막 2동이 매몰(埋沒) 또는 유실(遺失)되어 복구에 3개월이나 소요되었다고 한다.

■ 사라(SARAH)호 태풍(颱風) ⇒ 열대성 저기압 5등급

1959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태풍 『사라』는 최대 풍속 85m/sec로 제주도 영남지방을 비롯한 전국에 큰 피해를 주었으나 일찍이 동해로 빠져나가면서 양양지역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²⁹⁾

■ 루사(RUSA)

『루사』는 2002년 8월 30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엄청난 양의 비와 바람을 동반하고 영동지방을 강타하여 최악의 재난을 불러왔다.³⁰⁾

2002년 8월 31일 하루 동안에 1904년 한반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1일 최고 강수량이 쏟아졌는데

26) 『향토지』양양군교육청, 1968.

27) 『朝鮮의洪水 조선의 홍수』조선총독부, 1925, p.158.

28)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p.115.

29) 『위키백과』태풍사라

30) 앞의 백과 태풍루사

강릉이 880mm, 양양이 851.5mm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양양은 콘크리트로 가설된 서면 용천리 입구의 용천교(龍泉橋)가 떠내려가는 등 막대한 피해(被害)를 당했다. 당시의 피해액이 양양군 1년 예산(1,291억원)의 4배가 넘어 국가에서 ‘재난지역 선포’라는 초강수를 두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태풍 루사로 인해 사망 23명, 부상 18명, 도로유실 66km, 교량 파손 및 유실 63개소, 제방 유실 15km, 농경지 유실 1,821ha, 수리시설 파손 137개소, 건물 파손 및 침수 2,672동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복구하는 기간만 2년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복구 비용은 총 5천 93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지방비 부담 가중으로 200억원의 부채를 지기도 하였다.

■ 매미

2003년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에 상륙한 『매미』는 순간 최대 풍속이 무려 60m/sec의 무서운 태풍이었다. 루사 피해를 제대로 복구하지도 못했는데 또다시 비와 바람을 몰고 와 농경지 침수와 유실로 복구 기간의 연장은 물론 다시 한번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 피해를 입었다.³¹⁾

양양지방에는 2003년 9월 12일 새벽 3시부터 9월 13일 새벽 5시까지 26시간 동안 최고 438mm가 내려 건물 32동(전파1, 반파2, 침수 29) 농경지 유실 197.8ha, 농작물 99ha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총 407억원으로 도로 교량 등이 94건에 388억원, 사유시설이 19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3) 양양 남대천의 수리(水利) 이용

(1) 보(淤)의 설치 및 이용

보(淤)란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로 끌어들이려고 수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둑으로 된 수리구조물이다. 조선시대 전통적인 농업 용수원의 주류는 보에 의한 것이었으며, 1935년까지만 해도 남북한을 통틀어 90,514개 소의 보가 있었고 여기에서 관개되는 면적은 전 관계 면적의 약 50%인 512,000ha에 이르렀다고 한다.³²⁾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산운동(産米增産運動) 그리고 광복 후의 연이은 미곡증산 시책이 추진됨에 따라 하천 상류의 많은 부분이 저수지로 바뀌고 또 기존의 소규모 보(淤)도 대형화됨에 따라 그 수는 1995년 말 현재 18,425개 소로 줄어들고 면적도 109,000ha에 불과하였다.

보는 수위를 높이고 필요한 수량(水量)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로막아 만드는 것인데 이를 보통 취입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재래 보는 대부분 하천에 가로로 적당한 간격마다 말목을 박고 물이 고이는 쪽에 긴 통나무들을 가로질러 이에 기대어 돌을 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물을 흐르게 하면서 수심을 높이는 게 보통이었다.

최근의 개량보(改良淤)는 대체로 취수문(取水門)·취입보(取入淤)·토사토(土沙吐)·호안공(護岸工)의 네

31) 앞의 백과 태풍매미

3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보(淤), 한국학중앙연구원, 1988~1995년.

33) 저수지나 보(淤) 따위의 시설에 의하여 물을 받음

가지 구조물로 구성된다.³⁴⁾

현재 남아 있는 보는 대부분 견고한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과거의 전통적인 보는 대부분 홍수 때 유실되고 다음 해에 다시 축조되는 구조였다.

■ 양양남대천에 시설된 보(湫) ⇒ 1996년 현재

- 본천(本川) 14개소 : 용천아랫보(가평보), 문서수보(문서릿보), 용천웃보(가둔지보), 산재당보, 수리웃보, 내현보, 내현웃보, 도리아랫보, 도리보, 원일전아랫보, 원일전보, 어성전보, 가둔지보(내현교 바로 위), 삼바리보(내현)
- 후천(後川) 9개소 : 임천보, 북평보, 범부보, 재공보, 공수전보, 용소보, 영덕보, 서림보, 황이보.
- 오색천(五色川) 3개소 : 송천아랫보, 송천웃보, 오가보.

〈표 3〉 주요 보별 몽리(蒙利) 면적

하천명	시설물 종류	시설물 명칭		용도	시설물 주소	수혜면적 (ha)	사용량 (m ³ /s)
		미등재명	금회				
양양남대천	취수보	양양남대천0020	도리석개보	농업	양양군 현북면 도리 43-1	2.72	0.004
	취수보	똑갑하	원일전상보	농업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223-1	12.49	0.020
	취수보	개답지	우 보	농업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493-3	6.13	0.040
	취수보	양양남대천0030	입구지보	농업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603-7	4.72	0.008
	취수보	노랑아랫	노랑나구보	농업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산30-1	1.46	0.002
	취수보	-	어성전상보	농업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938-65	2.00	0.003

■ 가평보(柯坪湫)의 변천

양양남대천의 취입보(取水湫) 가운데 가장 길었고 몽리 면적도 가장 큰 가평보(柯坪湫)를 살펴보면서 수리 시설의 변화를 엿보고자 한다.

가평보는 언제 처음 설치하여 이용하였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일제강점기에 산미증산운동(産米增産運動)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취수보의 위치는 서면 용천리 마을 앞인 양양읍 율리 440-7번지로, 수로(水路) 총 연장은 8.5km이다. 몽리구역(蒙利區域)은 율리, 발밤들(남대천 변 송현리, 수여리), 금강리 뒷벌, 가평리 전 지역, 동면평(수여리 일부, 금강리 앞들) 등 40ha였다. 보의 관리는 몽리자들이 중심이 되어 『양양수리조합』에서 관리를 하였다.

해방 이후에 들어서면서 용천리 앞산(행정구역상 율리) 밑에서 취수하여 율리 마을을 관통하는 수로가 너무 길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되자 송현리 434번지 지하를 굴착(掘鑿)하여 복류수(伏流水)를 거두는 양수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34) 『농업수리학』민병섭, 향문사, 1978.

몽리자(蒙利者)들이 자치적으로 『양양(가평)수리조합』을 결성하여 30마력의 발동기를 시설하여 학포리까지 몽리면적을 넓혀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게 되었다.

이후 홍수와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1959년에는 일제강점기 때 세운 동해북부선 철교 교각 위편인 손양면 송현리 고월산 밑 314-4번지에 양수장(揚水場)을 이전하여 디젤엔진을 동력으로 한 양수(揚水)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동력 50마력 양수장을 새로이 조성하였다. 당시 이건웅(李建雄) 양양군수가 양수기지원에 적극협조하여 성공하게 되었다. 이로써 양수장 부지 내에 ‘군수이건웅송덕비(郡守李建雄頌德碑)’를 1967년 4월 수립(豎立)하여 기념하게 하였다.³⁵⁾

양수장은 『양양(가평)수리조합』에서 관리하다가 1973년에 영북농지개발조합으로 운영을 이관하면서 현재는 전기모터로 교체되었으며 몽리면적도 동면평 전 지역으로 확대되어 몽리면적도 79ha에 이르고 있다.

지금의 양수장은 1999년에 착공하여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손양양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손양면 가평리 227-3번지에는 몽리면적 2ha규모의 가평양수장이 별도로 운영되는데 1959년에 준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양양남대천의 수운(水運)

수운(水運)은 하천이나 강의 물길을 따라 사람이나 물건을 배로 실어 나르는 운송 수단으로 교통 운수 수단이 열악한 과거에는 남대천이 수운(水運)³⁶⁾의 역할을 하였다.

주로 남대천 하류 지역(송현리, 수여리, 금강리, 가평리)의 주민들이 상류 지역의 산에서 베어낸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운반하였으며 뗏목을 만들 수 없는 목재는 날개로 물에 띄우고 목적지점에 하천을 가로질러 뱃줄을 메어놓고 떼내려와 걸리게 하여 건졌다.

서면 송천리(松川里)에는 뱃재골(船材谷)이 있는데 옛날 이곳에서 선재(船材)를 생산하여 수로(水路)를 통해 오산리, 수산리 등으로 보냈다고 한다.³⁷⁾

(3) 양양남대천의 제방(堤防)

■ 조선시대

임천리(鹿門)에서 부 앞까지 큰 제방이 있었으며 제방 위는 버드나무가 식재되어있는 대로(大路)였다. 현산에서 내려다보면 봄철에 피꼬리가 뼈를 짜듯 날며 울어대고 그 독의 풀밭에서는 곱게 단장한 아낙들이 향긋한 봄나물을 뜯었으며 봄 여름 가을 대제 넘어 녹문의 풀밭에서는 소 떼들이 해지는 줄도 모르고 풀을 뜯는 광경이 눈에 가득하다고 하였다.³⁸⁾

35)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p.111.

36) 뱃길로 운반함.

37)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140.

38) 『明庵集』《峴山三十詠》, 국립중앙도서관, 이해조 양양부사, 1901.

■ 일제강점기

남대천(南大川) 백여리 수원(水源)은 항상 시가의 홍수난(洪水難)을 염려(念慮)하게 되므로 1932년 남대천 제방(堤防)을 쌓았는데 1936년 병자년(丙子年) 여름 대홍수(大洪水)로 파괴되고 인축가재(人畜家財)의 손실(損失)이 막심(莫甚)하였다. 이때 연창리의 대미소(竹尾沼)도 메워졌다. 1938년에 재차(再次) 견고(堅固)한 축방(築防)을 하여 수해우려(水害憂慮)가 없게 되었다.³⁹⁾

(4) 양양남대천의 철교(襄陽南大川의 鐵橋)

동해북부선 철도가 1937년 12월 1일에 개통되었다. 양양역은 양양읍 청곡리 390번지 일원에 설치되었다.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일제가 대륙철도 연결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광복과 함께 중단되어버렸고, 결정적으로 노선 전체가 북한령으로 들어가면서 남쪽과의 연결 공사는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령으로 들어간 후에도 열차 운행은 계속되었으나, 6·25 전쟁의 발발(勃發)로 철도가 파괴되어 개통 13년만에 전 구간이 영업을 중지하게 되었다.

일제가 한반도 종단 동해선 철도 가운데 유일하게 단절돼 있던 양양~강릉 구간의 동해북부선을 건설하기 위해 공사가 차질 없이 수행되면서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하폭(河幅)이 가장 넓은 양양남대천에 '조선 제2철교'를 1937년 7월 9일 착공하여 1939년 7월에 가설(假設)하게 된다.⁴⁰⁾

양양남대천 철교는 지금의 양양읍 연창리 180-11번지 '동양기계상사'가 위치한 곳에서 손양면 송현리 628-2번지 양수장 옆 교각이 있었던 곳까지 약 698m의 거리에 21개의 교각을 설치하고 교각 머리마다 갈지(之)자 형태인 지그재그로 좌우에 1개씩의 대피 철제구조물을 설치하였으며 교각 위로는 철제빔이 올려 연결하고 그 위에 레일을 깔고 가운데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중앙에 20cm정도 너비의 송판 2장을 붙여서 깔아 놓고 사람이 건널 수 있게는 하였으나 5m높이로 아녀자(兒女子)들은 현기증이 나서 건너기 어려웠다.

1944년 일제는 소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시기라서 철제 부족을 이유로 상판의 철제빔과 레일을 철거해 가니 철교(鐵橋)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콘크리트 교각만이 남게 되었다. 이 교각은 2004년 양양군에 의해 철거되었다.

8·15해방 후 북한에서 교각 위에 철제빔만을 다시 설치하였으나 운행은 하지 못하였다. 1949년 교각(橋脚) 밑으로 새로운 철로(鐵路)를 가설하고 손양면 금강리 앞까지 시험 운행을 한 바는 있었으나 6·25전쟁 기간에 국군 제1군사령부에서 철교의 빔과 레일을 모두 철거해 가면서 양양남대천 철교는 또다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손양면승람지』에 의하면 '6·25전쟁 전 송현리 고월산에 올라 기적소리 울리는 양양역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굽어보면 영동 최대인 양양철교 밑으로 만폭(萬幅)의 비단 물결이 동해로 이어지는 풍광을 자아내었고, 반대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굽어보면 양양남대천대교가 은하수를 가로지른 듯 오작교 위에서 견우와 직녀가 부둥켜안는 듯한 감회를 느끼게 하였으니 누군들 시상이 어찌 떠오르지 않았

39) 『양양의 땅이름』 양양문화원, 1995, p.31. 襄陽邑 由來

40) 『동아일보』 1937. 7. 9일 '양양남대천에 조선 제2철교 가설 명년 준공'

겠는가?’⁴¹⁾라고 남대천을 칭송하고 있다.

(5) 양양남대천의 교량(襄陽南大川의 橋梁)

■ 조선시대

월리에서 동운교(東雲橋)⁴²⁾로 이어지는 곳이 조선시대(朝鮮時代) 국도(國道)였는데 그 구간을 우마차(牛馬車)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섣다리를 놓고 홍수로 다리가 유실되면 배를 띄웠다 하여 남대천에 다리를 놓았던 자리를 남천진(南川津)이라 했다.

1677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⁴³⁾이 남대천을 배로 건너 사연을 소개한다.

양주읍지(襄州邑誌) 고적조(古蹟條) 물치주시(勿淄柱詩)

조선시대 문정공 우암 송시열이 1677년(肅宗3年 丁巳)에 함경도(咸鏡道) 덕원(德原) 적소(謫所)⁴⁴⁾에서 장기(長鬚)⁴⁵⁾로 양이(量移)⁴⁶⁾하는 길에 양양에서 물 때문에 막히게 되었다.

갑자기 큰비를 만나 양양(襄陽) 물치촌(勿淄村)의 양민 정립(鄭立)의 집으로 달려 들어갔는데, 그 집 기둥에 끝구가 거꾸로 써진 칠언절구(七言絕句)의 물치주시(勿淄柱詩)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남쪽으로 길을 재촉한다.

우암이 배를 타고 한수(漢水)⁴⁷⁾를 건너는데 수세가 대단하여 물이 불어났고 배는 닻과 노를 잃고 어렵게 해구로 흘러가니 수보(秀甫)⁴⁸⁾는 두려워 낮빛이 변하였으나, 우암은 홀로 온화하게 옷깃을 여미고 앉아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다행스럽게도 배가 무사히 물을 건너 언덕에 닿았다.

물치주시(勿淄柱詩)

三傳市虎人皆信(삼전시호인개신)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一掇裙蜂父亦疑(일철군봉부역의) 자식이라도 계모의 치마 속으로 들어간 벌을 잡으려고 옷을 들추면 아비마저도 자식을 의심한다.

世上功名看木雁(세상공명간목안) 세상에 공명을 살펴보면 굽은 나무는 도끼질을 면하지

41) 『손양면승람지(襄陽面勝覽紙)』 양양군 손양면, 1954. 5월

42) 동운교(東雲橋) : 현 양양속초산림조합 옆 복개(覆蓋)한 도로 밑에 교각이 있다.

43) 주자학을 절대 신봉했던 노론의 영수, 1607년(선조 40) ~ 1689년(숙종 15)

44) 적소(謫所) : 귀양지, 유배지

45) 장기(長鬚) : 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일부와 경주시 일부를 관할하던 옛 행정 구역이다.

46) 양이(量移) : 멀리 유배된 사람의 죄를 감등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일

47) 한수(漢水) : 양양남대천의 또 다른 이름

48) 수보(秀甫) : 우암 송시열의 아우 송시묵(宋時默)

만, 울지 못하는 기러기는 요리상에 오른다.

座中談笑慎桑龜(좌중담소신상구) 좌중 담소라도 ‘거북이와 뽕나무의 고사’⁴⁹⁾를 교훈 삼아서 뽕넙을 삼가라!.

이 글에 대해 우암은 허암(虛庵) 정희량(鄭希良)이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권구(權絳)는 조광조(趙光祖)가 쓴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양양남대천 이외의 다리는 그 지역 주민들이 협동하여 섣다리, 쪽다리를 놓고 다녔으며 때로는 양양부사가 황장목(黃腸木) 죽데기를 나누어 주어 쪽다리를 놓기도 하였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⁵⁰⁾이 64세가 되던 1800년 6월에 정조 임금이 갑자기 승하하고 동년 7월 4일 순조가 즉위하면서 8월 18일 양양부사로 승진하여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정조 임금의 황장목(黃腸木)⁵¹⁾을 쓰기 위한 진영(鎭營)이 설치되었다. 연암부사는 필요한 황장목을 보내고 나머지 판자를 강가에 모아놓고 매년 장마기에 고층을 겪는 백성들을 위해서 황장목 죽데기로 패다리⁵²⁾를 튼튼하게 설치하여 몸소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실천하였다.⁵³⁾

■ 일제강점기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남대천교를 없애고 일제(日帝)가 그 자리에 380여m의 섣다리(교각은 콜타르를 먹인 통나무로 하고 상판은 직경 10cm정도의 소나무와 참나무를 베어다 깔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다졌다)를 놓고 트럭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의 다리를 놓았었다. 대홍수로 다리가 유실되면 같은 방법으로 교량을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교각을 박을 때 통나무 3개를 세워 삼발이를 만들고 네 가닥의 로프를 여러 명이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가락에 맞추어 박았다. 후기에는 발동기의 동력으로 다릿발을 박았다.⁵⁴⁾

■ 양양남대천의 대홍수로 목교가 유실되었을 시의 응급조치

남대천 다리가 설치되었던 자리인 양양읍 율리에서 동운교 쪽 강변까지 로프를 단단하게 연결한 후 손양면 가평리에서 작은 목선을 옮겨다 놓으면 배에 오른 자가 밧줄을 당겨서 건넜다 하는데 사공이 없어 무료였다고 한다.

대교 재건이 늦어지면 임시로 사람만이 다닐 수 있도록 송판 두 쪽을 깎 쪽 다리를 설치하고 보호용 밧줄

49) 신상구(慎桑龜)는 : 『송자대전』 제51권 「서(書)」김연지에게 답함 - 을묘(1675)년 8월 20일

50)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 박지원(朴趾源, 1737년 3월 5일~1805년 12월 10일)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며 실학자이자 사상가, 외교관, 소설가이다.

51) 황장목(黃腸木) : 임금의 관(棺)에 쓰이는 질 좋은 나무

52) 「양양의 패다리놓기」崔琳圭 「아시아강원민속」 강원민속학 제2권 45~62p 1984

53) 과정록(過庭錄) : 박종채가 아버지 박지원의 신상·생활상·교우·업적·저술 등을 모아 엮은 잡록.

54) 이종우(88) 양양학연구소 고문(顧問)의 증언

도 설치하였다⁵⁵⁾한다.

■ 6·25 전쟁시기

6·25 전쟁 발발 5일 전인 1950년 6월 20일 북한군 탱크 20대를 기차로 양양역까지 실어 왔으며 6. 22 일에는 21대 더 싣고 와서 지축을 흔들며 남대천을 건너 월리 강변 아카시아 숲속에서 하룻밤을 새우고 이튿 날 새벽에 38선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미군의 폭격에도 살아남은 남대천교는 1950년 9월 30일 북한군이 고성능 수류탄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동운교 쪽을 파괴하고 후퇴하였다. 이것을 주민의 자력으로 즉시 보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게 조치 하였다.

낙동강 전투에서 국군과 미군의 반격으로 경북 대구(大邱)의 팔공산(八公山)에 집결해 있던 북한군 8개 사단(지휘관 무정)이 북쪽으로 퇴각(退却)하다 선발대(先發隊) 중 일부가 10월 1일 양양에 진입하고 10월 4일 새벽에 후발대(後發隊)가 양양남대천을 마지막으로 건넌 후 폭약을 설치하고 떠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폭음과 함께 남대천교가 끊어지고 말았다.

다리가 없는 남대천을 차량과 중장비가 도하(渡河) 하려면 당시 수심이 얕은 지금의 월리 48-2번지 양양 가족센터가 있는 곳과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 동해생명자원센터 뒤편인 수여리 627번지 여울이 적지였지만 7번 국도와 연결이 용이(容易)한 월리 방면을 주로 이용하였다.⁵⁶⁾

1951년 UN군이 양양을 완전히 수복한 후 1952년 육군 건설공병단에서 현 양양을 월리 양양가족센터 인근의 얕은 여울에 150여m의 목조 교량을 가설하였는데 다리 상판 서쪽은 인도(人道)로, 동쪽은 차도(車道)로 구축하였다. 미국산 목재로 튼튼하고 미관도 좋았다. 연창리 쪽으로는 자갈과 모래로 완만한 구배(句配)의 길을 만들었다. 1954년 9·13 수해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 휴전 이후 남대천 교량가설

남대천 구교는 6·25 전화(戰禍)로 파괴된 것을 1953년 제1101야전공병단에서 3개월만에 300여m의 목교(木橋)로 튼튼하게 준공하였다.⁵⁷⁾

1962년에는 목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콘크리트로 완공하였다.

6·25 이후인 1953년 양양남대천교를 준공하고 수복(收復)을 기념하기 위해 제1101야전공병단에서 양양 우체국 앞 사거리에 수복기념공병탑을 세웠다가 1976년 남대천교 서쪽 제방 입구로 이전하였다. 2006년 양양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현산공원(峴山公園)으로 이전하였다.⁵⁸⁾

55) 앞의 증언

56)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정통치에 대한 고찰』 양양문화원, 2015, p.72.

57) 앞의 책 p.73.

58)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pp.116~117.

■ 양양남대천의 현대식 교량 건설

• 양양대교

1991년 7번국도 확·포장공사 때 현대식 교량을 가설하였는데 연창리 앞에서 손양면 송현리로 건너가는 양양의 관문으로 속초와 강릉을 연결하는 도로이다.

⇒ 교량의 제원 : 교량의 길이는 490m, 폭은 18.5m, 높이 12m, 교각 10개로 통행 제한무게가 43.2ton인 1등교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

• 낙산대교

양양남대천의 가장 하부에 설치된 교량으로 양양읍 조산리에서 손양면 가평리를 잇는 해안관광형 교량으로 2003년에 준공하였다.

⇒ 교량의 제원 : 교량의 길이는 470m, 폭은 20m, 높이 10m, 교각 7개로 통행 제한 무게가 43.2ton인 1등교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

• 양양교

양양군청에서 양양읍 남문리를 지나 월리로 이어지는 군도(郡道)의 교량으로 59번 국도로 연결되었다. 1962년 건립한 남대천교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2008년도에 건설하였다.

⇒ 교량의 제원 : 교량의 길이는 378m, 폭은 25.9m, 높이 10m, 교각 7개로 통행 제한 무게가 43.2ton인 1등교로 대형차량도 통과할 수 있는 교량이다

(6) 양수발전소(揚水發電所) 하부 저수지 영덕호(盈德湖)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는 후천인 양양군 서면 영덕리에 위치한 하부저수지 영덕호(盈德湖)와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해발 937m에 위치한 상부저수지 진동호(鎭洞湖)로 이루어져 있다.

양양양수발전소는 1996년 착공하여 2006년 1~4호기를 준공하면서 전기생산을 시작했다. 발전기 4기(호기당 25만kW)는 총 100만kW의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국내 양수발전소 중 최대 규모이자 원자력 1기와 맞먹는 용량이다.

주요 설비로는 250MW 3상 교류동기식 발전 전동기 4기와 255.1MV의 펌프수차 4기가 설치돼 있다. 터널식 수로는 약 6km에 달하며 상부댐(총 저수량 520만 톤)과 하부댐(총 저수량 1030만 톤)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 공급한다.

물을 하부댐에서 상부댐으로 끌어올리는데 11시간 14분이 소요되고 상부에 저장된 물로 최대 9시간 24분 동안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적 발전 설비다.

양수발전은 심야 잉여전력을 이용하여 상부댐으로 물을 끌어올렸다가 전기소비가 많은 시간에 물의 낙차(落差)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기동정지 시간이 짧고 부하 변동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평상시에는 전력수요에 정확하게 대응, 계통안정에 기여하며, 전력계통 사고 시에는 '3분 특공 대기조' 역할을 수행한다. 양양양수발전소는 상부저수지에서 발전소까지의 낙차가 819m로 동양 최대의 낙차 크기다.⁵⁹⁾

59)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 Monthly Magazine 전기에너지산업 현장을 가다 :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2011 December

〈표 4〉 발전소별 기동 정지 시간

국 명	원 자 력	석탄화력	보합화력	양수발전	비 고
기동 정지시간	24시간	4시간	30분	3분	

4) 양양남대천 하류(下流)의 변화

하천의 하류는 사행천(蛇行川)이기에 홍수 등의 영향으로 수시로 변경되었지만 지금은 인공구조물과 튼튼한 제방, 직강화(直江化) 등으로 옛 모습을 잃었다.

양양남대천의 하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를 겪고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특히, 도평(島坪)들과 해안사구지대(沙丘地帶)의 변화는 일제가 대정(大正) 4년(1915년) 측도(測圖)하여 대정 5년(1916년)에 제작한 지도와 비교하면 가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 지도를 보면 당시 남대천 하구의 수로가 북쪽으로 직사각형의 석호인 조산개(造山浦)를 형성하여 강현면 주청리(酒廳里) 경계에 이를 정도로 거대한 호수가 형성되어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⁰⁾

(1) 도평(島坪)들

1915년에는 현 양양가족센터 앞에서 물길의 갈라져 한줄기는 현재의 남대천 물길을 따라 내려가고 한줄기는 연창리 대미소(竹尾沼)⁶¹⁾에서 갈라져 송암리를 감싸고 또다시 분화(分化)되어 한줄기는 연창리와 청곡리 앞으로 셋강이 되어 흘러 포월리에서 물줄기가 커지며 조산리 앞까지 흘러 바다로 간다.

연창리에서 분화된 한줄기는 토둔지(土屯之: 작은 언덕)에서 갈라지며 한줄기는 청곡리 셋강에 합류하고 또 한줄기는 도평들을 남동쪽으로 가로지르며 남대천 원줄기에 합류한다. 이런 이유로 도평(島坪)들은 어느 쪽으로 접근하든지 물을 건너기 때문에 육지속의 섬인 도평(島坪)이 된 것이다. 당시의 도평들에는 농경지가 오늘날의 1/3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남대천으로 흐르는 물은 한개목⁶²⁾에 이르기 전에 큰 석호(滌湖)⁶³⁾에 모였다가 바



1915년 당시 1대50000 지형도 모습과 최근 남대천 하구의 위성지도

60) 「朝鮮五万分一地形圖」조선총독부, 대정4년측도(大正4年測圖) 동5년제작(同5年製版).

61) 연창리 마을 앞 7번국도의 양양대교 북쪽 머리쯤이 대미소(일명 대못소)라 하였는데 산등성에는 대나무가 있고 산밑에 소(沼)가 있어 대미소(竹尾沼)가 되었다.

62) 한개목은 남대천이 끝나고 동해가 시작되는 곳을 말하며 옛 문헌에서는 황계목이라고도 하고 대포(大浦)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남대천 하구를 뜻한다. 수군만호가 있을 때는 병선(兵船)이 있어 이곳을 통해 배둔지(船屯池)로 왕래하였다.

63) 사주, 사취 등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된 호소(湖沼)

다로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1605년 을사포락으로 부유하게 형성된 촌락은 사라지고 황무지로 변했던 사구는 비옥한 밭과 초원으로 새로워졌으며, 연창리 대미소를 기점으로 물길이 북천과 남천으로 갈라져 흐르면서 장마로 북천이 우세하면 북쪽 마을 즉 양양면 쪽이, 남천이 우세하면 남쪽인 손양면 쪽이 부유한 복록(福祿)을 입는다고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다.

8·15해방 이전에는 송암리 쪽 넓은 초원에 축구장을 만들어 놓고 매년 여름이면 양양군과 강릉군(江陵郡)의 축구팀이 축구 경기로 양강(襄江) 두 고을의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다

6·25 전쟁 이전의 도평들은 낙원의 풍광으로 쓸만한 사구는 비옥한 밭으로 가꾸어져 조·콩·밀·보리·수수가 일렁거리고, 밭으로 가꾸지 않은 대부분의 사구는 우마가 풀을 뜯는 곳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매워져서 곡창(穀倉)인 농경지(農耕地)로 변하였다.

(2) 대포영(大浦營)

조선시대 동해안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둔하던 강릉 안인포(安仁浦)의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1490년 성종 21년에 양양부 조산리(造山里)로 옮기고 대포영(大浦營)⁶⁴이라 칭하였다. 사천리(仕川里)에는 대포영의 군관들이 거주하면서 사천리(沙川里)가 모래사(沙)에서 벼슬할사(仕)의 사천리(仕川里)로 마을 이름이 변경되었다.

양양읍 임천리(林泉里) 뒷산 석성산(石成山) 자리가 만호(萬戶)터로 1496년 대포수군(大浦水軍) 만호(萬戶)⁶⁵가 본영(本營)은 조산리 성안말에 두고 관사(官舍)는 임천리 석성당(石城堂) 자리에 건축하고 살았다 하여 '만호터'라 한다.⁶⁶

1520년 중종 15년 대포영에 높이 12척, 둘레 1,469척 석성을 축조하였다가 인종 4년(1545)에 적합지 못해 혁파(革罷)하였으며, 1529년 양양인 이봉(李芑)이 대포수군만호(정3품)로 임명된 사실이 지난 2011년 3월 21일 양양지역 전주이씨 문중 선묘(先墓) 이장(移葬) 중 묘지석(墓地石)이 출토되면서 밝혀지기도 하였다.⁶⁷

1530년경 대포수군만호가 양양읍 기정리 동쪽 호수(湖水) 부근에 정자(亭子)를 짓고 학포정(鶴浦亭)이라고 하였다.⁶⁸

포월리 북쪽과 기정리 경계에 있는 산길 중간에 대포수군부장(大浦水軍副將)이 쉬어 갔다는 원수(元帥)터가 있다.

1605년 을사포락(乙巳浦落)으로 인하여 군항이 사토(沙土)로 매몰되면서 기능을 상실하여 자연스럽게 양양지역에서 대포영이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64) 조선시대 동해를 방어하던 군항(軍港)을 대포영(大浦營)이라 한다.

65) 고려·조선 시대 외침 방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호부의 관직으로 통솔하여 다스리는 민호(民戶)의 수가 만호였으나 품계와 직책 등으로 변경되어 초기의 만호는 3품관, 부의 만호는 4품관이었다. 『경국대전』에 강원도의 수군만호는 4인이었다.

66)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76.

67) 『양양의 역사와문화』양양문화원, 2017. p.15.

68)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p.79.

배둔지(船屯池)는 조산리 동남쪽 끝 구룡지(九龍池)에서 흐르는 여울 남쪽에 대포영의 병선을 매던 곳으로 도평들 한가운데인 양양읍 조산리 122번지 포월천 부근인데 지금은 호수가 메워져 논으로 활용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대정4년(1915년)에 측도한 지도를 보면 왜 대포영의 배둔지가 그곳에 위치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대포영지(大浦營址)는 조산리 서쪽의 성안말(城內村)과 북쪽의 성재(城峙) 사이에 있었으며 주위가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다. 축성 흔적이 있는데 남쪽 능선에 동명서원이 있다.

(3) 조산리 석호 조산개[造山浦]

1990년 이전에는 지금의 동해신묘에서 조산초등학교까지 백사장(白沙場)에 조산개(造山浦)라는 석호(潟湖)가 있었는데 낙산 프레야 콘도를 신축하면서 사라졌다.

호반에는 갈대 등 수초가 무성했으며 바닥은 개펄이었다. 말 종류의 수초가 자라고 물빛이 흐려 바닥을 볼 수 없었다. 어류의 먹이가 되는 수생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잉어, 뱀장어 등 어류가 많이 서식하였으며 ‘갯[浦]터짐’으로 바다와의 물길이 열리면 송어, 황어, 전어 등이 찾는 곳으로 작은 배를 띄워 투망과 낚시로 어획하였다.⁶⁹⁾

(4) 양양남대천의 개[浦] 막힘 현상

‘개[浦] 막힘 현상’은 양양남대천의 한계목이 1년에 3~5회 정도 막혀서 담수가 바다로 유입되지 못하는 현상으로 주로 바닷물이 역류한 후 막히는데 이때 기수성 수역이 만들어지면 염분의 농도가 해수와 담수의 중간으로 기수호(汽水湖)⁷⁰⁾가 된다.

바다가 백중사리⁷¹⁾ 때가 되거나 강한 동풍과 함께 파도가 높으면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남대천 하구인 한계목의 유속(流速)이 점점 느려지다가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모래가 퇴적(堆積)되어 결국 막히게 된다.

개 막힘 현상이 일어나면 도평들 저지대 논이 수로(水路)로 염분(鹽分)이 함유된 하천수가 역류하여 농사의 피해를 염려한 주민의 요구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뚫어놓게 된다.

수위(水位)가 많이 오를 때는 남대천 하구에서 양양대교까지 물이 불어 거대한 호수가 되면서 양양대교에 설치된 유속측정 장비에 마이너스(-) 유속이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다.

(5) 양양남대천 중하류(中下流)의 소(沼)

소(沼)란 하천의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이나 기암괴석, 이상 지형 등으로 인하여 물길이 돌아가거나 유속이 빠르고 힘이 있어서 하천 바닥이 파여서 깊은 곳을 말한다. 깊은 물로 인하여 고기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69) 이종우(88) 양양학연구소 고문(顧問)의 증언

70) 기수호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있는 호수, 하층은 비중이 큰 바닷물, 상층은 민물인 이중구조로 바닷고기와 민물고기가 함께 서식한다.《국어사전》

71) 백중사리는 태양, 지구와 달의 위치가 일직선상에 있으면서(대조기) 달의 연중 최 단근지점(Perigee,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이므로 연중 조차(潮差)가 가장 크다.

천렵꾼이나 피서객이 몰리다 보니 인명사고가 종종 일어나며 소마다 크고 작은 전설을 가지고 있다.

- 좌랑소(佐郎沼)는 내현리 관가평(官家平) 옆에 있는데 좌랑(佐郎) 벼슬을 한 부자가 투신(投身)하였다 하여 좌랑소라고 한다.
- 용소(龍沼)는 율리 양양교에서 용천리 방향으로 300m 정도 상부로 가면 하천변에 용머리를 한 바위가 있어 용소라고 불렀다. 지금은 59번 국도개설로 거의 없어지고 작은 암석만 남았는데 이 바위 밑이 매우 깊어 명주(明紬) 꾸리⁷²⁾
- 계바위등지소는 가평리 뒷산 아래에 있는데 계바위등지소 위의 산상에서는 매년 호랑이가 새끼를 처갓다 하는데 물살이 매우 빨리 돌며 수심이 깊어 여름철 매년 익사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밖에도 용천2교 남쪽 300m 지점의 띠기소, 용천2교 북쪽 780m 지점의 배랑소, 용천리 은벼룻산 남쪽 가둔지보밑의 은벼룻소, 송현리 고월산 아래의 또깍소, 수여리 버덩말 끝자락의 가재기소가 있었으나 하천 제방 공사로 대부분 없어졌다.

5. 맺은 말

양양남대천을 정리하면서 삼국시대에서 고려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거의 찾지 못하였다. 이 시기의 기록으로는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의 우통수(于筒水)에 대한 고려 충렬왕 7년(1281)의 기록이 유일하다.⁷³⁾

조선시대에도 각종 지리지에는 부에서의 거리 정도만 기록되어 있을 뿐 다른 자료는 거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 홍수 등 재해를 보고한 기록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자료가 없기는 근대와 현대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근·현대에는 국가 전체적인 기록은 있는데 양양남대천의 기록은 없다든지 또는 사건의 기록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심지어는 기록이 없어 증언에 의존한 부분도 상당수 있음을 고백한다. 기록이 아닌 증언은 증언자들이 고령이기에 시급함이 앞선다.

사실 치수(治水)는 인간의 정착과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매우 중요하였다. 그러나 치수(治水)를 오래 전부터 중요시했으면서도 하천을 관리하는 면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냈고 기록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과거를 이어 오는 연속선상에 서 있는 것이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치수는 중요한 덕목이며 재난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천의 이용 측면에서 여가나 레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함에도 반드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계획

72) 명주(明紬) 꾸리 : 명주실을 감아 놓은 뭉치 하나가 다 들어갔다고 한다. 8·15해방 이전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73) 『삼국유사』, 일연, 1281편찬. '신라 보천태자가 수정암에서 수도할 때 이 물을 매일 길어다가 문수보살에게 공양했다'

이 수립되고 기록이 관리되어 양양의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이번을 계기로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와 현상들을 개괄적(概括的)으로나마 둘러볼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지만 좀 더 많은 역사적 기록이나 흔적을 찾아서 내용을 풍부하게 이끌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양양남대천에 대한 역사적, 문학적인 글들이 양양문화원 양양학연구소로 집주(集注)되어 역사적 사료로서 완성될 날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삼국유사』 일연, 128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1392~1863.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1454.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1481.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1530.
『관동지(關東誌)』1826~1828.
『대동지지(大東地志)』1861~1866.
『명암집(明庵集)』《峴山三十詠》, 국립중앙도서관, 이해조 양양부사, 1901.
『향토지』양양군교육청, 1968.
『양양의 땅이름』양양문화원, 1995.
『양양지방의 금석문』양양문화원, 2014.
『한국전쟁시기 양양군정통치에 대한 고찰』양양문화원, 2015.
『양양의 역사와문화』양양문화원, 2017.
『朝鮮の洪水(조선의 홍수)』조선총독부, 1925.
『朝鮮農業發達史』小早川九部, 朝鮮農會, 1910~1926.
『농업수리학』민병섭, 향문사, 1978.
『역주과정록』김윤조 역, 태학사, 1997.
『정통풍수지리』정경연, 평단, 200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79~1991.
『한강 발원지의 구멍에 관한 연구』최승업·전상호, 강원개발연구원, 2000.
『한강의 시원 정립에 관한 불교적인 영향 고찰』염중섭, 『한국선학』25권 2010.
『한강의 시원으로서 우통수와 금강연의 타당성 고찰』염중섭, 『온지논총』28권, 2011.

- 「택리지의 현대지형학적 해석과 실용화 방안」전영권, 『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8권 2호, 2002.
- 「역사·문화로 본 한강·낙동강·오십천 발원지 고찰」김도현, 2018.
- 「동아일보」1937년7월9일. '양양남대천에 조선 제2철교 가설 명년 준공'
-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희병 역, 돌베개, 1998.
- 「Journal of the Electrical World / Monthly Magazine 전기에너지산업 현장을 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 양양양수발전소 2011 December
- 「청구도」김정호. 1843.
- 「朝鮮五万分一地形圖」조선총독부. 1916.
- 《YTN SCIENCE》게시일: 2018. 1. 3.
- 《위키백과》태풍
- 《네이버지식백과》하상계수



2023 문화학교 소개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실명	강사	수료자	교실명	강사	수료자
한시	이종우	14	사물놀이	홍이표	15
한문서예	함연호	27	색소폰	이명재	28
한글서예	김광희	23	난타	주동진	10
한국화	조정승	21	민요	이건남	15
수채화	김영덕	22	통기타	강명근	35
민화	정복자	12	600합창단	김영삼	21
인두화	조혜성	12	태평소	박하나	9
고전	최영택	11	취타대	고철영	22

우수 수강생

교실명	성명	교실명	성명
한시	조현숙	사물놀이	진정여
한문서예	전옥병	색소폰	임경수
한글서예	로재창	난타	최인숙
한국화	윤길중	민요	허옥환
수채화	스즈끼나호코	통기타	최선희
민화	최현식	600합창단	김수임
인두화	남기란	태평소	심연옥
고전	양동창	취타대	이금주

한 글 서 예



수상

- ❖ 대한민국 운곡서예 문인화대전
 - 특우수상 : 전성호
 - 특 선 : 김주희, 전선주, 박상혁, 조일배, 장영량
- ❖ 탄허 대중사 추모 전국 휘호대회 - 특선 : 박상혁
- ❖ 세종대왕 전국 한글 휘호대회 - 특선 : 홍의태
- ❖ 대한민국 서예전람회 - 입선 : 노복현, 김순자, 조일배
- ❖ 강남문화원 전국서예대전 - 특선 : 조일배



전시

- ❖ 속초시립박물관 지역작가초대전
 - 초대출품 : 김순자, 노복현, 김영순, 심현순, 박경숙
-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한국예술문화원 전국서예대전 초대작가 작품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한 문 서 예



수상

- ❖ 2023 양양문화제 기념 영북지구 휘호대회
 - 최우수상 : 박상울 - 특선 : 윤지환, 전옥병
- ❖ 2023 강원미술대전
 - 특선 : 윤지환 - 입선 : 김기승, 신동우, 신성현
- ❖ 2023 만해축전 제21회 남의침묵 서예대전
 - 한문 예서 특선 : 박상울
 - 한문 행·초서 특선 : 박상울
- ❖ 2023 농민서예 - 특선 : 박상울
- ❖ 2023 운곡서예문인화 대전
 - 특우수 : 최용일 - 특선 : 김기승, 박상울



전시

-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및 가훈씨주기
- ❖ 2023 양양송이연어축제 가훈씨주기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민 화



수상

- ❖ (사)한국민화진흥협회 제7회 전국민화공모전
 - 입상 : 최현식, 이영주, 고민숙, 김금희, 김순이, 장영랑
- ❖ 장수군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장수 미술대전
 - 특선 : 이영주
- ❖ 조선민화박물관 주최 전국 민화 공모전 - 입선 : 이영주
- ❖ (사)한국민화협회 제16회 대한민국 민화공모대전
 - 장려상 : 고민숙



전시

-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10월24일~29일 속초시립박물관 지역작가초대전
 - 민화이야기
- ❖ 10월31일~11월6일 양양문화복지회관
 - 제2회 양양오색민화회 회원전 - 민화이야기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인두화(우드버닝)



수상

- ❖ (사)한국전통문화예술진흥협회 새봄의향기 초대전
 - 초대작가상 : 남기란, 이기순



전시

-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 10월23일~11월4일 제4회 전국인두화우수작가전 전시
 - 참여 : 남기란, 이기순, 신동빈, 유철호, 유석진, 김미동, 조현숙, 양영철
- ❖ 2023 강원문화대축전 전시
-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한 국 화



전시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수 채 화



전시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10월24일~28일 양양문화복지회관 양양군민과 함께하는 나눔수채화 전시회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한 시



전시

❖ 제45회 양양문화제 문화학교 전시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

고 전



전시

❖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작품전시회

난 타



공연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색 소 폰



공연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통 기 타



공연

❖ 9월10일, 10월24일 양양 야외무대 버스킹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600합창단



공연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민 요



공연

❖ 양양 장터 버스킹 공연
❖ 인제 문화대축전 공연(서면아라리)



수상

❖ 서울 세종대왕 전국 국악대회 우수상(단체-서면아라리)
❖ 실버스타 K in 강원 은상

사 물 놀 이



공연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수상

❖ 제28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장려상

태 평 소



공연

❖ 5월 21일 독방마켓 활성화 지원 버스킹 공연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 7월 29일 풀링인 양양버스킹 웰컴센터 공연

취 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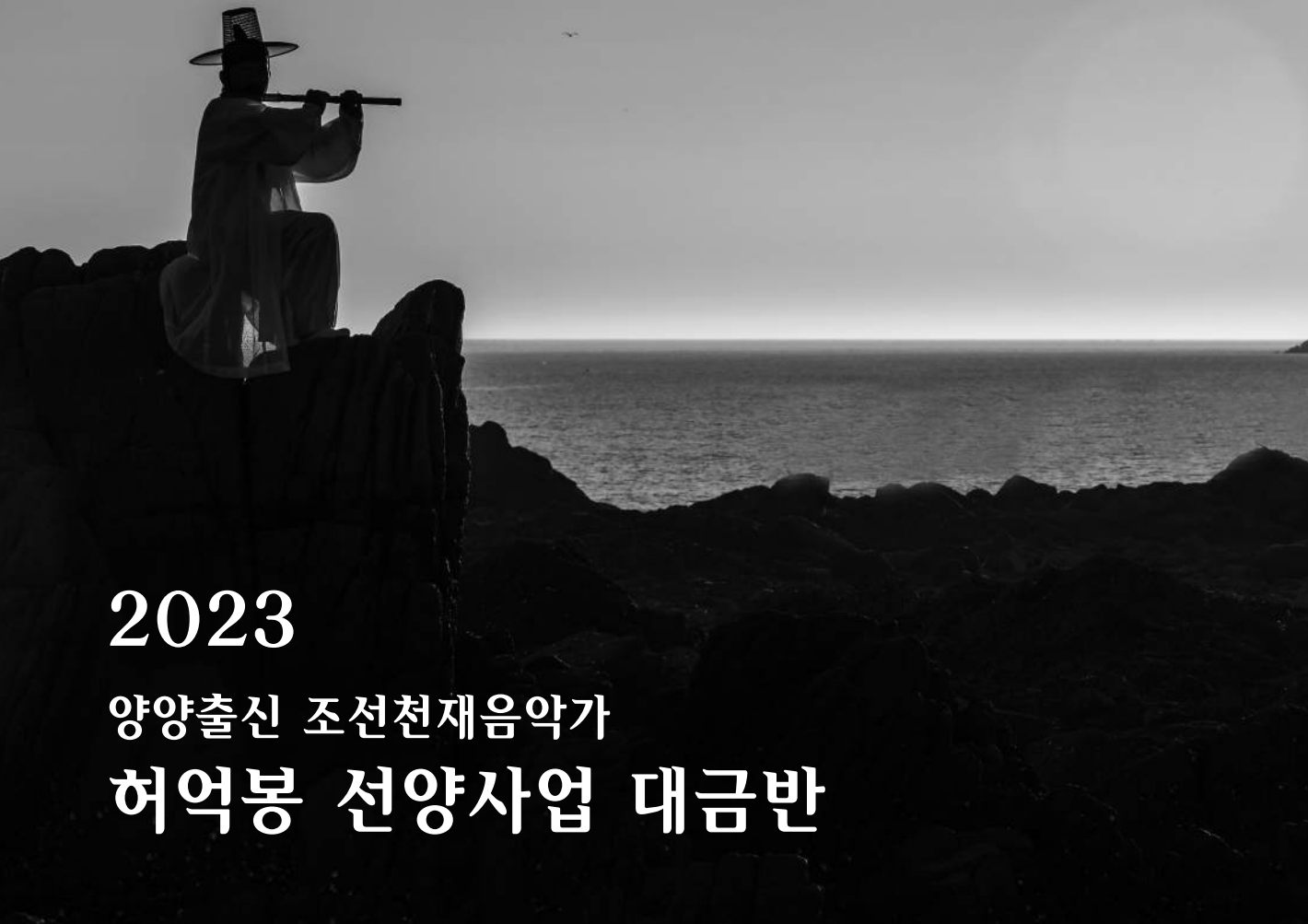


공연

❖ 제45회 양양문화제 거리퍼레이드 및 민속경기 개식행진공연



❖ 양양문화원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2023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짐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이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4. 비고

- 수 강 생 : 18명
- 공연내역 : 2023. 10. 19. 2023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날의 문화공연

1월

양양 남대천(南大川)과 한수(漢水) 이야기

양양의 주 상수원. 남대천은 양양관내를 관통하며 양양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를 품고 있다. 이곳에서 양양문화제와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열려 양양의 전통과 현재가 축제를 통해 어우러진다.

과거에는 치수(治水)가 제왕의 가장 큰 덕목이었지만 이제는 여가와 문화적 공간확보가 군정의 핵심 과제이다.

요즘 양양군은 남대천 하구를 중심으로 홍수를 대비한 치수(治水)는 물론 정원(庭園)과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국민적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때 남대천(南大川)의 역사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한다.

■ 양양 남대천과 한강은 같은 이름이다.

양양(襄陽)의 양(陽)자는 풍수에서 산의 남쪽이자 물의 북쪽(산남수북(山南水北))을 이르는 말이니 양양의 북쪽에는 산이 있고 남쪽에는 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중종 25년(1530년)에 편찬된 신동국여지승람에 '남대천은 부남쪽 2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대천(南大川)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유입되는 하천 중에서는 유로(流路)가 가장 길어서 큰 대(大)자를 붙였다. 말 그대로 양양 남대천은 양양의 남쪽으로 흐르는



양양 남대천 수계

큰 하천”이란 뜻이다.

또한 신동국여지승람에 ‘강릉부(江陵府) 오대산에서 나오며 소동나령(所冬羅嶺)의 물과 합치고 부 남쪽을 지나 바다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오대산 두로봉에서 발원하여 현북면 쪽에서 내려오는 남대천 물과 오색과 구룡령에서 내려오는 후천(後川)의 물이 합쳐진다는 이야기다.

남대천의 또 다른 이름은 한수로 언어학적으로는 대(큰 대) 자의 순 우리 말로는 “한”이고 천(川)은 물이니, 한수(漢水) 또는 한천(漢川)이 되었다.

지리적으로는 서울 도심을 흐르는 한강의 발원지도 양양 남대천과 함께 오대산 두로봉 우통수(于筒水)인데 서쪽으로 흐르는 줄기는 한강으로 가고 동으로 흐르는 물은 양양 남대천으로 흘러드니, 두 강 모두 우리말로 한수다. 환경부의 한강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에 의하면 양양 남대천도 한강 권역에 속해있다.

■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과 하천정비

지금처럼 남대천 물이 제방으로 보호되는 것은 1936년 병자년(丙子年) 포락(浦落)이 계기가 되어 대대적으로 하천 제방을 축조하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제방을 축조해도 삽과 가래가 전부였고 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할 수도 없었기에 큰비만 내리면 범람하여 홍수로 이어졌다.

2002년 루사 전까지 최대의 물난리로 기억되는 병자년 포락으로 한밤중에 제방 곳곳이 터져 양양 남대천이 범람해 하천 인근 마을들은 물론 양양 읍내까지 싹 쓸리며 천 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현산공원에 있는 위도비(慰悼碑)에는 사망 584명, 부상 500명, 가옥과 농경지 침수 또는 유실 등 많은 수해를 입었다.



대풍수재조난자지위도비

■ 남대천과 관련된 지명

양양읍내로 흐르는 물도 과거에는 거마천이 문수사 앞으로 흘러 군청사거리에서 서문리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쳐져 청곡리, 포월리를 지나 포월천과 합쳐져 조산리에서 바다로 빠져나갔다.

이로 인해 포월리 앞에는 큰 개(호수)가 있어 달이 뜨면 아름답게 비춘다. 하여 개 포(浦)자에 달 월(月)자 포월리가 되었다고 하며, 청곡리와 조산리 사이의 앞뜰을 도평(島平)이라 부르는 것도 “물로 둘러싸인 섬 버덩”이란 뜻이다.

『관동지』에는 여름에는 남대천을 배(舟)를 사용해 건넜다 하는데, 월리는 본래 양양부에서 가자면 반드시 물을 건너는 마을로 넘을 월(越)자를 썼는데 일제가 달월(月)로 바꾸었다고 하며, 수여리는 물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물수(水), 남을 여(餘)자를 쓰며, 수상리는 물 옷구미 즉 물 옷 마을로 물 수(水), 옷 상

(上)을 쓴다.

이 밖에도 수(水)리, 용천(龍泉)리, 용소(龍沼)리, 송천(松川)리 등이 남대천(하천)과 연관한 지명을 쓴다.

■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기대



하늘에서 본 남대천

어머니의 강 양양 남대천은 역사문화의 발상지로서 우리나라 연어의 70%가 회귀하며 오대산에서 발원한 청정수가 산을 돌고 들을 건너서 백여리를 달리다 한적하고 고요한 풍광에 소(沼)를 이뤄 잠시 휴식을 취하다 다시 굽이쳐 바다에 이르는 문화적 자원이다.

2014년부터 남대천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친수화(親水化)하여 국민에게 돌려주고 있어 명품 하천으로 변모하고 있다.

남대천 둔치는 어화원(魚花園)이 되었으며 하천은 물길을 잡아 주어 향토 어종의 친환경 서식지가 되었고, 자연 산란과 생태관찰로(生態觀察路) 등으로 많은 사람의 여가 공간이 되어간다.

강을 끼고 걸을 수 있고, 돌다리로 건널 수 있어 좋다. 사업이 완성되면 또 어떤 모습일지 기대하면서 과거처럼 어성전리 하천에서도 연어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림사(선림원지)와 홍각선사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에 자리한 사림사의 원명은 억성사(億聖寺)이고 이곳에서 홍각선사가 한국 선종의 기틀을 마련하였는데 그 자취를 살피고자 한다.

■ 억성사에 세워진 홍각선사탑비

880년 10월 21일 승려 김이관이 입적하자 이듬해 신라 헌강왕은 그의 공덕을 칭송하여 그의 법명을 홍각선사(弘覺禪師:830~880)로 하였고 탑명을 선감지탑(禪鑑之塔)이라 정하여 탑비와 승탑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정강왕 원년(886)에 억성사에 세워졌다.

비문의 일부가 마멸되어 정확한 전체 문장을 번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법이란 것이 본래 진(眞)도 아니고 가(假)도 아님을 알아야 선종의 근본에 도달하게 된다.’, ‘말을 잊고 고요한 경지에 이른 이가 홍각선사가 아니겠는가!’ ‘홍각선사는 정신이 뛰어난게 맑고 시원하며 본성의 깨달음이 비범하여, 법의 바다를 건너게 해주는 나루터이자 다리였다.’ 라는 취지가 적혀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미천골에 위치한 억성사와 그 절에 주석하였던 홍각선사가 한국 선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억성사의 강원(講院), 선림원

경서와 사서에 능통한 홍각선사는 17세에 해인사(海印寺)로 출가하여 선지식을 찾았고 영암사(靈巖寺)에서 참선에 정진하였는데 그 모습과 풍채도 준엄하였다 한다. 억성사에 주석하던 염거화상이 입

적하자 홍각선사는 원감대사(圓鑑大師, 787~868)를 찾아가 수학하고 870년경에 다시 억성사(億聖寺)로 돌아온다.

홍각선사는 억성사를 대대적으로 중창하고 선종의 강원(講院)을 운영하였는데 그 당시 적지 않은 타종단의 승려가 선종으로 이적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때 스님들이 먹을 쌀을 씻은 물이 미천골(米川谷)을 채웠다 하니 억성사의 위세를 짐작할 만하다.

1605년 을사포락 때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림원지를 최근 발굴하였는데 남서 길이 29.2m, 북동 길이 25m, 너비 13m의 ‘ㄱ’자형 대형 승방지와 여러 동의 부속 건물지와 강원 터가 확인되었다.



선림원지 발굴모습 (2015.7~20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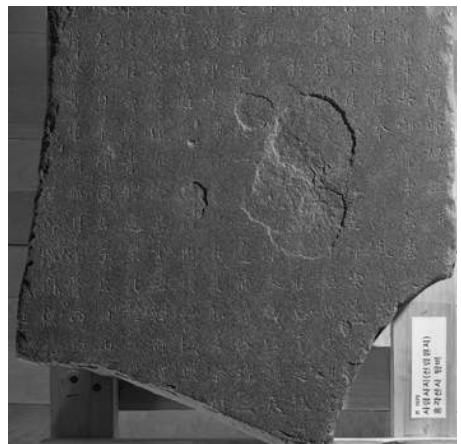
■ 사림사와 선림원지

양양부사 이해조가 지은 『양양삼십영』의 한시와 『현산지』의 사찰조 및 『여지도서』등 자료에 의하면 신라 사찰 억성사가 조선시대에는 사림사로 불리었다. 그런데 1964년 정영호박사가 사지를 최초로 조사한 후 석조물인 보물제444호 삼층석탑 등 4점을 1966.9.1일 문화재로 지정할 때 사지의 명칭을 ‘선림원지’로 기록하므로 사림사지가 선림원지로 불리게 되었다.

■ 홍각선사탑비의 수난

현강왕의 명령으로 병부랑중 김원(金蓮)이 비문을 지었고, 그 비문을 승려 운철(雲撤)이 왕희지체로 썼고, 비명은 차성현령 최경[崔瓊:일부에서는 최형(崔夔)으로 기록되어있다]이 전서체로 썼는데 이를 보덕사 승려 혜강(慧江)이 새겼다. 이 비문에 사용된 왕희지체는 ‘점획이 팔팔 뛰려는 것 같고 삼장(三藏)의 서문과 겨루어 손색이 없을 만큼 뛰어나다.’ 한다.

『관암전서』, 『양양부읍지』 등에 의하면 조선 후기 양반들이 이 비문을 앞 다투어 탁본하려 하였는데 이로 인해 민중들이 탁본 부역에 시달리게 되자 화재를 일으켜 비문의 몸돌이 파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다.



홍각선사탑비문 실물

그 후 양양부사 안경운(安慶運, 1745~1747)이 파편을 수습하여 양양부의 창고에 보관하던 것을 1913년 조선총독부의 금석문수집 통첩에 따라 이 비의 파편 일부가 1914년 총독부박물관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2002년 국립춘천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되고 있다. 또 1985년도 발굴조사 시 출토된 비석 조각 일부는 동국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으며 홍각선사의 비문은 신라 말기 왕희지의 글씨가 보급되었음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 2008년 홍각선사탑비를 복원하다

홍각선사탑비의 탁본 된 비문을 연구한 결과 글자 수는 1,340자 정도로 밝혀졌는데, 현재까지 약 710자를 확인하여 가로 32행, 세로 48자의 비문을 너비 94.5cm, 높이 173.5cm, 두께 19cm의 비 몸돌에 음각하여 사지(寺止)에 남아 있던 높이 73cm의 거북 받침돌에 세우고 5.23cm의 머릿돌을 덮어서 선림원지에 세우므로 보물 제446호 홍각선사탑비가 복원되었다.



홍각선사탑비 (보물제446호)



홍각선사비명 (弘覺禪師碑銘)

조선 시대 양양의 특산물

요즘 양양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핫 플레이스」이다. 방문하는 사람들이 양양의 이모저모에 대하여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번 호에서는 조선 시대 양양의 특산물에 대하여 조명해 본다.

■ 양양 아철지 역사



신증동국여지승람 토산

특히 <표>에서처럼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부 토산(土産)조에는 철(鐵)이 나오는데 현 양양 철광의 위치인 ‘서선사(西禪寺) 동쪽 봉우리 아래서 나온다.’라는 기록을 보아 오래전부터 철은 양양의 특산물로 진상했지만, 각종 농기구나 무기 등을 만들어 민간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 양양 철의 역사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50번지 구룡령 기슭에서 삼국시대에 조성된 야철지(冶鐵地)가 발견돼 학계에서 확인 결과 광석(鑛石)에서 철을 정제해 각종 철제 연모를 만들던 터로 확인되었다.
- ❖ 또한 강현면 금풍리(金風里)의 옛 이름은 용철야(熔鐵冶 : 풀무질로 쇠 녹이던 곳)로 불리다 300

년 전에 금풍리가 되었지만, 아직도 ‘쇠풍골’이라 부른다.

■ 조선시대 특산물과 공납의 변화

토산품 중에는 농산물이나 약초보다는 미역이나, 김 등과 각종 어류(魚類)가 많이 등장하는데 바닷가 고을이라 공납이 지정되었다. 대부분 소금에 절이거나 말린 상태로 유통이 되었다. 어류 중 쌍족어(雙足魚)가 300년 이상 물목(物目)에 있는데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다. 어물 중 명태가 등장하지 않는다. 오징어(烏賊魚)는 1940년에 처음 등장한다.

■ 소금을 특산화 하다.

『대동지지』 토산조에 소금(鹽)이 처음 등장하는데 염전과 관련한 지명이 『양양의 땅이름』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는 ‘바닷물을 퍼다 가마에 넣고 끓이다가 소금 결정이 만들어지면 가마니에 담아서 정제하는 방식이었다.

❖ 염전 : 조산리 ⇒ 염전거리, 여운포리 ⇒ 염전터, 중광정리 ⇒ 염밭, 정암1리 ⇒ 염전거리.

■ 특산물과 진상품의 차이

『관동읍지』에는 물산조(物産條)와 진상하는 공물(貢物)인 진공조(進貢條)를 따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진공조를 보면 물산(物産)보다 훨씬 많은 공물(貢物)을 요구하여 백성을 곤궁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표>에 없는 약재가 26가지나 포함되어 있으며 상어(沙魚)와 낙산 배(生梨)가 진상품에 처음으로 들어 있다.



낙산배 시조목

■ 일제 강점기 공출의 변화

『현산지』 물산(物産)조를 보면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접어들면서 호랑이와 곰 가죽에서 수달

에 이르기까지 10 여종의 짐승 가죽이 공출(供出)되어 대형동물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양양지방에서 해양성 기후를 이용한 다양한 과일(11종)이 생산되어 영서를 넘나들었다. 특히, 돌고래가 특산품에 처음으로 포함되어 있다.

■ 그 밖의 특산품

이 밖에도 백화사(白花蛇)는 살모사(殺母蛇) 종류의 말린 뱀으로 한약재로 진상했으며 화살대(竹箭)는 ‘죽도에서 나온다’ 고 하여 현남면 인구리 죽도(竹島)에서 생산되는 것이 최고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동지지』에는 ‘고려 문종 17년(1063)에 돈과 곡식의 출납과 회계를 맡아보던 삼사(三司)에서 아뢰기를 익령현(양양의 옛 이름)에서 황금이 산출되니 공적(貢籍)에 추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하나 지금은 황금을 발견할 수 없다.

❖ 高麗文宗十七年三司奏翼嶺縣產黃金請附貢籍(고려문종17년삼사주익령현산황금청부공적)

〈양양의 특산물〉

문헌명	약초 및 작물	어류 및 수산물	특이(特異) 품
『신증동국여지승람』 권44. 토산조(1530)	모시, 인삼, 잣, 오미자, 지치, 지황, 복령, 꿀, 송이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은어[銀口漁],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송어, 쌍족어(雙足魚), 해삼	철, 백화사(白花蛇) 살모사 종류, 화살대
『대동지지』 권16. 토산조(1861~1866)	삼베, 인삼, 잣, 오미자, 복령, 지치, 꿀, 송이, 석이버섯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은어[銀口漁], 황어, 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송어, 쌍족어(雙足魚), 해삼, 소금	철, 백화사(白花蛇) 살모사 종류, 화살대
『관동읍지』 물산조, 진공조(1871)	모시, 인삼, 잣, 오미자, 지치, 지황, 복령, 꿀, 송이	김, 미역, 전복, 홍합, 문어, 대구, 송어, 연어, 은어[銀口漁], 황어, 고등어, 광어, 농어, 송어, 쌍족어(雙足魚), 해삼, 소금	철, 백화사(白花蛇) 살모사 종류, 화살대
『현산지』 물산조, 진공조(1757~1910)	차, 잣, 오미자, 오가피, 지치, 송이, 느타리, 석이, 배, 감, 밤, 복숭아 등	돌고래, 게, 홍합, 해삼, 생복, 대구, 방어, 가자미, 광어, 문어 상어, 홍어, 송어, 연어, 황어, 은어, 농어, 잉어, 미역, 소금	호피(虎皮), 웅피(熊皮), 돈피(獬皮), 황모(黃毛), 장피(獐皮), 단피(獬皮) 해달(海獺) 등

두 장의 독립선언서가 일으킨 양양만세운동

삼일만세운동에서 유림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양양만세운동은 유림이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이석범은 대한제국 중추원 의관(議官)을 지내다 일제강점 후 낙향한 유림으로 1919년 고종의 장례에 참여하기 위해 상경한다. 성별 신분에 관계없이 전 시민이 만세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며 고향에 가서 만세 부를 결심을 하고 독립선언서 한 장을 구해 돌아온다. 전에 그는 동학군을 진압할 정도로 왕권중심 신분제를 고수하던 수구성향의 인물이었으나 만세운동의 동지로 민중들을 규합한다.

다른 한 장은 유학을 떠났던 여학생 조화벽이 전한다. 조화벽은 양양감리교회의 전도인이었던 조영순의 무남독녀로 16세에 원산을 거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로 옮겨 공부한다. 개성만세운동 시 호수돈여고 비밀결사요원으로 활약하는데 휴교령이 내리자 버선목에 독립선언서를 감추고 원산으로 가 배를 타고 대포항을 통해 고향으로 온다. 이 독립선언서가 양양감리교회 김영학 목사에게 전해지고 조화벽 부녀와 청년부가 중심이 되어 거사를 준비한다.

■ 만세운동으로 하나가 된 양양사람들

귀향한 이석범은 일제침략 후 거세지는 개화바람에 맞서 유교사상과 문화를 계승하고자 쌍천서숙을 세워 후학을 가르쳤는데 이곳 출신들이 만세운동에 참여한다. 그들은 마을 구장 등 리더십이 있는 자에게 만세운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포섭하여 하부조직을 구축한다.

당시 양양에는 양양감리교회 이외에도 물치교회와 상광정교회가 있었는데 김영학 목사는 이들 교회를 순회하며 목회하였고 예배때마다 민족주의적 애국사상을 설교하여 신교육을 받은 젊은 신도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 양양면사무소 급사였던 교인 김필선을 주축으로 양양보통학교 졸업생들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만들고 젊은이들을 모은다.

유림세력과 신문화세력은 각자 운동을 준비하다가 양양보통학교 제1회 졸업생 최인식을 매개로 힘

을 합치게 된다. 동학운동의 후예와 동학을 탄압했던 이들이 하나가 되고 유림과 신문화 세력이 융화되며 유교와 기독교가 하나의 용광로에서 끓게 된다.

■ 일본경찰을 궁지에 몰았던 양양인의 기개

4월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준비하던 중 거사 하루 전에 발각되어 이석범 등 주모자들이 잡혀가지만 탄탄한 조직 덕에 착오 없이 진행된다.

양양장날인 4월 4일, 만세꾼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싸전으로 향했다. 오일장이 폐쇄된 줄 모르고 장에 온 사람들도 시위에 합세한 가운데 김영학 목사는 강점의 부당함과 독립의 정당성을 연설한다.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로 달려가 잡아간 이석범 등을 석방하라고 요구한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함홍기와 권병연 등이 거칠게 항의하다가 왜경의 칼에 베여 죽임을 당한다.



함홍기·권병연 열사 옛 추모비

잡혀간 이석범의 동생 이국범과 아들 이재훈은 4월 5일 물치장날 주민들을 인솔하여 대포리 경찰주재소로 몰려갔는데 시위대의 기세에 눌린 경찰은 무대책이었고 일본 민간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도망가기에 이른다.

4월 6일, 김학구의 장례행렬이 서면사무소를 습격하는 등 시위가 확대되자 왜경서장은 “물러갈 테니 조용히 만세만 부르고 해산하라”고 애걸한다.

하지만 6일간이나 지속되었던 양양만세운동도 증강된 일제의 총칼 앞에 막을 내리고 만다. 연인원 15,000여명이 참여하고 12명이 순국하고 73명이 투옥되었으며 78명이 중상을 입었고 1,230명이 태형을 당했다.

■ 유관순의 올케, 조화벽 지사를 아시나요

운동 후 조화벽은 체포망을 피해 객지를 떠돌다 개성으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공주에서 교편을 잡는다. 이때 아우내만세운동에서 부모를 잃은 유관순의 두 남동생을 보살피고 오빠 유우석의 옥바라지도 하였는데 네 살 아래인 항일반공주의자이자 아나키스트 유우석의 청혼에 응하게 된다.

결혼 후 개성과 원산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기독교청년회 등 사회활동을 하다가 남편이 해외로 망명하자 양양으로 돌아와 정명학원을 운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배움을 기회를 준다.

해방 후 양양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남편을 따라 서울로 이주하는데 이때부터 조화벽은 서서히 양

양에서 잇힌다. 남편과 세 아들을 잃고 살던 그녀는 1975년 서거하였는데 1990년 큰며느리 김정애의 노력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조화벽의 애국애향활동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그녀 곁으로 조금 다가갔다. 유관순만큼 조화벽을 추모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큐알코드 : 한상호 시인의 시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동영상)



조화벽 지사 가족 (출처:국립여성사전시관)
(뒤) 왼쪽부터 류제충, 조카 제한, 김정애
(앞) 왼쪽부터 손자 덕상, 조화벽 지사



(큐알코드 : 한상호 시인의 시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동영상)

조선의 노비들,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그 자체로 고유한 의미와 고귀한 존재가치를 지닌다. 이름에는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거나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삶의 목적을 드러낸다. 그러나 주인과 사회의 경멸적인 시선, 시대의 아픔,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름도 있다. 조선 시대 노비들의 이름이다. 계급 사회였던 조선의 신분 제도에서 최하층인 노비의 이름만 보더라도 노비의 주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노비의 이름은 노비주인이나 부모가 지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처음에는 한글 이름으로 쉽게 부르다가 분재기(分財記: 재산의 주인이 가족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분배하여 준 문서), 매매 문기(文記)나 호적 자료 등에 등재되면서 한자를 차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양양의 낙산사에 성종이 1470년에 내린 2건의 교지가 있다. 4월의 교지는 잡요(雜徭)와 염분(鹽盆: 소금을 만드는 솥)의 세(稅)를 면제한다는 내용이고 6월의 교지는 낙산사에 노비 20명을 하사한 사패(賜牌: 국왕이 노비나 토전을 하사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성종이 선왕 예종의 원찰(願刹: 왕, 왕후와 같은 왕족의 위패를 모셔놓고 그들의 안녕을 비는 사찰)인 낙산사를 보호하고 예종의 명복을 빌 목적으로 발급한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1470년 6월에 내린 성종의 교지에 기록된 노비들의 이름을 통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470년 6월 성종임금이 낙산사에 내린 교지.

教旨(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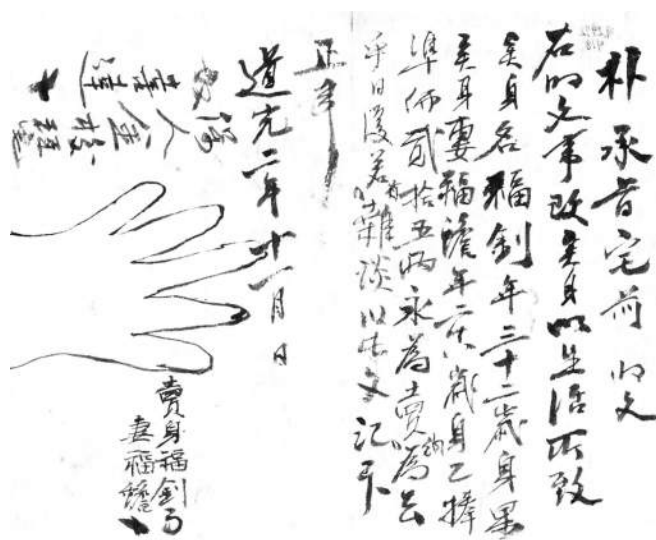
江原道襄陽接司瞻寺婢訥斤矣三 所生奴性仇之年三十九 同寺婢四夫矣三 所生婢於乙吾里 年三十二 同寺婢四季矣五 所生奴亡乃 年二十七 同寺婢四夫矣五 所生奴海青 年二十四 同寺婢都里加伊矣三 所生奴亡吾赤 年二十八 同寺婢都里加伊矣四 所生婢苐叱夫 年十七 軍器寺婢毛老非矣三 所生奴原山 年二十四 同寺婢德加矣四 所生奴寶中 年三十 同寺婢銀花矣二 所生婢玉伊 年二十二, 同寺婢銀花矣三 所生奴玉孫 年十七, 同寺婢德加矣八 所生婢卜加 年十六 同寺婢孝道矣○ 所生奴安金 年二十, 同寺婢羌昆矣三 所生婢內隱伊 年二十四 司宰監婢卜德矣二 所生奴林大 年三十, 同監婢卜德矣四 所生婢小非 年二十五, 江陵司宰監奴多情矣一 所生奴金孫 年二十七 同監奴多老矣一 所生婢田非 年二十三, 濟用監婢其邑加矣一 所生婢芟非 年十五, 同監奴毛知金 年三十九, 同監婢卜今矣二 所生婢者斤年 年三十九, 等乙 洛山寺亦中賜給 俾供香火之需爲臥乎 可傳永世者

成化六年六月初二日敬奉 教旨

右副承旨通政大夫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臣李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지의 원문에 노비의 이름은 붉은색으로 처리함.

노비의 이름은 양반이나 양인의 이름에는 쓰지 않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노비의 이름에는 목적의식이 없었다. 낙산사에 하사된 노비의 이름 또한 亡(망하다), 老(늙다), 石(돌), 叱(꾸짖다), 訥(어눌하다), 仇(원수) 등의 나쁜 뜻을 담고 있는 글자를 사용함으로써 지배층의 우월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정(多情), 은화(銀花) 등의 이름은 계집종에게 붙여진 비교적 좋은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작은년(者斤年), 찔덕(卜德), 찔가(卜加), 찔금(卜今), 늙은이(訥斤) 등의 외모나 서열에 따라 붙인 이름도 있지만 돌비(芟非), 얼러리(於乙吾里) 같은 더럽



순조 22년(1822)에 작성된 박승지택 노비문서. (출처:국립중앙박물관)

거나 놀림을 나타내는 이름도 있다. 이 교지에 나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노비에게 불려진 이름으로 강아지(姜阿只), 도야지(都也之), 두꺼비(斗去非, 蟾伊), 솔개(召叱介), 쪼간이(足間伊), 꺾쇠(𠵼金), 돌쇠(𠵼金), 쇠돌무치(金𠵼無治), 마당쇠(麻堂金), 망나니(亡難, 莫亂), 모지리(毛之里), 개똥(介同, 犬屎), 분녀(糞女), 방귀(方貴), 똥산(屎山), 말똥(馬叱同) 심지어 악독한 귀신이라는 뜻의 야차(夜叉), 싹을년(石乙年), 말종(謫宗), 시체(尸體) 등 듣기에도 민망한 이름도 있다.

노비는 남성인 노(奴)와 여성인 비(婢)의 합성어인데 종이라고도 불렀다. 개인의 중요한 재산으로 간주 되어 상속, 매매, 증여의 대상이 되었고 성은 없고 이름만 있었다. 교지 본문의 “洛山寺亦申賜給(낙산사에 알맞게 공급하니)”은 노비 20명이 사람이 아닌 재산 또는 물자로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노비가격은 대개 말 1필의 가격에 해당한다. 조선 시대 노비의 수에 대해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인구대비 최소 30% 최대 60%까지로 추산되고 있어 15세기 후반의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은 노비’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를 사는 대부분의 우리는 본인의 가문이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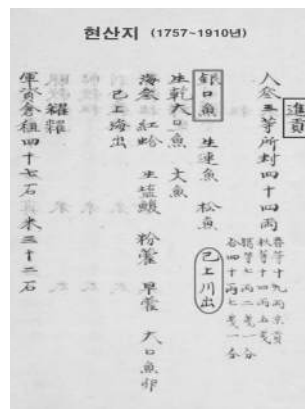
조선 시대의 노비처럼 원치 않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현재는 없을까? 불려지는 이름으로 인해 아파하고 가슴을 부여잡는 사람은 없을까?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난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은구어(銀口魚)를 아시나요?

매년 4월 복숭아꽃이 수줍은 미소를 머금을 때면 남대천 여울에서는 날렵한 속도로 반짝이는 작은 물고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은구어(銀口魚)로 불렸던 바다빙어과 어류인 은어(銀魚)이다.

조선 시대에는 6월 중묘 의례인 천신제(薦新祭)를 지낼 때 올리던 제물의 하나로 맛이 좋아 회나 구이로 이용하였다.

은구어는 양양부(襄陽府)의 주요 특산물로 『대동지지(大東地志)』, 『관동읍지(關東邑志)』, 『현산지(峴山志)』 등의 토산조(土産條)와 진공조(進貢條)에도 전한다.



현산지 진공조

■ 은어의 다른 이름

양양에서는 은어의 별칭은 없으나 다른 지역의 방언으로는 언어, 처리, 열광어, 은광어(銀光魚), 은구어라 부른다. 은어는 오이나 수박 향이 나고 맛이 좋아 향어(香魚)라고도 하는데 특히, 양양 남대천 은어는 수박향이 짙어 최상품이라고 한다. 수명이 대개 1년이므로 연어(年魚)라고도 한다.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중 제7지(七志)인 『전어지(佃漁志)』에는 턱뼈가 은빛과 같아서 은구어라 부른다고 하였다.

■ 도루묵이 은어가 된 사연

임진왜란 당시 선조가 피난처에서 은빛 나는 물고기 맛있게 먹고는 “이렇게 맛있는데 묵어(墨魚)라니, 앞으로 은어(銀魚)라고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궁으로 돌아와 다시 먹어보니 그 맛에 실망해서

“도루묵(黹)이라고 부르라”고 하였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은어는 민물고기이며 도루묵은 바닷물고기인데 간혹 은구어(銀口魚)를 도루묵으로 잘못 번역한 책자도 있다.

■ 은어의 서식지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모든 하천과 연안에 서식하며, 일본·중국·대만 등지에도 분포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소속 49개 군현의 토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가 포함되면서 109개 군현의 토산으로 확대 기록되어 있다.

■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로 본 은구어(銀口魚)

『조선왕조실록』 세종 21년 윤2월 5일자를 보면 진상용이 아니면 고을 수령이라도 사람을 시켜 은구어를 잡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문종 즉위년 10월 10일에는 독약을 써서 잡는 것을 금하였다. 성종 14년 9월 20일자를 보면 생은어와 말린 은어, 은구어젓(銀口魚鮓) 등 다양한 형태로 진상되었다. 성종 23년 7월 19일자에 따르면 진상하는 마른 은구어는 날짜가 오래되어 맛이 변해 왕의 반찬에 적합하지 않아서 사옹원(司饗院)에서는 은구어를 어살(漁箭)로 잡은 것 중에서 싱싱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얼음에 담거나 소금을 약간 뿌려 진상(進上)할 것을 청하였다.

『승정원일기』 숙종 33년 7월 6일 강원감사 서목에는 양양부사 정필동을 “유월 은구어(銀口魚)를 신께 바치라는 천신령(薦新令)을 받고도 살피지 않은 죄로 파면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정필동 양양부사 선정비

江原監司書目。襄陽府使鄭必東，以六月令薦新銀口魚，該封官不謹之罪，理難獨免，罷黜事。

/ 강원감사서목. 양양부사정필동, 이육월영천신은구어, 해봉관불근지죄, 이난독면, 파출사.

■ 회유성(回遊性) 은어와 육봉형(陸封型) 은어

은어는 비록 민물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 자라지만, 산란기 이전에 일찍 다시 강으로 올라와 6개월 정도 살다가 알을 낳는 양측회유성(兩側回遊性) 어류이다.

그런데 강 중간에 댐이나 보(洑)가 생겼다가 하는 이유로, 강 상류에서 부화하여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평생 민물에서 살게 된 은어를 육봉형(陸封型) 은어라 한다. 정상적으로 바다로 내려갔다가 올라온 은어(체장 30cm)에 비해 몸집은 조금 작아서 체장이 20cm 정도이다.

■ 은어 낚시법

은어 포획을 위하여 6월부터 낚시꾼들이 몰려오는데 낚시 방법은 다양한 편이다.

‘놀림낚시’는 일본어로 ‘도모쓰리’라 하는데 하천으로 올라온 은어가 ‘자기 영역권을 지키려는 텃세 행동’을 이용한 방법으로, 씨은어 한 마리를 미리 낚시에 꿰어서 다른 은어의 세력권에 넣으면 텃세를 하는 은어가 공격적인 행동을 하다가 낚이는 방법이다.

또 다른 낚시 방법은 생미끼나 가짜미끼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개 어린 은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미끼로는 크릴(작은 새우), 구더기 등이 쓰이고 가짜미끼로는 ‘파리낚시’ 일명 ‘개바리 낚시’가 주로 사용된다.

이 외에도 ‘홀치기낚시’가 있으나 주로 전문 은어 낚시꾼이 많이 쓰는 방법이다.

■ 포획 및 낚시 금지 기간

은어가 회유하면서 치어로 생존하는 기간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란 기간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포획 금지 기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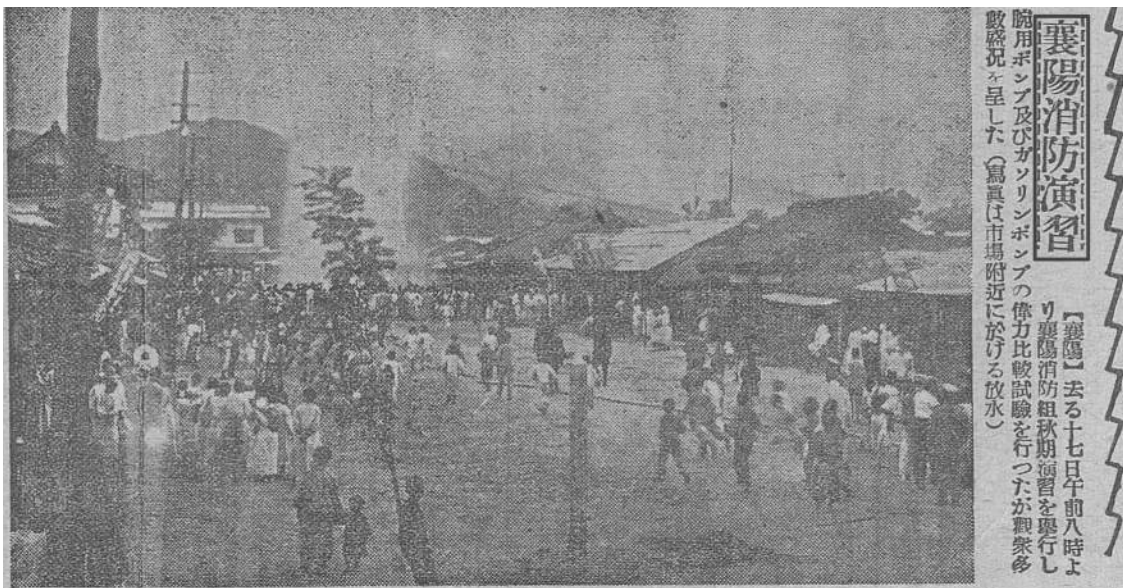
깨끗한 수질 환경과 어족 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버려진 낚시바늘과 폐어구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 오랫동안 강태공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남대천이 될 수 있도록 보존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양양의용소방대 역사적 변천

양양의용소방대가 금년으로 설립 71주년을 맞는다. 양양의용소방대는 한국전쟁 중에 창설되어 상당기간 민간주도로 지역의 소방방재 임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다.

오늘날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의 효시(嚆矢)는 세종19년(1437)에 세워진 ‘지방의용금화조직(地方義勇禁火組織)’이다. 충청·경상감사의 주청으로 각 고을의 도적 방지와 화재 예방 등 마을의 방재(防災)를 위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던 조직인데 무기 소지와 사용이 허락되었다 한다.

일제강점기인 1915년 8월 조선총독부는 도지사가 소방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조(消防組)를 구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일제가 1937년 「방공법조선시행령」을 제정하고 1939년 「경방단규칙」을 공포하면서 소방조를 해체하여 경방단(警防團)으로 통합하였다가 일제가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자



완용펌프 위력시험 (양양시장부근. 1935,9,16일 조선신문기사)

경방단이 자동으로 해체되었다.

양양소방조가 1928년 1월 15일 50여명으로 출초식(出初式)을 가진데 이어 리희조의 4명의 조원에 게 공로표창을 수여했다는 부산일보 기사로 미루어 보아 양양군의 소방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소방대는 소방업무와 전후 복구사업 등 정부 시책에 협조하였으나, 1953년 민병대(民兵隊)를 조직하게 됨으로써 해산되어 일시적으로 민간 자체 소방조직이 없어졌다.

6·25 이후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의용소방대의 필요성이 재인식되어 1954년 1월 전국적으로 의용소방대를 재조직하기에 이르렀으며, 1958년 소방법 제정 시 의용소방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군은 수복지역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타 지역에 앞서 1952년 1월 30일 의용소방대를 결성하고 제1대 박태송 대장을 위시한 50여명의 대원으로 창설하여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 시 화재진압과 구조, 구급, 화재예방 홍보활동을 실행하였다.

양양군의용소방대연합회 여대(女隊)는 1989년 5월 11일 발족하여 34년 간 화재진압은 물론 구조와 구급, 식량과 급수 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양양은 소방관서가 없었기에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였는



양양시장 화재감시탑 (의용소방대 첫 번째 청사, 현 남문 5길-15, 제일육교점)



한해(旱害)에 동원된 학생들이 완용펌프 사용을 체험하며 눈에 물을 대고 있다.

데 산불 등 재난현장에는 언제나 이들이 제일 먼저 출동하였다. 1980년 5월 9일 설악산 관모봉 일대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10여 일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2일간 밤샘근무를 하였다. 2005년 4월 4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천년고찰인 낙산사에 위기가 닥칠 때에도 이들이 사투를 벌인 바 있다.

1994년 5월 10일 속초소방서 양양소방과출소가 신설된 바 있고 2016년 5월 10일 양양소방서가 생기면서 우리의 소방조직은 더욱 완벽한 민관지휘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현 양양의용소방대 대원은 2022년 기준 6개 지대에 379명(남 239, 여 140)이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소방업무는 물론 각종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양양의용소방대 2번째 청사 (현 남문6길-5 / 100-10번지)



양양의용소방대 3번째 청사 (구 등기소 옆 주차장 현 성내리 7-4번지)

바꾸미들이 넘던 길 단목령

설악산과 오대산 사이 백두대간(白頭大幹)에는 양양에서 영서지방으로 가는 총 여섯 개의 영이 있다. 오색령(五色嶺), 필여령(彌如嶺), 단목령(檀木嶺), 북암령(北巖嶺), 조침령(阻枕嶺), 구룡령(九龍嶺)이 그것이다.

단목령은 양양군 서면과 인제군 기린면을 잇는 길로 원래는 박달재로 불리던 곳이다. 박달나무가 많아 그렇게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창지개명(創地改名)을 하면서 지도에 박달령(朴達嶺)을 단목령(檀木嶺)으로 표기한 이래 현재까지 그렇게 부른다.

단목령 정상에서 인제 진동리 설피밭까지는 1.4km, 양양 오색2리 오색분교까지는 2.9km로 양양과 인제를 잇는 지름길인데 해발 855m로 높이 또한 여섯 영(嶺) 중에서 가장 낮다.

이 길을 통해 두 지역간에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양양에서는 소금과 말린 생선 등이 넘어가고 인제에서는 씨감자, 콩, 면화, 마른고추 따위가 넘어왔다. 이렇게 물건을 맞바꾸어 지고이고 나르는 것을 ‘바꾸미’라고 부른다.

씨감자를 정부에서 보급하기 전, 양양 농부들은 영서지방의 고냉지 감자를 구하여 종자로 썼다. 바꾸미 김완달·추중삼 어르신에 의하면 소금, 명태, 고등어자반, 마른미역을 한 짐 지고 단목령



박달령이 표기된 고지도와 최근지도

을 넘어 진동리 설피밭으로 가면 그곳에서 5포대의 씨감자와 교환할 수 있었다 한다. 씨감자의 양이 많고 무거운데다 비탈길이 가팔라서 짐을 한 번에 나를 수 없어 씨감자를 작게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다시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오색분교 근처까지 힘겹게 전 췌집 1)으로 옮겨와 질메 2)또는 경운기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바꾸미들의 물물교환을 위한 왕래(往來)는 1970년대 초반까지 행하여졌다고 한다.



단목령 정상 표지판과 장승 (사진 강원도민일보)

어 한 쾌를 이고 지고 단목령을 넘어가 언니가 구해준 메주 세 덩이, 메주콩 두 말, 고춧가루, 건나물, 건버섯 종자 등과 맞바꾼다. 당시 길이 험하다고 짐을 지고 영을 넘어 오색까지 내려다주고 돌아갔던 형부를 김충현 어른신은 아직도 잊지 못해하신다.

도로가 발달한 요즘엔 양양에서 인제 진동리로 가려면 터널 하나만 지나면 된다. 차량으로 양양 군 서면 서림리에서 조침령터널을 지나면 바로 진동리가 나온다. 단목령을 넘어 다닐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설악산에는 한반도 자생종 식물의 20%에 해당하는 854종이 자라고 있고, 그중 보호대상 희귀식물도 50여 종이나 되어 유네스코는 1982년 이곳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특히 단목령 일대는 박달나무를 비롯하여 신갈나무, 자작나무, 사시나무, 단풍나무 및 피나무 등이 자라고 지표에는 각종 산나물, 약초, 야생화 등 입산자원이 풍부한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생태적가치가 높아 천연림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1987년부터 입산통제를 하고 있다. 바꾸미들이 생계를 위해 넘나들던 박달재 산길이 원시자연으로 복귀하는 중이다.

바꾸미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일화도 있다. 한국전쟁으로 남편은 인민군에 끌려가 생사를 모르고 전쟁 중에 집을 불타버리자 양양 수복 후 김충현(여, 현재 95세) 어른신은 장이라도 담 구어 가족들을 연명시키려고 붓 짐을 만들어 인제 진동리 설피밭 언니네 집으로 간다. 태어난 지 두 돌도 안 된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와 같이 소금 열 뒷박, 아지(전갱이) 자반 한 두름, 북

1) 전췌집 : 큰 짐을 소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일정한 장소까지 나르고 그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를 반복하여 최종목적지까지 옮기는 방식을 일컫는 말.

2) 질 메 :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소의 등에 얹는 기구.

단목령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야생화의 천국이자 옛사람들이 등짐을 지고 험한 고개를 넘어 삶을 이어갔던 애환이 남아 있는 곳이다. 곰배령이 위치한 인제 산골을 지나 단목령을 넘어 명승지인 오색 주전골을 둘러보고 해오름에 고장 양양 해변을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잠재적인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단목령의 자연이 충분히 안정되면 예약제 탐방 등 제한적 개방도 고려해 볼 일이다.



단목령 입구(사진 강원도민일보)

양양남대천의 입, 한개목을 아시나요?



남대천 전경

양양10경 중 제1경인 양양남대천(이하 남대천이라 부름)은 본천(本川)과 후천(後川)의 두 줄기로 이루어졌다. 본천은 오대산 두로봉(해발 1,422미터)에서 발원하여 강릉 부연동과 양양 범수치리와 어성전리를 지나면서 면옥치천 및 어성전천을 품는다. 후천은 구룡령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점봉산과

오색령에서 시작된 오색천과 합쳐져 내려오다가 장승천과 거마천을 만난다. 본천과 후천은 율리와 북평리 일대에서 합수하여 양양 읍내를 관통, 동해에 닿는다. 남대천은 본천(54Km)과 후천(34.2Km) 그리고 지류하천들을 합칠경우 물길의 길이가 140킬로미터에 달하는데 가뭄이 심할 때에도 양양의 젖줄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오고 있다.

남대천은 우리나라에서 동해로 흐르는 하천 중에 가장 길다. 그래서인지 고문서에 남대천의 별칭으로 한천(漢川)이 보인다.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남대천은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소동라령(현 북암령)의 물과 합쳐져 바다로 들어가는데 속칭 한천이라 한다’고 적혀 있다. ‘크다’는 의미의 옛 우리말인 ‘흐’이 한자표기 한(漢)으로 바뀌어 강 이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서해로 흘러드는 큰 강을 한강이라고 부르듯 동해로 흐르는 큰 내를 한천이라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어찌 되었든, 남대천은

조선시대 양양부(襄陽府)가 있던 곳 남쪽에 자리 잡아 흐르는 커다란 강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설악산~오대산 구간의 백두대간이 남대천의 발원지라면 남대천이 동해와 접하는 조산리~가평리 일대가 남대천 하구이다. 하구는 강의 입인데 강물과 바닷물이 들고난다. 남대천하구에는 모래톱이 있는데 밀물이 높이 들어오거나 동풍으로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하구의 물흐름이 점점 느려져 모래가 쌓여 막히고, 강물이 불어나고 조수(潮水)가 낮아지면 막혔던 모래톱이 열린다.

남대천하구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 한계목, 항계목, 한개목 혹은 항개목이라고도 하는데 근거 있는 이름을 밝혀 사용하는 게 좋겠다.



여지도서에 표기된 한천



한개목 전경

조선시대 1490년~1605년 사이에는 조산리에서 기정리 동쪽에 이르는 사천리 인근에 해군항만이 있었다. 성종 때 동해안 방어를 위해 수군만호영(水軍萬戶營)을 양양부 조산리에 설치하고 대포영(大浦營)이라 불렀는데 영의 위치는 동명서원 부근이다. 남대천과 인접한 이 일대에 배가 드나들었음은 배둔지[船屯池]라는 지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배둔지는 지금은 논이지만 당시에는 대포영의 병

선(兵船)을 매던 곳으로 도평(島坪) 가운데인 포월천 근처이다. 대포영은 1605년 을사포락 이후 점차 매몰되어 사라졌다.

남대천하구는 대포영의 길목이었을 터이니 하구의 이름을 대포(大浦)와 연관 지어 유추해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옛 우리말 ‘훈’에 해당하는 것이 대(大)이고, ‘개’란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 즉, 포(浦)나 석호(瀉湖)를 일컫는 말이니 ‘대포’가 곧 ‘한개’인 것이다. 두 물체 사이를 잇는 잘록한 부분을 ‘목’이라 하는데 하구가 바로 ‘목’이다. 이렇게 보면 남대천하구의 올바른 지명은 ‘한개목’이다. 자음접변 현상으로 한개목은 항개목으로 소리가 나는데 그대로 적은 것이 ‘항개목’이다. 한계목은 한계령을 옆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남대천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찾기 어렵다.



대포영과 한개목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떠나는 새끼들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아 주는 곳이자 고향을 찾아오는 다 큰 자식들이 자기를 잉태했던 모천에 적응하는 곳, 한개목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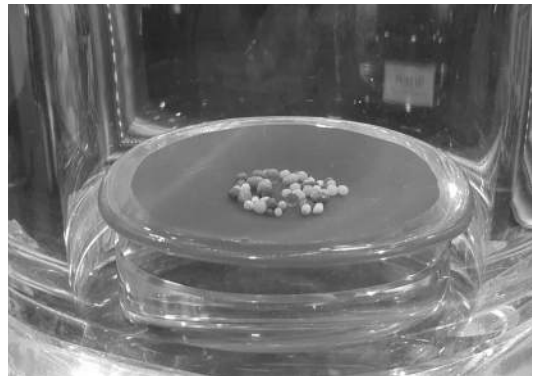
한개목의 개 막힘 현상은 1년에 3~5회 정도 발생하는데 역류한 바닷물로 남대천하구는 바닷물과 민물의 중간쯤 되는 염분농도를 지닌다. ‘강’ 이라고 하면 흘러가버린다는 소실적(消失的) 이미지가 강하지만 황어 은어 연어와 같은 회귀어종이 돌아오는 남대천은 좀 다르다.

사리란 무엇입니까?

사리(舍利)는 무엇일까? 사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사리라(sarira)를 음역한 것인데 ‘사리라(舍利羅)’로 표현하다가 줄여서 ‘사리’가 되었다.

사리는 ‘몸’을 의미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화장(火葬)하고 난 뒤에 남겨진 뼈와 재(灰)까지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를 전신사리(全身舍利)라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오랜 수행을 한 스님에게서 화장한 결과 나오는 구슬인 쇠신사리(碎身舍利)를 이른다.

사리는 다시 진신사리(眞身舍利)와 법신사리(法身舍利), 승사리(僧舍利)로 나누는데 진신사리는 석가의 몸을 화장한 유해이며, 법신사리는 석가모니가 가르치신 불법(佛法)이 부처의 또 다른 몸이라 하여 불경(佛經)을 말한다. 승사리는 고승의 시신, 또는 그들을 화장하면 나오는 구슬 등을 가리킨다.



휴휴암 굴법당 진신사리

사리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한 사례가 있었다. 1993년 말 인하대 임형빈 박사가 사리 1과(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한 것이 KISTI의 『과학향기』에 실린 것이다.

경기도 평택 모 사찰의 한 고승이 사후 사리가 나오면 이를 유용한 일에 써달라는 유언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기증받은 사리 2과 중 1과를 분석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지름 0.5cm 정도의 팔알 크기 사리에서 12종의 원소가 검출됐으며 사리의 경도(硬度)는 1만 5,000파운드(6,804kg)의 압력에서 부서져 강철보다도 단단했다고 한다. (강철은 1만 2,000파운드에서 파괴)

두 번째는 대부분 원소는 뼈와 같았으나 놀랍게도 뼈에서 발견되지 않는 프로그타늄, 리튬, 티타늄 등이 발견되었다. 특히 프로그타늄(Pa)은 방사성원소로 상온에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

려져 있다.

세 번째는 프로트락티늄과 티타늄은 1,6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녹는 물질이라 화장 후에도 발견될 수 있지만 186도에서 녹는 리튬은 발견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학적 접근이 신비감만 키웠다고 한다.



진전사지 도의선사부도탑

2023년 5월 31일 낙산사 해수관음상 옆에서는 「설악당 무산대종사」의 열반(涅槃) 5주기를 맞아 사리탑 제막식이 있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통적인 승탑이 아닌 생전의 모습을 한국불교 최초로 탑으로 조성하였다. 사리는 가운데 사각의 밋밋한 돌 속에 안치하였으며 표면에는 스님의 시와 그림을 음각하였다. 그 옆에는 누구든 쉬어갈 수 있게 빈자리를 마련하였다. 바다를 등지고 앉아 대청봉의 낙조를 바라보는 스님께서 ‘사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내려놓고 차나 한잔하고 가시게나!’ 라며 나그네를 위로한다.



낙산사 무산대종사 부도탑

아마도 사리는 탑의 주인공이 지극한 수행을 통해 깨달았던 마음을 대중에게 전하는 ‘수행의 결정체’였을 것이다.

불가(佛家)에서 사리를 이야기하자면 반드시 탑(塔)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무덤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승탑(僧塔)도 부도(浮屠) 또는 사리탑(舍利塔)이라 하는데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모신 묘탑(墓塔)이다. 다만 탑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 대신 불경(佛經)을 법신사리(法身舍利)라 하여 탑 속에 봉안하였다.

우리군에도 법신사리를 모신 불탑(佛塔)과 승사리를 모신 불탑이 전해온다. 특히, 진전사 승탑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도로 9세기 중반 도의선사(道義禪師)의 것으로 추정된다. 진전사가 한국 선(禪) 불교의 종찰로 참선(參禪)을 통해서 득도(得道)한 최초의 스님이 도의이기 때문이다.

이런 신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으로 다가와 친근한 메시지를 던진 사리탑이 있어 소개해 보겠다.

양양의 자랑 황금송이

가을도 깊어 겨울 문턱이다.

가을이면 늘 기다려지는 송이축제, 연어축제가 올해는 송이연어축제로 함께 열려 양양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가을에 들어서면 양양군민들은 송이가 얼마나 나올까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촉을 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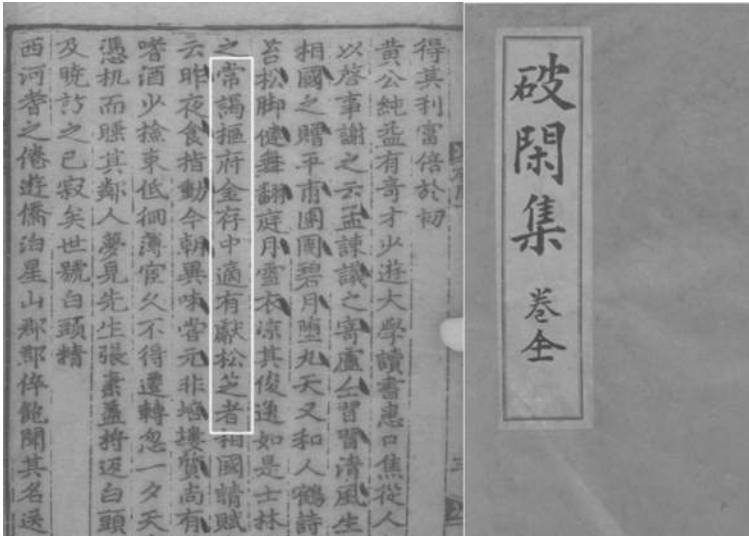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해마다 가격이 높아진다. 원일전리 박상우 어르신 증언에 의하면 매일 경운기로 한가득 채취하였었다는데 요즈음의 생산량은 안타깝기까지하다. 매년 생산 절정기를 맞는 9월 말쯤이면 일평균 300~400kg 이상 많게는 1t이상 수매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100kg 안팎 수준을 맴돌고 있다. 1등급 공매가격도 1kg당 최고가가 2020년 641,600원, 2021년 1,100,000원, 22년 1,333,800원이었으나 올해는 1,562,000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백두대간 수십년된 소나무(적송) 아래에서만 자라는 양양황금송이는 타지역 송이에 비해 육질이 두텁고 수분함량이 낮아 단단하다. 고유 향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고, 일본에서 세계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양양송이 공판가는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타지역의 송이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문헌자료에 따르면 송이는 백로(白露:9월8일경)를 기준으로 10월 하순까지 발생하며 땅 속 온도가 19도 이하, 토양습도 20% 내외에서 2~3일간 유지되면 약 보름 뒤에 지표면으로 올라오며 4~5일 후부터는 갓이 벌어진다고 한다.



양양 황금송이



파한집 ~ 常謁樞府金存中 適有獻松芝者~/ 한번은 추밀원의 김존중을 뵈러가니 마침 송이를 바친 사람이 있어

송이는 인공재배가 불가능하므로 전부 자연송이다.

송이버섯은 숲의 특정한 나무(소나무)와 어울려 지내는 땅속 곰팡이의 자실체로, 이 곰팡이는 나무에게 양분을 찾아주는 대신 나무로부터 탄수화물을 얻는다. 이러한 상리공생(相利共生) 때문에 인위적인 송이 재배는 아직까지 불가능하다. 그런데 송이의 생태는 자연환경의 변화뿐 아니라 인간에 의한 ‘교란’도 큰 몫을 한다.

송이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시대 이인로의 『파한집』으로,

‘~한번은 추부(樞府)의 김존중을 뵈러가니, 마침 송지(松芝)를 바친 사람이 있어,~’(常謁樞府金存中, 適有獻松芝者~)라고 송이(松耳)를 송지(松芝)로 기록하고 있다.

고려의 문인 이규보(李奎報)는 송이를 신선의 음식으로 비유하며 송균(松菌)으로 적어 예찬하고 있다. 목은 이색은 자신의 시문집에서 ‘선녀의 하얀 속살’로 비유하며 송이를 노래했다.

『동의보감』(1613년)에는 송이(松耳)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질이 평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 맛이 향기롭고 좋으며 솔 냄새가 난다. 이것은 산에 있는 고송 밑에서 솔기운을 받아 돋은 것인데 나무에 나는 버섯(木耳)중 제일이다. 『속방』’

송이에 대한 최초의 한글 기록은 한글 요리서인 『음식디미방』(17세기중엽)에 기록되어 있는 ‘송이’이다. 1809년 빙허각 이씨가 가정 살림에 관해 저술한 조리서인 『규합총서』에도 ‘송이’라고 적고 있다.

예로부터 산속의 진미, 귀족 버섯으로 알려진 송이는 그윽한 솔향기와 달짝지근한 맛,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의 세가지 아름다움을 갖춘 하늘이 보내준 성찬임에 틀림없다. 문인 이규보가 『동국이상국집』에서 솔바람과 찬이슬만 먹고 자라는 고고한 자태의 송이를 먹으면 마음까지 평온해진다고 식송균(食松菌; 송이를 먹다)이라는 시를 읊었을 정도이다. 이 시를 함께 읽으며 선조들의 송이 사랑을 느껴보자. 양양군민들의 송이 사랑도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食松菌 송이를 먹다

이규보

菌必生糞土
不爾寄於木
朽腐所蒸出
往往多中毒
此獨產松下
常爲松葉覆
爲有松氣熏
清香何馥馥
尋香始可得
數箇卽盈掬
吾聞啖松腴
得仙必神速
此亦松之餘
焉知非藥屬

버섯은 썩은 땅에서 나거나
아니면 나무에서 나기도 한다.
모두가 썩은데서 나기에
흔히들 중독이 많았다 하네
이 버섯만은 소나무에서 나
항상 솔잎에 덮였었다네
소나무 훈기에서 나왔기에
맑은 향기 어찌 그리도 많은지
향기따라 처음 얻으니
두어 개만 해도 한 움큼일세
내 듣거니 솔기름 먹은 사람
신선 길 가장 빠르단다
이것도 솔 기운이라
어찌 약 종류가 아니랴

(동국이상국집 제14권)

어성전리 명주사 동종의 내력

어성전리는 주변의 산들이 성곽을 이룬 듯하고 기름진 전답이 수만 평에 이르며 크고 작은 계곡물들이 흘러들어 물고기가 풍부하여 예부터 사람 살기 좋은 이상향으로 불리는 곳이다, 이런 마을에 어찌 문학과 풍류가 없겠는가.

1920년 『어성십경창화시(漁城十景唱和詩)』라는 시화집이 간행되었는데 “흰 구름 종소리 저녁 산으로 지는데 (백운종낙석양산/白雲鍾落夕陽山), 고요함 속에서 여음을 듣노라니 작은 욕심마저 사라지네 (정청여음세욕잔/靜聽餘音細欲殘)”라는 한시가 실려 있다. ‘산 암자의 저녁 종소리 (산암모종/山庵暮鍾)’라는 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암자와 종소리가 어성전리에 위치한 명주사와 관련이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 명주사 동종(銅鐘)의 내력

학계에서는 현재 명주사가 소장한 종을 ‘대흥사명(大興寺銘) 범종’이라고 부른다. 이 동종의 원래 봉안처가 태백산에 소재했던 대흥사(大興寺)였기 때문이다. 대흥사는 현재 불영사(佛影寺)와 함께 울진을 대표하는 사찰이었으나 1674년 화재로 소실된 정림사를 대신해 창건되었는데 1872년 이후에 폐사되었다. 이 동종은 숙종 30년(1704)에 주조되어 당시 강원도 울진현(蔚珍縣) 대흥사에 봉안되었다가 폐사 후 고종 16년(1879)에 양양 명주사로 옮겨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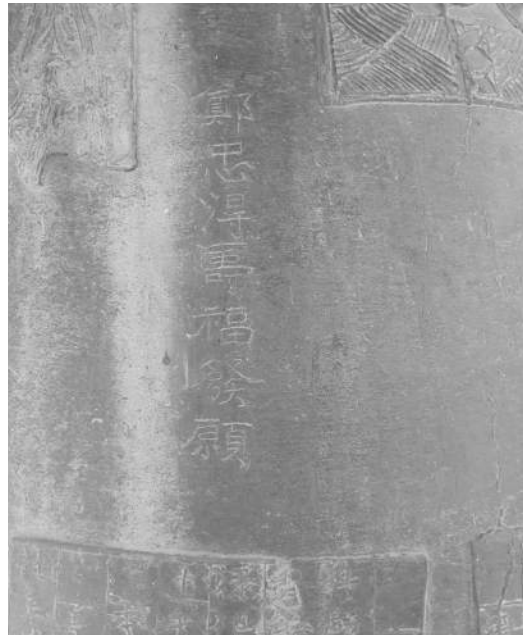
동종제작 명문

康熙肆拾肆年甲申二月。江原道蔚珍地南嶺太白山大興寺大鍾造成。鑄鐵肆百斤。

1704년 갑신(甲申) 2월 강원도 울진 남령 태백산에 위치한 대흥사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대종으로 당초 범종불사에 천학(天學) 스님, 수간(壽幹) 스님, 상성(上性) 스님이 주축이 되었고 강학생(姜鶴生), 이만생(李萬生), 강애생(姜愛生) 등 장인(匠人)이 제작에 참여하였다. 서영(瑞暎), 석눌(釋訥), 상열(尙悅) 스님을 비롯한 많은 사부대중이 시주로 화답하여 범종을 완성하였는데 높이 83cm, 둘레 2.6m의 아담한 규모로 동과 철이 4백 근이 소요되었다 한다. 이 동종은 현재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 64호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찰을 건립할 때 새 종을 제작하여 사용하였으나 범종을 제작하는 대신 사찰이나 폐사지(廢寺址) 등의 범종을 구입하여 봉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봉선사지』·『봉인사부도암금종기』·『조계산송광사사고』·『진남군벽발산안정사대종연기』등에 그런 사례가 기록되어있다.

특이하게도 동종표면에 ‘정충득수복발원(鄭忠得壽福發願)’이라고 선각(線刻) 되어있는데, 이 동종을 대흥사에서 명주사로 옮기는 불사(佛事)를 추진한 정충득(鄭忠得)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강원대학교중앙박물관지 제29호에 발표된 『양양 명주사 소장 1704년 작(作) 울진 “대흥사명 범종”과 제작 주종장(鑄鐘匠) 연구』에서는 ‘이 선각이 동종을 명주사로 이안(移安)된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고, 이안(利安) 원인은 매매로 추정하고 있다.



정충득수복발원 선각

■ 명주사 창건 및 연혁

명주사는 현북면 만월산(滿月山) 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도량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로 고려 제7대 목종 12년(1009) 혜명(惠明)대사와 대주(大珠)스님이 창건하고 사찰의 명칭을 두 스님의 이름에서 한자씩을 따서 명주사(明珠寺)라 하였다.

명주사는 고려 제17대 인종 원년(1123) 부속 암자인 청연암(靑蓮庵)과 운문암(雲門庵)을 창건하여 이 고장에 불교가 크게 번성하였다.

그 후 조선 숙종 2년(1673) 향로암(香爐庵)과 숙종 27년(1701)에 벽옥루(碧玉樓)를 지었으며 정조 5년(1781)에는 연파(蓮坡) 스님이 원통암(圓通庵)을 창건하고 강석(講席)을 열었는데, 항상 100여명의 학도들이 모였다고 한다.

역대 명망이 높던 선사(禪師)들이 후학들을 길러던 수행승의 요람으로 예로부터 선원(禪院)으로 이름나 많은 학승을 배출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명주사에는 12기의 부도와, 연파당대선사비등 4기의 석비가 조성되어 있어 이것을 보아도 명주사에는 많은 명망 높던 선사들이 머물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912년 건봉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는데 1928년부터 1941년까지는 15동에 95칸 규모를 갖춘 사찰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모든 건물이 소실되었고 현재는 극락전, 삼성각, 종각, 요사 및 종무소가 있을 뿐이다.



1928년 명주사 전경



현 명주사 범종각과 극락전

■ 마음속의 종

종의 모양과 크기만이 종소리를 결정하지는 않는 것이라. 명주사 범종은 크기로 보면 중소형에 속하고 외형마저 평범한 모습이지만 시심(詩心) 가득한 이곳 사람들에게는 그 어느 종소리에 못지않은 울림을 준 것 같다. ‘산 암자의 저녁 종소리(山庵暮鍾)’의 일부를 다시 읽는다.

“종소리 한 번에 온 산이 울리고(타암종동사산/打庵鐘動四山)

(중략)

범종소리 그치니 저녁 산이 춥네(사종일낙모산한/寺鍾落暮山寒)”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 (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제8회 전국한시백일장(願雪嶽五色索道建設) 입선시

入選詩

壯元

讚美襄陽南大川

美載襄陽別有天
大川秀麗最于先

造形怪石巫山裏
擬像奇巖漢水邊

生態風光貪玩客
自然景致弄詩仙

鯉魚產卵回歸處
名品清江萬歲傳

牛山 南 相 珣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43, 삼익A 5동 807호

아름답다! 양양의 별유천지
남대천 수려함이 가장 먼저 일세

괴석의 모양을 만든 곳은 무산 속이요
기암이 여러 모양을 한곳은 한수변일세

생태풍광은 완객이 탐내고
자연 경치는 시선이 희롱하네

연어 산란으로 회귀 하는 곳에
명품의 맑은 강 만세토록전하세

次上

常春 高 民 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5

讚美襄陽南大川

碧澗澄江流洞天
壯觀九折讚歎先

벽간의 맑은 강물은 별천지에서 흐르니,
구절 장관에 찬탄이 먼저 나오네

海棠滿發平沙岸
胡蝶紛飛古渡邊

모래톱 언덕에는 해당화가 만발하고
옛 나루터에는 호랑나비가 어지러이 날고 있네

釣叟淺灘遊酒聖
漁翁深沼樂詩仙

낚시하는 노인은 여울에서 주성과 놀고
어옹은 깊은 소에서 시선과 즐기네

回歸記憶鱧魚里
漢水名川萬代傳

회귀를 기억하는 연어의 마을
한수 명천을 만대에 전하세

次上

東山 邊 炳 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척주로 9-49(남양동)

讚美襄陽南大川

勝地襄陽別有天
南川秘境感歎先

양양의 승지는 별유천지인데
남대천의 비경에 먼저 감탄하네

風光秀麗俗塵外
景色鮮妍煩惱邊

풍광이 수려하니 속진을 벗어나고
경색이 선연하니 번뇌도 끝이네

四季漁城招賞客
三生法水集詩仙

어성전의 사계는 상객을 부르고
법수치는 삼생에도 시선들이 모이네

鱧魚產卵回歸處
寶庫無雙保護傳

연어가 산란하러 회귀하는 곳이니
무쌍의 보고로 보호하여 전하세

次下

杲原 金 秉 祚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남목7길 33-5

讚美襄陽南大川

勝地南川別有天
深藏秘境讚揚先

奇巖怪石佳無極
異草妖花好不邊

賞客乘船忘混世
漁翁垂釣似閑仙

四時變貌皆圖幅
誰問桃源此處傳

승지남대천은 별유천이라
심장비경을 찬양함이 먼저네

기암괴석은 다함없이 아름답고
이초 요화는 끝없이 좋으네

상객은 승선해서 혼탁한 세상을 잊고
어옹은 낚시대 드리우니 한가로운 신선같네

사시 변모함은 다 그림폭이라
누가 물으면 무릉도원이 여기라고 전하리.

次下

槿叡 金 柳 延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127-14, 3층 301호
광원한문서예원

讚美襄陽南大川

勝地襄陽讚美天
南川屈指最于先

翩翩衆鳥飛山上
灼灼千花染水邊

淵老題詩吟舉酒
太公垂釣樂如仙

觀光賞客連行列
絕景無雙萬古傳

승지인 양양을 찬미하는 때
남대천을 손꼽아 보니 우선 가장 뛰어나다

번뜩이며 못새들은 산위에서 날고
찬란히 핀 천화는 남천 물가를 물들였네

삼연 선생은 시로지어 술마시며 읊었으며
태공은 낚시드리우고 남천에서 신선같이 즐기었다

관광하는 구경객의 행렬이 이어지니
무쌍한 절묘한 경치 만년토록 전해지리라

次下

蓮堂 李 台 斗

讚美襄陽南大川

대구시 수성구 공경로 70, 만촌보성타운 106동 902호

南川勝地別開天
秀麗風光掘指先

남천승지 별개천에
수려한 풍광에 굴지를 먼저하네

壁水悠悠奇壁下
靑林鬱鬱怪巖邊

벽수는 유유히 절벽하에 흐르고
울울청림은 기암변푸르구나

太公垂釣俗離界
騷客吟風塵脫仙

태공은 낚시 드리우고 속계를 떠나고
소객은 음풍하며 속진 벗어난 신선이구나

彷彿武陵皆讚美
善存寶庫後孫傳

무릉도원 방불에 모두가 찬미하니
보고를 잘 보존해 후손에 전하세

參榜

桂堂 金 慶 一

讚美襄陽南大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길 12

于筒發水海東天
文化襄陽定着先

해동천은 오대산 우룡에서 발원한 물
먼저 양양의 문화를 정착시켰도다

秀麗芳林幽谷外
珍奇怪石勝溪邊

깊은산 골짜 밖은 방림이 수려하고
빼어난 계곡가에는 괴석이 진기하네

留雲僻洞靑山鶴
垂釣澄潭白日仙

구름이 머문 후미진 골은 청산의 학이요
낚시드리운 맑은 소는 백일의 신선이라

黃布帆船遊賞極
母川勿毀後孫傳

황포 돛배타고 놀며 구경함이 극치인
어머니의 하천 훼손말고 후손에 전하지

參榜

景湖 金 國 重

대구시 동구 금강로 21길 10, 103동 1302호

讚美襄陽南大川

양양의 남대천은 별천지인데
자연의 경치는 빼어나 나라중에 으뜸일세

翼嶺南川別有天
煙光秀絕國中先

斜溪碧浪浮雲上
曲水清流躍鱗邊

사계의 푸른 물결위에는 구름이 떠있고
곡수의 맑게 흐르는 물가에는 연어가 뛰는구나

翔鷺投江如瑞鳳
泛舟垂釣似神仙

해오라기 날아 강에 내리니 상서러운 봉황새 같고
배 띄워놓고 낚시대 드리우니 신선같구나

無雙勝地誰無讚
藉藉名聲後世傳

둘도 없는 승지를 어느누가 찬양하지 않으리오
자자한 명성 후세에 전하세

參榜

雲亭 金 榮 錫

서울 강남구 삼성로 103길 11-9, 301호

讚美襄陽南大川

양양승지 동쪽하늘가에 으뜸이라
찬미풍광에 한수(남대천)가 우선일세

襄陽勝地冠東天
讚美風光漢水先

賞客歡聲遊岸上
歸鯉活氣躍川邊

상객들 언덕위에서 환성하며 노닐고
돌아오는 연어떼 물가에서 활기차게 뛰어오르네

鬱林曳杖如居士
翻浪垂竿似謫仙

울림에서 지팡이 끌며 산보하니 비범한 거사같고
번랑에서 낚시대 드리우니 가히 신선같아라

郡策成功名品郡
繁昌日益永年傳

군책(남대천르네상스)성공에 명품 양양군으로
날로 번창하며 오래도록 전하기를

參榜

蒼波 金 允 來

讚美襄陽南大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포월윗말길 40

天惠南川膳物天
碧溪九曲讚歎先

하늘이 선물한 천혜의 남대천은
구곡 벽계에 찬란이 먼저나네

芳林活畫充眸內
怪石奇巖櫛谷邊

활화의 방림은 눈 안에 가득하고
기암과 괴석은 골 가에 즐비하네

釣客淺灘如樂彥
漁翁深沼似遊仙

여울의 낚시꾼은 선비가 즐기는 것 같고
깊은 소의 낚시어른 신선이 노는 것 같구나

清流生水萬人母
勿毀無窮千劫傳

맑게 흐르는 생명수라 만인의 어머니다
훼손 말고 무궁토록 영겁의 세월 전하세

參榜

浩廣 柳 亨 薰

讚美襄陽南大川

경상북도 안동시 은행나무로 95-1, 제니스빌 B동 401호

三韓勝地襄陽天
讚美南川第一先

삼한의 승지인 양양에서
찬미 남대천이 제일이네

忙鴨窺魚翔派上
閑翁垂釣坐汀邊

망암을 고기를 엿보며 물결위에서 날고
한옹은 낚시를 드리우고 물가에 앉아있네

紫山玩客如山佛
明水探人似水仙

자산을 즐기는 손님은 산의 부처같고
명수를 찾은 사람은 물의 신선같네

鯉躍澄清神秘處
無虧善保後孫傳

연어가 날뛰는 맑은하천 신비처를
훼손없이 잘보전해서 후손에 전해야겠네

參榜

讚美襄陽南大川

襄陽和暢暮春天
客到南川讚美先

松鬱花繁行路上
鱧遊鳥啣碧溪邊

巫山浩氣千年寶
漢水垂綸一日仙

活畫成屏誰不羨
賦詩詠嘆苟難傳

帥岩 李 相 京

경북 경주시 외동읍 모화북3길 55-48

양양의 화창한 춘삼월 하늘아래
객이 이른 남대천에 찬미가 우선일세

소나무 울창하고 꽃이 변화한 행로요
연어가 놀고 새 지저귀는 벽제로다

무산의 호연지기는 천년의 보배가 되고
한수에 낚시하니 하루의 신선일세

활화의 병풍이 누구들 부럽지 않을까
부시로 영탄하나 진정 전하기 어려워라.

參榜

讚美襄陽南大川

襄陽文化發祥天
四季風光屈指先

貪鷺肥鱧游水上
奇巖怪石兀川邊

濛濛巫雨答金士
瀏瀏漢波吟李仙

彷彿武陵皆讚美
自然無毀後孫傳

錦靖堂 李 壬 出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51길 7

양양 문화가 발상한 하늘에
사계절 풍광은 먼저 손을 꼽는다네

새가 탐하는 살찐 연어 물위로 헤엄치고
기암과 괴석은 천변에 튀어나왔네

몽몽한 무산운우를 김 학사가 답하고
류류한 한수춘파를 이부사가 읊조렸네

무릉을 방불하다 모두가 찬미하니
훼손 없이 자연을 후손에게 전해야지

參榜

讚美襄陽南大川

襄陽九曲大川天
此地桃源感歎先

檟木奇巖屏繞裏
琪花妖草繡粧邊

詠詩雅客塵中鳳
垂釣漁翁世外仙

黃布帆船遊樂處
千秋勿毀後孫傳

紫松 李 鍾 赫

경북 울진군 울진읍 고성1길 42

양양의 아홉구비 돌아드는 남대천 하늘
이땅이 무릉도원이라 먼저 감탄한다오

가목과 기암을 병풍을 두른 가운데
기화요초를 수로장식한 변두리로드

시를 읊는 아객은 진중의 봉황이요
낚시 드리운 어옹 세상밖 신선이로다

황포범선이 즐겁게 노니는 곳
천추토록 훼손말고 후손에 전하세

參榜

讚美襄陽南大川

漢水風光別界天
襄陽文化發祥先

嬋娟嫩草奇巖上
燦爛芳花怪石邊

雲雨幽情吟李使
春波綠酒答金仙

鯉魚自海回歸處
無毀清川後世傳

毅山 李 泰 浩

경남 밀양시 석정로 2길 10

한수의 풍광은 별세상인데
양양문화의 발상이 먼저였네

기암위에 새로나온 풀들이 예쁘고
괴석가에 아름다운 꽃 찬란하구나

운우의 그윽한 정을 이해조부사가 읊으니
춘파는 푸른 술이라 김창흠 학자가 답하네

연어가 바다에서 모천으로 돌아오는 곳
훼손 없는 맑은 하천을 후세에 전하리라.

參榜

讚美襄陽南大川

九曲襄陽有別天
乾坤造化最爲先

江開寶鏡深無極
雲捲奇峯杳不邊

萬像似龍能似鶴
千岩如佛或如仙

妙形各處同圖幅
絕景南川筆難傳

牧山 韓斗錫

경남 합천군 묘산면 가산공곡길 214

구곡천로 별천지가 양양고을 있었는데
천지간에 조화로써 가장먼저 이루었네

강에 열린 귀한 거울 무한하게 깊고요
구름걸친 기이한 봉 아득하여 가이없네

많은 형상 용과 같아 능히 학과 흡사하고
일천바위 부처같아 혹은 신선 같이 보네

묘한 모습 곳곳마다 그림폭과 동일하네
묘한 경치 남대천은 붓으로서 난전일세

佳作

讚美襄陽南大川

襄陽勝地別開天
南大川尋美感先

蜀鳥繁飛遊樹上
鯉魚潛泳樂江邊

碧溪怪石依稀畫
幽谷奇巖髣髴仙

恰似桃源誰不讚
風光明媚萬邦傳

野隱 高根煥

경북 문경시 예동길 39-4

양양의 승지가 별개천하니
남대천을 차지니 아름다움 먼저 느끼노라.

족새는 번비하여 나무위에서 놀고
연어는 잠영하여 강변을 절기노라

벽계에는 괴석이 그림을 연상케하고
유곡에 기암은 신선을 방불케하네

무릉도원을 흡사하니 누구가 찬양안으리
풍광명미함을 만방에 전하세

佳作

曉山 郭 喆 允

讚美襄陽南大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54, 블루밍A 108동
1303호

翼峴南川別有天
自然祕境感歎先

양양의 남대천은 별유천인데
자연비경을 먼저 감탄하네

繁飛山鳥碧山裏
盛泳水魚青水邊

산새들은 푸른산속에서 번다하게 날고 있고
물고기는 청수변에서 왕성하게 헤엄치네

漲澗描圖遊墨客
清潭垂釣樂神仙

창간에선 묵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유하고
청담에는 신선들이 낚시를 드리우고 즐기노니

四圍絕景如斯美
善保原形永世傳

사위 절경이 이와같이 아름다운 곳을
원형되고 잘보존하여 영세토록 전하세

佳作

峴泉 金 惠 柱

讚美襄陽南大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로 15

漢水澄江流洞天
壯觀九曲讚歎先

한수의 맑은 강물은 별천지에서 흐르니
구곡의 장관에 찬탄이 먼저 나오네

芳林活畫充眸內
絕壁奇巖櫛谷邊

활화의 방림은 눈 안에 가득하고
기암절벽은 골 가에 즐비하네.

釣叟星霜如酒聖
漁翁日月與詩仙

낚시하는 노인은 주성과 같이 세월을 낚고
어옹은 시선과 더불어 일월을 낚는구나.

滄浪記憶船歌繼
鯁溯名區萬代傳

창랑주 기억하며 뱃노래 이어지는
연어 오르는 명구를 만대에 전하세.

佳作

怡菴 金 圃 康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50길 36

讚美襄陽南大川

승지양양은 별유천이로다
소인은 두루보면서 찬양이 먼저구나

勝地襄陽別有天
騷人周覽讚揚先

奇巖怪石粧江畔
瑤草妖花繡路邊

기암 괴석이 강반을 장식하고
요초 요화가 로변을 수놓았구나

黃布帆船遊賞客
碧溪釣叟頑神仙

황포범선에는 상객이 놀고
벽계에 낚시하는 늙은 이는 신선놀이하고

鱧魚產卵回歸處
清潔南川後世傳

연어가 산란을 위하여 돌아오는 곳
남대천을 청결이하여 후세에 전하자

佳作

龍谷 金 明 培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63번길 11-2

讚美襄陽南大川

양양승지를 방문하니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다

襄陽勝地訪春天
滿目風光讚美先

產卵鱧魚游水下
作儔鳧鴨樂溪邊

산란하는 연어가 물속에서 놀고
짝을 이룬 오리가 물가에서 즐기니라.

逍遙韻士妄塵世
玩賞詞林進境仙

산책하는 운사는 진세를 잊고
완상하는 사람은 선경에 이른다.

麗景保存如此勉
後孫萬代必然傳

여경 보존하는데 힘쓰면
후손만대까지 반드시 전해지리.

佳作

幽硯 金 錫 顯

포항시 북구 삼흥로 18번길 6, 산호1차 208호

讚美襄陽南大川

襄陽漢水別開天
歸路鯉魚競後先

양양 남대천에 별천지가 열렸으니
회귀하는 연어는 앞뒤를 다투도다

野鳥繁飛奇石下
妖花巧笑碧潭邊

야조는 기암아래 번다히 날고
요화는 벽담가에 예쁘게 웃음 짓네

白雲竣峙吟詩客
黃布帆船舞酒仙

흰 구름 떠있는 준치에는 시객이 시를 읊고
황포범선에는 주선이 춤을 추네

名品河川成造裏
好評探訪萬民傳

명품하천을 조성하는 가운데
탐방 호평이 만민에 전해지도다

佳作

松園 金 秀 吉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13

讚美襄陽南大川

勝地南川四月天
展開絕景感嘆先

승지의 남천 사월의 하늘에
전개된 절경에 감탄이 먼저 나네

奇巖怪石嗾情裏
瑤草琪花培興邊

기이한 바위 괴이한 돌은 정을 부추기는 속에
옥 같은 풀과 기화는 흥을 북돋우는 옆이네

生態風光宜詠士
自然環境恰棲仙

생태계의 풍광은 선버들 읊기 마땅하고
자연의 환경은 신선들 살기 흡족하네

休遊最適桃源界
體驗空間永世傳

휴양하기 최적지인 도원의 지경에
체험의 공간으로 영세로 전하세

佳作

讚美襄陽南大川

碧溪百曲別開天
漢水滄浪讚美先

活畫芳林裝眼下
生形怪石守川邊

名區祕景尋遊客
勝地風光醉詠仙

魚鳥棲巢孵化處
襄陽寶庫萬人傳

看山 金 亨 來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27-5

벽계가 백여리를 굽어 별 천지가 열리니
한수의 푸른 물결을 찬미함이 우선이네

활화같이 꽃다운 숲은 안하를 장식하고
생형의 괴석은 천변을 수호하네

명구의 비경에는 유객이 찾아들고
승지의 풍광엔 영선이 도취하지

어조가 등지에서 새끼를 치는 처소니
양양의 보고를 만인에 전하리

佳作

讚美襄陽南大川

韶光萬里艷陽天
槿域東君布德先

塞北飛行鴻去裏
江南消息驚來邊

林間樓閣依稀畫
野仲衣冠彷彿仙

山紫水明名勝地
四時物色寫難傳

松巖 柳 基 燦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72-23, 123동
1001호

아름다운 빛 만리의 양양천에
근역의 태양의 신이 먼저 포덕을 하네

새북에는 기러기가 날아가는데
강남의 제비는 소식을 전하고

숲사이 누각은 의희한 그림같고
야중에 의관하니 신선을 방불케하네

산자수명한 명승지에
사시물색은 백겨 전하기 어렵도다.

佳作

波香 文 顯 杓

讚美襄陽南大川

부산 남구 못골번영로 66번길 69, 대연그린A 1202호

襄陽南大別開天
九曲長流讚美先

양양에는 남대천이 별개천이어
아름답이 긴 물길을 찬미함이 먼저일세

碧水悠悠鯉躍裏
綠林鬱鬱鶴棲邊

유유한 푸른 시냇물에는 연어가 뛰고
울울한 초록 숲에는 학도 깃들이네

騷人興起如閒士
賞客逍遙似謫仙

소인은 흥기되어 마음 편안 선비 같고
상객은 소요하며 귀양 온 신선 같네

名品河川誰不羨
保存生態後孫傳

명품 하천을 누가 부러워하지 않으리
생태를 보존하여 후손에게 전하세

佳作

苑美 閔 敬 仙

讚美襄陽南大川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6길 41-10

勝地南川別有天
萬人玩賞讚嘆先

승지 남대천은 별유천지라서
만인이 완상하며 찬탄이 앞서네

鯉魚衆泳清江裡
禽鳥群棲茂樹邊

맑은 강속에 연어가 무리도 헤엄치고
무성한 나뭇가에 금조가 무리로 서식하네

暇日垂竿如道士
隨時乘舶似神仙

가일에 낚시대 드리우니 도사와 같고
수시로 배를 타니 신선과 같네

風光秀麗成真境
名所襄陽永保傳

수려한 풍광 진저을 이루니
양양의 명소로 길이 보호하여 전하세

佳作

龍湖白秀康

경북 영주시 장수면 옥계로 514번길 11

讚美襄陽南大川

南大川來別界天
太公垂釣後爭先

남대천에 오니 별계의 하늘인데
태공들은 수조하면서 후쟁선이라

淨明沙石滿多裡
奇妙魚蟲繁植邊

정명한 사석이 만다하는 속에
기묘한 어충이 서식하는 변이로다

景展芳佳歡賞客
水流清潔樂遊仙

경전방가하니 상객는 기쁘고
수유청결한 유선이 질거하더라

自然生態保存際
協力官民千歲傳

자연생태을 보전하는 제에
관민는 협력하여서 천세토록 전하라.

佳作

智石宋鎬丙

부산시 금정구 안들로 16, 201호

讚美襄陽南大川

襄陽靈地別開天
敍景南川屈指先

영지 양양은 별천지 열렸는데
남대천의 경치가 으뜸이구나

物色神奇桃境裏
風光絕妙武陵邊

물색은 신기하게 도원경 속이요
풍광이 절묘하니 무릉변이로다

帆船黃布樂祠伯
澗谷碧溪遊謫仙

황포돛배는 사백들이 즐기고
벽계의 골짜기에는 적선들이 노니네

親水空間名品遂
鯉魚產室後孫傳

친수공간은 명품을 이루었으니
연어의 산실은 후손에게 전해지리

佳作

孟泉昇萬石

讚美襄陽南大川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로 43, 삼익A 2-809호

襄陽跳躍艷陽天
佳麗南川最首先

도약하는 양양군의 염양천에
가려한 남대천이 최수선이네

淸淨玉溪廻嶽下
明澄瓊水遶坪邊

청정한 옥계는 설악산을 돌아흐르고
명징한 경수는 도평을 두르네

琪花別界迢元亮
瑤草桃原樂謫仙

기화의 별세계에는 원량(도원명)이 거닐고
요초의 도원은 적선(이백)이 즐기네

江上歸鯉帆影映
秘懷此地願長傳

연어가 회귀한 강상에 돛그림자 비치니
신비를 품은 이곳을 원하니 오래오래 전하세

佳作

修光安圭軼

讚美襄陽南大川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124번길 95, 레이크하우스 401호

玉流旣映玉壺天
藍色乾坤無此先

아름다운 하늘이 옥류를 이미 비추어
운세상 남색은 이 이전에는 없었네

卵石粼粼明鏡裡
松山歷歷綠波邊

거울같이 맑은 물에는 수란석이 아른거리고
주변 산의 소나무 숲은 푸른 물결 역력하네

鄉中釣叟因成佛
方外儒冠幻作仙

마을에 낚시하는 노인 불도를 이루고
멀리서 온 선비는 신선으로 변했네

隔世淸眞玄圃景
畫圖惟願後人傳

세상에 숨겨진 참으로 깨끗한 현포 같은 풍경
오직 그림같이 아름다운 고을 후대에 전해지길
원하네

佳作

清我安再煥

讚美襄陽南大川

대구시 수성구 청솔로 124-11, 하우빌 청아 401호

漢水風光別有天
東流源地到爭先

남대천의 풍광은 별천지로서
발원지에서 동쪽으로 흐름이 앞다투며 달는구나

溪花滿發奇峰下
山鳥繁飛秘景邊

기봉아래 계곡에는 꽃이 만발하였고
산새들이 아름다운 강가에서 번잡하게 나는구나

遊子乘船如伴侶
太公垂釣似神仙

유자들이 승선하니 짝이되는 것같고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니 신선과 같구나

襄陽讚美聲嚆播
無毀原形萬世傳

양양을 찬미하는 소리가 울려퍼지고
훼손하지 않는 원형으로 만세에 전하자.

佳作

德崇李敏植

讚美襄陽南大川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퇴계로 167, 108동
1002호(주공1차 APT)

幽谷靈峰下自天
高明勝地日昇先

유곡과 영봉은 하늘이 내린것이라
빼어난 경승지에 아침해 먼저 솟네

鱧魚產卵母川岸
黃布帆船親水邊

연어가 산란하는 모천의 연안
황포범선이 떠있는 친수의 강변

入海碧溪招墨客
飛山白鶴趁神仙

바다로 흐르는 벽계수는 묵객을 부르고
산위를 나는 백학은 신선을 쫓는 듯

清澎怪石桃源景
跳躍襄陽萬代傳

맑은 물소리와 괴석은 무릉도원의 풍경이요
도약하는 양양 자손만대에 전하리라

佳作

寒潭 李 永 燉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남로 33,
대실역리슈빌3단지 308동 1603호

讚美襄陽南大川

南川鏡水映蒼天
絕景之中屈指先

白鷺何心浮沒裡
鯉魚任意浸潛邊

山光倒影山非俗
月色穿波月似仙

九曲回流東海入
千秋不朽後孫傳

남대천은 거울 같이 맑은 물에 창천을 비추고
절경 가운데 제일로 앞서네

백로는 무슨 생각으로 뜨다가 잠기고
연어는 마음대로 침잠하는 물가이며

산광이 도영되도 산은 속되지 아니하고
월색이 물결을 뚫어도 달은 신선 닮았네

굽이굽이 돌아 흘러 동해로 들어가고
천추토록 불후하여 후손에 전해지리라.

佳作

菡塘 李 載 恒

경상북도 영주시 시청로 19-2

讚美襄陽南大川

勝地襄陽別界天
南川讚美有誰先

奇巖怪石稱揚裏
瑤草琪花感歎邊

鯉躍清潭垂釣老
船浮碧水詠詩仙

滿眸處處如圖幅
明媚風光萬世傳

승지 양양이 별계천이요
남대천 찬미를 누가 먼저 있으리요

기암괴석을 칭양하는 속에
요초기화를 감탄하는 변에

청담에는 연어뛰고 노인은 낚시드리우며
벽수에 배 띄우며 신선은 시를 읊며

만모 처처가 그림폭 같은데
아름답고 고운경치를 만세전이요

佳作

松潭 李昌雨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마로 21길 49, 센트로빌라 103동
202호

讚美襄陽南大川

남대천 물색이 푸른 하늘과 같아서
문화가 발상한 곳 어디 있어 앞서겠는가

南川水色似青天
文化發祥誰有先

法峙僻村開谷裡
五山源脈到江邊

법수치의 한적한 벽촌이 골짜기 안에 열리고
오대산 발원한 수맥이 강변에 이르렀네

玲瓏岸荻吟詩客
秀麗風光醉酒仙

영롱한 강안의 물 억새를 시객이 읊고
수려한 풍광은 주선이 취하는 주나

孰不讚歎神秘景
千秋來世保存傳

어느누가 이 신비한 경치를 찬탄하지 않으리오
천추만세도록 보존하여 전해가세

佳作

草堂 林樂相

경북 예천군 용문면 직동길 180

讚美襄陽南大川

양양승지 탐방할때에
찬미 남대천 먼저 손가락일세

襄陽勝地訪探天
讚美南川屈指先

碧水清潭魚躍裡
靑林喬木鳥飛邊

벽수청담에 물고기 뛰는 속에
청림교목에 산새 날아가는 가에

四時絕景耽詩聖
萬壑名區樂酒仙

사시절경 시성이 탐하네
만학명구에 주선이 즐기네

九曲秘藏長保護
江山秀麗後人傳

구곡천로 비장에 길이 보호하여
수려강산 후인에게 전하세

佳作

翠松 全 寅 出

讚美襄陽南大川

울산시 동구 옥류로 92, 102동 309호 벽산유토피아

勝地南川別有天
秘藏秀麗讚揚先

승지 남대천 별유천인데
비장하고 수려함을 찬양 먼저하네

鷺飛斷岸松林裡
鯉躍危磯鏡水邊

백로 단안과 송림에서 한가로이 날고
연어 위기 경수변에 뛰고 헤엄치네

生態維持驚覽客
自然保護頌詩仙

생태유함은 유람객을 놀라게 하고
자연보호함을 시선이 찬송시 읊조리네

官民協力時流導
現世桃源永遠傳

관민이 협력하며 시류를 선도하므로
현세에 무릉도원 영원히 전하여 지겠네.

佳作

杏岡 鄭 泰 桓

讚美襄陽南大川

경북 영주시 두서길 95-9(영주동)

襄陽勝地別開天
南大澄川讚歎先

양양 승지가 별천을 여니
남대천 맑은 내를 보고 찬탄이 앞서는구나

山鳥繁飛蒼壁下
潭魚騰躍碧巖邊

산새들 푸른 층벽아래 분주히 날고
담어는 이끼진 바윗가를 뛰어 오르는 구나

畫中自適凌蘇子
詩裏優遊比謫仙

산수화같은 경치속에 자적하니 소동파를 능가하고
한편의 시같은 경치속에 우유하니 이태백과 전주노라

體驗觀光多樣處
美哉此景禱長傳

체험관광이 다양한 곳
아름답구나 이풍경 오래보존하여 전하길 비노라.

佳作

晚休堂 曹在洙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567번길 66

讚美襄陽南大川

襄陽勝地別開天
九曲南川讚美先

양양 승지에 별천지가 열리니
구곡 남대천을 먼저 찬미하는 구나

綠水清潭丹壑裏
靑山幽谷碧溪邊

녹수 청담은 신비스런 골에 있고
청산 유곡은 벽계수 변에 있네

吟風騷客比蘇子
探景賞人如謫仙

음풍하는 소객은 소동파에 비유되고
탐경하는 상인은 적선과 같구나

五嶽發源東海入
郡民乳線永存傳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동해로 들어가니
군민의 젖줄로 영원히 보존하여 전하세

佳作

潤山 崔康炫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26번길 13, 호수APT
101동 512호

讚美襄陽南大川

襄陽自古別開天
南大川光讚美先

양양은 자고로 별개천 열렸고
남대천 빛나서 먼저 찬미를 하네

鶯鳥營巢靑柳裡
鯉魚產卵碧灘邊

앵조영소는 푸른버들속에서
연어산란은 푸른여울가였네

名區探景無愁客
勝地吟詩不羨仙

명구탐경하니 손님은 근심이 없어지고
승지에서 읊으니 신선이 부럽지않네

始發五臺清淨水
保存生態永相傳

시발 오대산 청정수 속에서
생태보존 하여서 영원이 서로서로 정하세

佳作

芝淵 崔 相 夏

讚美襄陽南大川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화합8길 15-1, 301호

九曲川途沼映天
秘藏風趣讚嘆先

아홉구비 남대천길 용소에는 하늘이 비치고
감춰진 풍취가 감탄이 앞서는 구나

巫山秀麗奇峯下
漢水澄清妙景邊

수려한 무산의 기이한 봉우리 아래
맑고 깨끗한 한수는 묘한 경치변이로다

人造靈區明瑞氣
地開勝地降神仙

군민이 조성한 신령한 곳 서기가 밝고
땅이 열어준 승지는 신선이 내릴듯하네

郡民乳腺鯉棲處
環境支存永世傳

군민의 젖줄이요 연어의 서식처로
환경을 지탱할 보존 영세토록 전하세

佳作

雲瑞 崔 云 植

讚美襄陽南大川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5일장길 34-1

勝地襄陽秀麗天
南川讚美感懷先

승지양양 수려천에
남대천을 찬미하니 먼저 회포를 느끼네

清潭曲水長流下
怪石奇岩屹立邊

청담곡수는 아래로 길게 흐르는데
괴석 기암은 천변에 우뚝 솟았도다

絕景觀光塵脫客
名區玩賞俗離仙

절경을 관광하니 세속을 벗어난 객이요
명구를 완상하니 속세를 떠난 신선이로다

鯉魚不忘歸還裡
百里銀波保護傳

연어가 잊지 않고 귀환하는 속에
백리은파를 잘 보살피 전하리라.

佳作

瑞潭 崔 鍾 學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47

讚美襄陽南大川

襄陽勝地別開天
漢水清流讚美先

양양승지로서 별개천임은
한수의 청류를 찬미함이 우선이네

奇妙魚蟲繁此處
貴稀草木茂周邊

기묘한 어충은 이곳에서 번식하고
희귀한 초목이 주변서 무성하네

怪岩絶景留詩客
秀麗風光喚筆仙

기암괴석 절경에 시객은 발걸 머물고
수려한 풍광은 화가를 부르네

九曲碧溪藏萬物
原形善保後孫傳

구곡벽계가 비장무궁 만물을 간직했으니
원형을 착실이 보존해 후손에 전하세

佳作

雲谷 崔 海 大

울산시 중구 우정3길 9, 선경1차 106동 1001호

讚美襄陽南大川

欲訪南川別有天
自然活畫世稱先

찾고자 하는 남대천은 별유천이니
자연이 살아 있는 그림 세상에 칭찬이 먼저네

奇巖怪石形無變
好鳥妖花景不邊

기암괴석 형태는 변함이 없고
호조요화는 경치가 끝이아니네

碧水遊船如洞府
蒼波釣叟似神仙

벽수유선은 동부와 같고
창파조수는 신선과 흡사하네

鱧魚貴客歸清淨
勿毀仍孫地秘傳

연어귀객이 맑은 물로 돌아오니
임손들은 땅의 신비를 전하여 훼손하지 말아야겠네

佳作

草堂 黃 元 相

讚美襄陽南大川

경북 영주시 목민로 36번길 24-1

名勝襄陽別有天
南川秀麗感嘆先

명승지 양양은 별유천인데
수려한 남천은 감탄함이 먼저일세

妖花異草濃香裏
怪石奇巖絶景邊

요화와 이초는 농향리에
괴석과 기암은 절경 변일세

垂釣太公成道士
吟風騷客化神仙

수조의 태공은 도사가 되었고
풍월을 읊는 소객은 신선이 되었네

如圖秘境誰無讚
善護原形萬世傳

그림폭 같은 신비한 경지는 누가 칭찬치 않으리오
원형대로 잘보존해 만세토록 전하세

2023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 일 시 : 2023년 11월 15일(수) 13:40~
- 장 소 : 양양중학교 3학년 1~5반 교실
- 참여인원 : 150명



소감문

정관성

힘들고 지치는 기말고사를 끝내고 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는 활동이라 그런지 색다르고 재미있었다. 옛날에도 많이 해봤던 도자기에 꾸미기이지만 오랜만에 하니 처음 하는 것처럼 설레고 재미있었다. 또한 잘하지는 못하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고 좋았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오늘처럼 멋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서은혁

처음에 도자기 만들기 체험이라고 해서 반에서 직접 흙의 모양을 잡는 활동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어서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안료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무늬와 그림을 나의 컵에 직접 그려 나만의 법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처음 안료 냄새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 괜찮았다. 재밌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하나 또 하고 싶었지만 하나만 할 수 밖에 없어서 아쉬웠다.

신하린

처음에는 내가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두려웠지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릴 수 있어서 기뻐다. 선을 얇게 해서 조금 힘들었지만 점점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도자기 체험은 즐거웠고 나중에 또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정유경

도자기 컵을 만들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살짝 힘든 점도 있긴 했지만 강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도자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직접 빚어서 만드는 줄 알았는데 컵에 그림을 그려서 되게 놀랐습니다. 옷에 묻을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컵을 만들고 다 만든 뒤에 뿌듯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학년도 이 수업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

이명관

일단 도자기 컵에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너무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자기 컵을 받고 그림을 그렸다. 그림은 나와 내 친구 2명의 캐릭터를 그렸다. 스케치를 했을 때는 뭔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그리고 나서보니 귀여워서 만족스러웠다.

이은빈

컵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직접 디자인하니까 재미있었다. 그리고 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뿌듯했다. 나는 정말 귀엽게 그렸다. 요즘 머그컵을 사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와서 좋았다. 나는 아무래도 고양이 그림에 재능이 있나보다. 정말 즐거운 경험 ! ^^



엄가은

그림 그리는 과정이 재밌었고 어렸을 때 해 본 경험이 생각나서 더 좋았고 다른 아이들이 어떤 디자인을 그렸는지 보는 것이 재밌었고, 마음대로 안되어서 은근 속상했지만 좋았다.

이시흔

정말 흥미로웠다. 하면 할수록 재미있었고 더 잘할 수 있을 거란 마음에 노력할 수 있었다. 내가 그림적으로 재능이 있다는 걸 한 번 더 깨달았다. 정말 재미있게 한 수업이었고 다시 한다면 접시도 한번 해보고 싶다.

윤현지

컵에 안료를 칠해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컵으로 만들었다. 각자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 또는 컵에 내고 싶은 분위기를 이용해 고민하고 생각하여 만들었다. 각자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게 해주어서 매우 좋았고, 도안을 참고해도 된다는 것이 매우 좋았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색깔로 더욱 화려하고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다. 하지만 오늘 한 것도 심플하고 마음에 든다.

이진서

개인의 컵을 지니고 그것을 꾸미는 것은 그저 지루하고 별로 흥미가 없었지만 막상 꾸며 보니 친구들과의 작품 소통을 통해 반이 화목해지고 ‘나만의 컵’이라는 것에 뭔가 자유로운 느낌과 꾸미는 것에 흥미가 생겨 좋은 시간이었다.

고은채

저만의 머그컵을 만드는거라 아주 마음 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서 쉽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닌 친구들의 완성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또 물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닌 물에다가 돌가루를 섞어서 만든 물감을 쓰는 거라서 더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번 활동을 또 하고 싶을 정도로 재밌었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김민서

사실 도자기를 직접 빚어서 굽는 건 줄 알았는데 그림 그리고 꾸미는 거라 더 흥미가 갔던 것 같다. 처음 보는 액체를 사용해서 굉장히 신기했다. 물에 돌가루를 넣어 연필 냄새가 상당했다. 머그컵도 용량이 커 보여서 물이 꽤 많이 들어갈 것 같다. 내가 붓을 잘못 사용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림이 내 맘대로 잘 그려지진 않았다.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고 집중력만 있으면 금방 끝낼 수 있는 활동이라 지루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잘 활용할 것 같다. 너무 재미있었다.

김진성

처음엔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서 구워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뭔가 신기한 경험이 되고 좋았다. 또 하게 된다면 할 마음이 있다. 오늘은 제일 재밌는 하루가 됐다.

고도현

도자기 만들기를 하면서 나의 예술적 감각이 어느 정도인지 느꼈고 도자기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시게 정말 잘 가르쳐주셨다. 도자기를 별로 만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오래 만져보니 정말 재미있었고 도자기에 그림을 그린 것이 나의 예술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것 같고 난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같다. 나중에 또 한 번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하정혁

도자기에 스케치 후 내가 안료를 사용해 그린 그림들이 들어가 있으니 내가 직접 만든 덕에 재미를 느낀 것 같다. 안료라는 것을 처음 봤는데 쓰자마자 바로 굳어서 물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다. 도자기 겉 촉감이 부드러운 것 같아 조금 신기했다.

김동후

느낀 점은 도자기를 꾸미는 것이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는데 어려웠다는 것이다. 아마 평면에 그리는 게 익숙했을텐데 처음으로 곡선에 그림을 그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리고 도자기를 한 번만 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구워서 완성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다. 나는 이번 도자기 체험이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인 줄 알았는데 도자기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아니라 초벌 된 도자기를 꾸민다는 점에서 되게 신선함을 느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라 그걸 상상하며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서 조금 아쉬움도 있었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경험이 된 것 같다.

김규리

초벌된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재미있고 떨렸다.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 마음이 진정되는 것도 같았다. 처음에는 무슨 그림을 그릴지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씩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다 보니 다채워졌다. 그리고 한 가지 색뿐이라 많이 아쉬웠지만 검은색만 사용하는 것도 감성있다고 느껴졌다. 앞으로 할 기회가 있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현민

도자기에 스케치 후 내가 붓을 들고 안료를 사용하여 내가 직접 그린 나만의 그림들이 도자기에 그려져 있으니 내가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나의 자식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직접 그리는 것들이 정말 재미가 있었다. 안료를 처음으로 써봤는데 일단 많이 흔들어



서 손가락이 아팠지만 금방 마르는 것이 신기했다. 비록 검은색 밖에 없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이라서 오히려 좋았다. 다음에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재미있었다.

함은빈

도자기 체험이라 하여 직접 도자기를 만드는 것인 줄 알았으나 만들어진 도자기 컵에 자신이 하고 싶은 디자인을 직접 컵에다가 작업하였습니다. 막상 하니 컵에다가 무슨 디자인을 할지 신중하게 고르게 되었고 스케치도 직접 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그리니 더 재밌었습니다. 스케치를 다 한 후 연필로 스케치 한 것을 더 확실하게 스케치하였습니다. 붓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막상 힘들긴 했지만 다 완성하고 보니 많이 만족스러웠습니다. 또한 남은 자리에도 또 어떤 그림을 그릴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렸고 더 많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도자기 체험을 막상 하니 재밌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최민영

도자기를 직접 빚는 체험인 줄 알았는데 그림만 그리면 되니까 처음에 부담되었던 게 덜어져서 마음 편하게 체험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셔서 다같이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엔 빚어보고 싶다.

최선우

진짜 내가 살면서 해봤던 것 중에 가장은 아니지만 재밌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진짜 비용을 30만원을 내고 하라해도 할 것 같다. 그만큼 재밌다. 다음에는 도자기에 그림 그리기가 아니라 점시에 그림 그리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꼭 또 하고 싶다. 부족한 점이 없이 완벽하다.

김강민

처음에 도자기를 직접 빚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인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완성되어진 도자기에 안료 같은 걸 칠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아쉬웠다. 처음에 안료의 상태가 짝과 달라서 당황했지만 둘다 같다는 것을 듣고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무엇을 할지 30분동안 계속 고민하다가 생각한 로고를 그리고 있었는데 계속 그리다가 좀 실용성 있는 걸 그리면 어떨까해서 이 컵을 처음 만지는 시간과 마지막으로 만지는 시간을 적어서 이 시간의 법칙을 어기면 안된다는 나의 의지를 이 컵에 담았다. 그리고 안료를 따라 그리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그리는지 몰랐는데 거의 마지막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릴지 깨달아서 좋았다. 그래서 또 이런 경험이 있다면 엄청 재밌게 열심히 할 것 같다. 다음에는 직접 도자기를 빚으면 좋겠다.

이석우

도자기에 그림이나 명언을 적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장인이 왜 따로 있는지 알았다. 정말 어려웠지만 다 만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다.

박지영

컵에 붓으로 그림을 그렸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고, 완성품이 너무 기대된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윤서

도자기 머그컵이 너무 흰색이라 예뻐서 안 그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그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웃는 사람 얼굴 모양을 그렸는데 생각보다 귀여워서 좋았다. 그리고 이 컵이 완성된다면 집에 가서 한 번 꼭 물을 먹고 싶어지는 기분이다. 또한 물감이 아닌 안료라는 것으로 그렸는데 생소한 것 같아서 처음에는 신기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손에 묻어도 잘 지워져서 좋았다. 다음에 한 번 더 했으면 정말 좋겠다. 얼른 이 컵이 우리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윤혁

나 자신의 창의성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생겨서 좋았다. 돌가루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신기한 느낌도 있었고, 친구들 각자의 개성이 느껴진 것 같아서 참 좋았던 것 같다. 다음에도 이런 체험을 한다면 그때도 새로운 마음으로 체험에 임해서 나의 생각을 펼칠수있는 기회가 또 생겼으면 좋겠다.

조영우

도자기에 붓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에는 종이에 쓰는 것과는 달라서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하얀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게 재미있었고, 도자기까지 나중에 받아 가는 체험이라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배수현

안료라는 물질을 처음 알았고 이 재료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붓으로 그릴 때 너무 두껍게 나오고 망할 것 같길래 흥미가 없었지만 점점 재밌었고 흥미 있었다. 시험이 끝나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 더욱 재밌고 열심히 하게 된다. 한 번 칠하면 못 지워서 완벽하게 나오지는 못했지만 나름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할 것 같다.

김수현

도자기에 붓으로 그림 그리기를 했다. 시간이 금방 갔다. 힐링되고 좋은 것 같다. 평소에 그림을 좋아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최준영

다양한 그림을 찾고 그릴 수 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좋았다. 나중에 이런 수업이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싶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주셔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김도경

컵 도자기에 우리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림을 그려 컵을 만드니 특별했고 더욱 뜻 깊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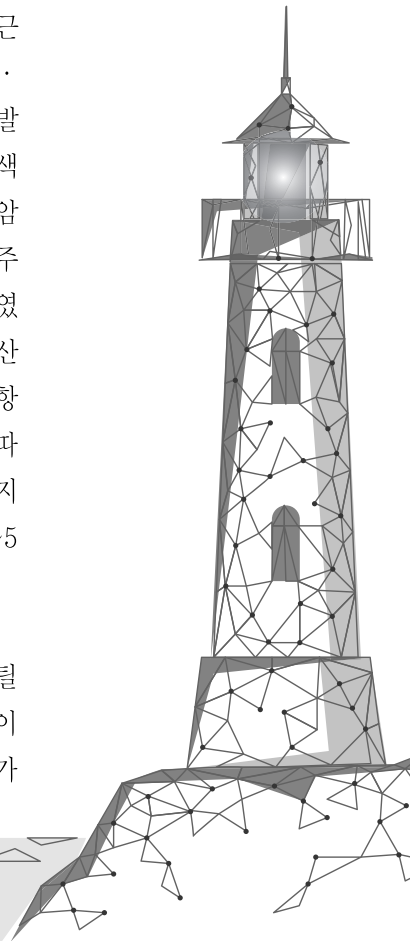
등대가 있는 마을

등대



항해용 일반 등대와 항공기용 항공 등대가 있다. 야간에 강렬한 등불빛을 발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에 육지의 소재, 원근(遠近), 위험한 곳 등을 명시해 준다. 항해용 등대는 섬·곶·암초·여울, 항만의 출입구 등에 설치되며, 주간에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탑 모양으로 건조되고 흰색·주황색·검은색으로 채색되어 있다. 등대관리인의 유무에 따라 유인등대와 무인등대, 또 암초와 같은 곳에 설치되는 소규모의 것을 등표(燈標), 기둥 모양의 것을 등주(燈柱)라 하여 구별한다. 안개가 많은 곳에 있는 등대에는 안개가 발생하였을 때 소리를 내는 안개신호소가 부설된다. 항공등대는 항공로에 가까운 산꼭대기·공항 부근에 설치되는데 항해용 등대보다 광력(光力)이 강하며, 항해용으로도 이용된다. 렌즈의 초점거리와 등대의 해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따라 1~6등 및 무등의 7등급으로 구분한다. 외양(外洋)에서 접근하는 주요 지점이나 안개가 많은 장소에는 1~2등, 연안이나 내해의 주요지점에는 3~5등, 항만에는 6등이나 무등이 설치된다.

광원으로는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이 밖에 석유증발 백열등, 아세틸렌가스등, 태양전지등도 사용된다. 등대의 불빛에는 흰색·주황색·녹색이 사용되며, 배나 육지의 등화와 혼동되지 않도록 고려되어 있다. 빛의 변화가



없는 부동등(不動燈)·명암등(明暗燈)은 수가 많지 않고, 섬광등(閃光燈)·군섬광등(群閃光燈)·호광등(互光燈)·섬호광등(閃互光燈)·군섬호광등(群閃互光燈)·명암호광등(明暗互光燈)·연성부동섬광등(聯成不動閃光燈) 등과 같이 빛이 반짝이는 것이 많다. 등대표·해도(海圖)에 기재된 등대의 광달거리(光達距離)란 등대에 접근하는 배에서 등대빛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거리를 뜻하며, 시계(視界)가 보통일 경우 해면상 4.6m의 높이에서부터의 것이다. 광달거리가 80km나 되는 등대도 있다.

BC 280년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항(港) 입구의 팔로스섬에 등대가 건설되었는데, 높이가 110m나 되는 탑 모양의 것이었으며, 나무나 송진을 태워 불을 밝혔다고 한다. 항해술의 발달과 더불어 등대의 성능도 개량되어 19세기에는 근대식 형태의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도 옛날부터 향로변의 산·섬에서 봉화(烽火)를 올려 등대의 역할을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한말에 인천항에 처음으로 양식등대가 건설되었는데, 그 후 많은 발전을 보여 1962년 국제등대협회에 가입하여 투표권이 있는 A멤버 회원국으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 가장 광달거리가 큰 등대는 오륙도등대·죽도등대·울기등대이며, 광학적 광달거리는 약 74km이다. 평균 해면에서 203m의 높이인 해남곶(갯) 등대가 가장 높은 등대이다. 최근에는 각종 전파항로표지를 병설한 것이 많아 선박의 위치 측정에 공헌하고 있다. 예를 들면, 로란국(loran station)·데카국(decca station)·마이크로파비컨국(micro wave beacon station)·중파비컨국(medium wave beacon station)·하버레이더국(harbor radar station) 등이 병설되어 있다.

1

물치항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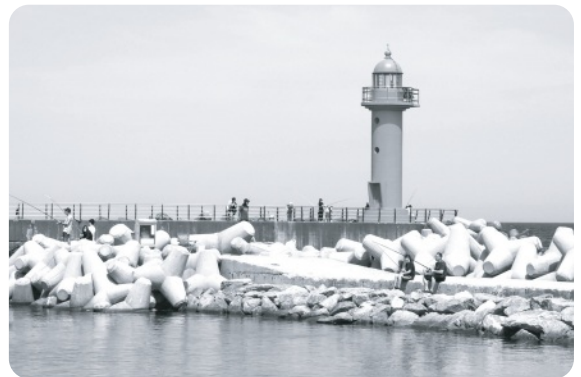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대로 35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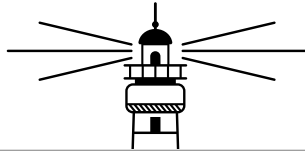


2

후진항 등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용호리4-9





3 낙산항 등대

강원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54-10



4 수산항 등대

강원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



5 기사문항 등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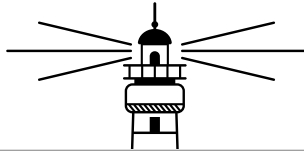
강원 양양군 기사문길8



6 하조대 등대

강원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7 동산항 등대

강원 양양군 현남면 동산리



8 인구항 등대

강원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04



9 남애항 등대

강원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138



※ 사진제공 : 양양군



건강을 해치는 부족한 잠, 불면증

이도약국 | 약사 이우진

“요즘 항상 피곤해”, “기운이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호소하는 증상들 중 하나이다. 딱 떨어지는 증상이 아닌 이런 애매한 불편을 호소할 때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다. 몸에 좋다는 것도 먹어봤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있는데 낮에 활기차지 못한 것이 불편하고 삶의 질이 떨어진다. 혹시 잠은 잘 주무세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은 잠을 잘 자지 못한다. 하루 중 3분의 1인 7~8시간을 차지해야 할 잠이 온전치 못한 것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쌓인 피로를 몸에 좋은 것이라 하는 것들로 풀려고 하지만 하루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잠이 필수이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도록 몸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피로를 푸는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성인의 적정수면시간은 7~8시간 정도라고 하며 어린이의 경우엔 9시간까지도 잠을 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이 안되어 평균치보다 부족하다. 간헐적인 단기 불면증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어봤을 정도로 흔한 증상이며 일주일에 3일 이상 수면장애를 겪으며 이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만성불면증으로 볼 수 있다.

불면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불면증이 어떻게 발생하고 만성화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표적인 것은 Spielman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3-P모델이다. 3-P는 소인적요인(predisposing factor), 촉발요인(precipitating factor), 지속요인(perpetuating factor)의 앞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소인적요인은 성격, 가족력, 연령, 습관, 기저질환 등에 해당하며 말 그대로 불면증에 취약한 요인들을 말한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는 예민한 성격, 점점 잠이 줄어드는 노인, 낮잠을 많이 자거나 카페인섭취를



많이 하는 습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질환이나 다른 신체적 질환으로 잠에 푹 들지 못하는 취약한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소인적요인들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불면증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나 앞으로 나올 촉발요인과 같은 상황을 마주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촉발요인은 불면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힘들어진 대인관계, 이별로 인한 우울, 주위 환경의 변화와 같은 것들이다. 소인적요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촉발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단기 불면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불면증을 해소하려면 이런 촉발요인들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습관들을 지속한다면 불면증은 만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속요인은 수면과 관련된 과도한 불안감, 잘못된 수면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요인들로 만성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말한다. 지속된 불면증으로 인해 오늘밤에도 잠에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잠이 오지 않는데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자려고 하는 행동, 부족했던 잠을 채우려고 낮잠을 자는 행동들이다.

즉 불면증은 촉발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 요인이 사라지면 불면증은 개선된다. 하지만 증상 발생 이후에 생긴 잘못된 수면습관, 수면에 대한 강박관념, 잘못된 믿음으로 인한 수면행동들로 인해 불면증이 만성화되고 고착되는 경우가 많다.

불면증은 미국, 호주, 유럽, 우리나라 등 많은 나라에서 CBT-I라고 하는 인지행동치료를 일차치료로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약물을 이용한 치료보다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약물을 사용했을시 발생하는 부작용이나 오남용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한 치료가 되었을 때 약물을 사용한 교정보다 더욱 치료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인지행동치료에 해당하는 것들은 수면에 대한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이완요법, 자극조절, 적절한 수면유도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평소에 불면증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잠이 드는 시간과 기상시간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도록 하고 낮 시간엔 햇빛을 보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생체리듬을 갖게 하는데 중요하다. 낮잠을 자는 것은 괜찮지만 30분 이상 길게 자지 않는 것이 좋고, 오후 늦게는 카페인 들어간 음료를 피해주고 고농도의 피로회복제는 에너지생성과 활력의 증가로 밤에 복용 시 잠이 안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낮에 복용하도록 한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으며 자려고 누웠는데도 계속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엔 침대에서 나와 독서나 잠에 들기 좋은 음악같은 것을 듣는 것이 좋다. 잠들기 한시간전 따뜻한 우유한잔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신체의 긴장을 풀어 잠이 잘 오게 한다.

당장 잠을 자야 할 때에는 병원에서 처방받는 수면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할 순 있지만 오남용의 우려와 의존성 때문에 약을 끊은 후에 다시 불면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앞서 말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수면에 도움이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다면 불면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감태추출물

감태추출물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수면개선 건강기능식품이다. 감태는 우리가 한번쯤은 먹어봤을 미역과의 해조류로 요오드, 칼륨, 알긴산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다. 감태에 들어있는 디엑콜, 플로로타닌이라는 성분이 수면개선에 도움을 주며 GABA라는 수용체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GABA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신경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힐 수 있다.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요오드 식이 제한자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사람은 섭취를 제한하여야 한다.

유단백 가수분해물 (락티움)

락티움은 우유에 함유된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성분을 분리하여 흡수에 용이하도록 만든 건강기능식품이다. 잠들기 한시간전 따뜻한 우유 한잔을 마시면 신경이 안정화되면서 잠이 잘 올수있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능성분은 알파에스1카제인이라는 성분으로 GABA의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신경을 안정화하고 수면지속시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이란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것은 스트레스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락티움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어 스트레스에 의한 긴장을 낮추어 줄 수도 있다. 우유에서 추출하였으므로 우유나 유제품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사람은 복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테아닌

녹차나 홍차와 같은 차 종류나 일부 버섯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으로 따뜻한 차를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차 속에 테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다. 테아닌은 식약처로부터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성분이다. 신경을 안정시켜주며 행복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우울증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카페인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카페인의 과도한 작용을 막을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 수면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건강기능식품들은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처방받는 약처럼 몇 번의 복용으로 바로 잠이 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잠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을 복용하며 불면증을 개선한다면 약으로 해결한 것보다 안전하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2023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양양문화원,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창달 기여 문화학교 및 동아리교실 등 운영

강원일보 2023. 1. 2. 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이 올해도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나선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에 이어 문화학교 및 동아리교실을 운영한다. 문화학교에서는 한문·한글서예·한시·민요·한국화·통기타·색소폰·수채화·난타·사물놀이·양양600합창단·태평소·민화·인두화(우드버닝)·고전·취타대교실 등이 진행된다. 오는 3월초 개강하는 동아리교실은 한가람·색소폰앙상블·해당화울림·블랙엔젤·여울소리민요단의 프로그램에 300명이 참여한다.

양양출신 조선 천재음악가이 허억봉 선양사업으로 오는 4월 부터 연말까지 대금반이 운영된다. 양양문화원은 오는 5~6월에는 제8회 전국한시시상백일장을 개최한다. 6월 중에 열리는 제44회 양양문화제에서는 양양만세운동재현행사를 하고 흥천문화원에서 여리는 제33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에 참가한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에도 총 23개 문화강좌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에 양양문화원이 작년 한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 문화창달에 기여

설악뉴스 2023. 1. 2. 송준현 기자

양양문화원(문화원장 박상민)이 지난해 왕성한 활동으로 지역문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해 양양문화원에서는 ▲동해신묘의 정체성과 복원에 대한 학술대회 ▲제12회 전국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제7회 전국한시시상백일장 ▲제5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조화벽지사선양 문예대회 ▲문화학교 23개 교실 ▲허억봉선양 대금교실 ▲청소년과함께하는 도자기페인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작년 3월부터 10개월 간 △한시와 서예 △사물놀이 △수채화, 민화, 인두화 등 총 23개 문화강좌를 운영해 2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에 따라 ‘문화학교의 수료식’이 12월 6일 일출웨딩홀에서 300여명의 군민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한가람풍물패와 해당화울림, 여울소리민요단, 블랙엔젤, 색소폰앙상블, 양양600합창단 등 문화학교 동아리 공연이 펼쳐져 흥겨운 무대가 연출되었다.

문화학교 한국화반 수강생인 홍의태씨는 세종대왕 전국회화대회 등에서 특선의 영예를 안았으며, 여울소리민요단은 샤이니스타상



을, 한가람풍물패는 제27회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밖에도 한글서예와 한국화 부문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크고 작은 대회에 입상해 명예를 높였다.

양양문화원 부속 양양학 연구소는 양양지역의 전통사찰에 대한 조사를 통해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지난 6월 열린 제32회 강원도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양양의 대포(大浦)와 수군만호(水軍萬戶) 이봉에 관한 고찰(高察)'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올해도 지역 문화예술의 역량강화와 지역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지역문화 파수꾼 역할 특목

강원도민일보 2023. 1. 6. 최훈 기자

문화학교 운영·경연대회 수상 등 양양문화원이 지역문화 파수꾼 역할을 특목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양문화원은 지난해 주민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 동해신묘 학술대회, 전국동구리 전통 민요경창대회, 문화공연 등 10여개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한시와 서예, 사물놀이, 수채화 등 총 23개 강좌에 2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또 문화학교 한국화반 수강생인 홍의태 씨는 세종대왕 전국회화대회에서 특선을 받은 것을 비롯, '여울소리민요단은' '사이니스타상', 한가람풍물패는 강원도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문화원 부속 양양학연구소는 강원도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대회에서 '양양의 대포(大浦)와 수군만호 이봉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을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올해도 지역문화예술의 역량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정기이사회

강원도민일보 2023. 1. 19.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19일 회의실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양양문화원, 정기총회 개최

설악뉴스 2023. 2. 3. 설악뉴스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3일 일출예식장에서 양양문화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양양문화원 정총

강원도민일보 2023. 2. 5.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최근 일출웨딩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주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개강

강원도민일보 2023. 3. 2.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은 2일 일출웨딩홀에서 수강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양양문화원, 2023년도 문화학교 개강식

설악뉴스 2023. 3. 2. 설악뉴스 기자



제45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

설악뉴스 2023. 3. 16. 설악뉴스 기자



45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가 16일 이사 12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

강원도민일보 2023. 3. 16. 최훈 기자



▲ 양양문화원은 16일 회의실에서 제45회 양양문화제위원회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올해 행사계획을 논의했다.

양양문화원, 40명으로 취타대 결성 추진
지역의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축제를 빛내기 위해 양양취타대 결성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2023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취타대 강좌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

설악뉴스 2023. 3. 21. 설악뉴스 기자

대취타는 우리나라에서 임금의 행차나 군대의 개선, 행진 등에 연주되던 행진곡이다. 취타대는 임금 행차나 외국 사절단 방문 시 행진하며 대취타를 연주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군악대로, 고구려 때 군(軍) 행진에 사용된 고취악(북을 치고 피리를 부는 음악)이 주류를 이루다가 조선 시대 중기에 이르러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취타대에 사용되는 악기는 취악기인 스나발 스나각 스태 평소를 비롯 타악기인 스용고 스징 스자바라 스윤라 스장구 스펡과리 등 9종류 이상 악기로 구성되며, 복장은 노란 취타복과 평깃을 꽂은 모자를 착용한다

양양에서도 양양문화제를 비롯하여 송이축제, 연어축제 등에서



거리행진이나 축하행사 등에 가끔 타 지역의 취타대를 초청하여 선보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축제를 빛내기 위해 양양문화원의 문화강좌를 통해 취타대 강좌가 새롭게 편성되어, 단순 감상 뿐만 아니라 지역 행사를 빛낼 "양양 취타대"가 탄생될 예정이다.강좌는 양양군민(성인)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 진행되며, 특히 취타대 복장과 악기는 무료로 지원된다.수강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양양문화원에 방문·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통군악대 ‘양양취타대’ 도전하세요” 양양문화원 문화강좌 신규 편성40명 모집 복장·악기 무료 지원

강원도민일보 2023. 3. 22. 최훈 기자

‘양양 취타대’가 구성된다.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은 문화학교 취타대 강좌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취타대는 임금 행차나 외국 사절단 방문시 행진하며 대취타를 연주하는 우리 고유의 전통 군악대로 고구려 때 시작돼 조선 중기에 이르러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에서는 양양문화제를 비롯, 송이·연어축제 등 거리행진이나 축하행사 등에 타지역 취타대를 초청해 오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각종 행사를 빛내기 위해 양양문화원의 문화강좌를 통해 취타대 강좌를 새롭게 편성키로 했다. 양양문화원은 수강생들에게 취타대 복장과 악기를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양양문화제위원회, 제45회 양양문화제 개최일정 확정

설악뉴스 2023. 3. 30. 설악뉴스 기자



양양문화제위원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오는 6월8일~6월10일까지 제45회 양양문화제를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양양문화제위원회 정기총회

강원도민일보 2023. 3. 30. 최훈 기자



▲ 양양문화제위원회는 30일 양양문화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45회 양양문화제를 오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개최키로 확정했다.

송파문화원, 선사유적지 양양문화원과 업무협약 체결

송파타임즈 2023. 4. 27. 윤세권 기자



정병구 송파문화원장(왼쪽)과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이 24일 유대강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송파문화원은 지난 24일 강원도 양양문화원에서 양양문화원과 유대 강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송파문화원은 선사유적지와 낙산사, 3·1만세운동 등 선사문화와 근현대문화를 아우르는 전통의 고장인 양양군과의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친선교류,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진흥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

송파문화원은 지난해 4월 금산문화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번에 양양문화원과 협약을 맺어, 지방문화원과의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송파문화원은 특히 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양양문화원과 업무적·문화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문화 교류와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송파문화원은 협약을 위해 양양군을 찾은 자리에서 오산리 선사유적지, 낙산사, 3·1만세운동 유적비를 방문해 양양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정병구 송파문화원장은 "양양문화원과의 업무협약을 비롯해 전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서 깊은 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을 예정"이라며,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송파지역 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양문화원·일출예식장 역사속으로 양양군 주민 수천명 결혼식 올린 일출예식장 부지에 문화복합센터 신축

강원일보 2023. 5. 8. 이규호 기자



일출예식장(오른쪽)과 문화원 건물

수십년간 양양주민들과 함께 했던 양양문화원·일출예식장이 문화복합센터로 거듭난다. 일출예식장은 양양주민 수천명이 결혼식을 올린 대표 장소다. 양양문화원 역시 양양문화복지회관이 생기기 이전까지는 지역의 대부분 문화행사가 열렸었다.

양양군은 양양읍 서문리의 양양문화원과 일출예식장 자리에 총 180억원을 들여 건축연면적 3,657㎡, 4층 규모의 문화복합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신축한다.

양양문화원은 1985년, 일출예식장은 1992년에 건축돼 그 동안 주민들의 문화·생활 중심지 역할을 해왔다. 신축 건물 1층에는 양양문화원의 기능이 이관되는 공간이 마련된다. 양양문화원이 사용할 공간에는 전시공간과 강의실도 마련된다. 2층에는 평생교육센터, 복합문화센터, 커뮤니티센터, 문화창작실, 스튜디오 등이 자리하게 된다.

3층은 다목적실과 식당, 동아리방이 들어서고 4층은 복합문화센터로 사용된다. 야외에는 743㎡의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새로 들어서는 센터에 3.1만세운동역사관과 조선근대사 기록관도 설치해 현대 문화 공간 속에서도 양양의 전통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문화·생활 변화에 맞춰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오랜기간 주민들과 함께 한 공간이 보다 큰 의미를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양양군, 양양문화제 8~10일 개최...4년 만에 '군민 화합의 장' 고치물제, 농악경연대회, 체육대회 등 다채... 셔틀버스 운행

연합뉴스 2023. 6. 5. 이종건 기자

강원 양양군의 향토문화축제인 제45회 양양문화제가 8~10일 양양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다.



2019년 양양문화제 시가행진

양양문화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양양문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난 3년간은 제례 행사만 치렀다.

이에 따라 양양군과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코로나19의 굴레에서 벗어난 올해 행사는 군민들이 다시 화합하는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는 첫날인 8일 오전 국대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성황제로 막이 오른다.

오후에는 각급 학교와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주민 등 800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시가행진이 양양읍 내에서 펼쳐지고 저녁에는 양양만세운동 재현행사와 군민상 시상식으로 구성된 개막식과 함께 군민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불꽃놀이가 펼쳐진다.

둘째 날인 9일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유도 시범과 읍·면 농악경연대회 및 한마당 잔치,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골 농요소리 시연 등이 이어진다.

제기차기와 목침 뺏기, 투호 놀이, 탁장사 놀이, 씨름, 줄다리기

등 읍·면 대항 민속경기와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양양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5회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와 함께 폐막식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제45회 양양문화제 포스터

행사 기간 축제장과 부대행사장에서는 휘도대회와 바둑대회, 백일장 등 다양한 문예 행사와 함께 농·특산물전시회, 향토음식 홍보관, 공예특산물 전시, 사진전, 서예와 한국화, 수채화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양양군은 축제 기간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행사장과 양양읍 내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1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제위원장은 "올해로 45회째를 맞는 양양문화제는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지역 고유의 향토문화 축제이자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화합의 한마당"이라며 "양양문화제가 지역 화합과 사회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화합 대잔치 '양양문화제' 성황

강원일보 2023. 6. 8. 이규호 기자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5회 양양문화제가 8일부터 열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웃들을 서로 위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간 제례행사만 치러진 양양문화제는 올해는 풍성한 즐길거리와 함께 열렸다.

8일 국대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고치물제와 성황제가 각각 고치물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됐다. 오후 4시부터는 학생들과 기관·사회단체, 군부대 등 민·관·군 800여명이 함께 시가행진을 했다. 시가행진은 고유의 전통 악대인 취타대를 선두로 제등행렬, 양주방어·대포수군만호행차, 신석기인 가장 행렬, 양양농악, 읍면 홍보 퍼레이드, 5개 봉사단체 홍보퍼레이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오후 6시 30분에는 양양종합운동장 특설무대에서 전문배우와 보훈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양양만세운동을 재현했다.

이어서 군민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과 함께 개막식이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김준호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학술분야), 이상구 전 양양군체육회장(체육분야)이 수상했다.

개막식 격려사에서 김진하 군수는 “양양문화제는 우리의 전통과 예향의 맥을 이어가는 화합의 축제이자, 우수한 조상의 얼을 기리는 고귀한 문화유산”이라며 “양양문화제를 통해 귀중한 역사를 음미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창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개막식 후에는 초청가수의 공연과 군민노래자랑,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9일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유도시범, 읍·면 농악경연대회 및 한마당 잔치,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수동골 상여소리와 상복

골 농요소리 민속시연, 제기차기·목침뺏기·투호놀이 등 읍·면대항 민속경기와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10일에는 양양군체육회 주관 ‘제55회 양양군민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가 열린다.

양양문화제위원회 박상민위원장은 “양양문화제가 지역에 대한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화합과 사회발전의 기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양군민의 대화합 향토문화축제인 제45회 양양문화제가 8일부터 열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웃들을 서로 위로하고 있다.



사진은 시가행진의 모습.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 가을 정취 선사 양양문화원, 지난 19일 ‘남대천 문화를 품다’ 공연

설악신문 2023. 10. 30. 김주현 기자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을 바라보며 우리 전통문화를 함께 즐겨 정말 좋았어요.”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지난 19일 남대천 르네상스 거점인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마련한 ‘제6회 가을날의 문화공연’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했다.

‘남대천 문화를 품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문화공연은 어울소리 민요단의 조화로운 우리 민요가락과 대금산조가 깊어가는 남대천의 가을을 수놓으며 이날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전했다.



양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양군·양양군의회·양양새마을금고가 후원한 올해 문화공연은 양양문화원의 문화학교 교실 팀원들이 중심이 돼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일상 회복을 맞은 올해 가을 우리군의 역사적 근간인 남대천에서 문화교실 회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공연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안이 됐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7~8일 개최

강원일보 2023. 11. 6. 이규호 기자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약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하며 전국에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 등의, 총 21개 팀이 수상한다. 8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13회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양양문화복지회관서 개최

전국매일 2023. 11. 6. 박명기 기자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경창대회에는 전국에서 참여한 일반부 단체와 개인, 대학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 실력을 겨루게 된다.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대학부 최



우수·우수·장려, 동구리 소리상 8개 팀으로 총 2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8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취타대, 전년도 통합대상팀, 전문국악인 공연 등 초청공연이 열린다.

양양서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오늘 개막 내일 취타대 등 초청공연·본선

강원도민일보 2023. 11. 7. 최훈 기자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펼쳐진다.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약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대회다. 양양문화원이 주관해 올해로 13회 짝을 맞는 이번 대회에는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 등 총 21개 팀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이틀째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리고, 올해 양양문화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취타대, 전년도 통합대상팀, 전문국악인 공연 등 초청공연도 선보인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동구리 경창대회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7~8일,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 대학부, 일반부 개인·단체를 포함 총 51개 팀, 180여명 참여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FN투데이 2023.11.8./ 박재균 기자



11월 7일 예선과 8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개 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대학부 최우수·우수·장려(장려 2개팀), 동구리 소리상 8개 팀으로 총 21개 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11월 8일 본선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린다. 올해는 양양문화원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취타대, 전년도 통합대상팀, 전문국악인 공연 등 초청공연이 열릴 예정이라 관객의 기대가 높다는 평가다.

지난 해인 2022년 제12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시상 단체 사진(사진:양양군 제공)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조선시대 양양의 관노 출신임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세조로부터 악공으로 대우받은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고유의 전통 소리를 보전·전승하기 위해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대회사 "전국 메이저대회로 키우겠다"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 계획

신아일보 2023. 11. 9. 백남철 기자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이 8일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 참석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조선 최고의 소리꾼인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의 삶과 전통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개최된 제13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에서 대회사를 했다.

이날 박상민 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전통소리를 살리고 보존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작해 전국대회로 키워 이어지고 있다"며 "본 대회를 전국 메이저대회로 키우기 위해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전시회' 개최 일출웨딩홀·양양문화원서 각각 열려

전국매일 2023. 11. 28. 박명기 기자

강원 양양문화원은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28일 일출웨딩홀과 양양문화원에서 각각 열린다.

양양문화원은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난타, 민화, 사물놀이, 한국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통기타, 민요, 태평소, 취타대, 한시,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 고전 등 25개 강좌가 운영돼 297명의 수강생이 수료했다.

일출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수료식에는 수료생들과, 김진하 군수, 오세만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진종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한문서예' 수업 모습. [문화원 제공]

원, 문화원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식전 공연 △개식 △박상민 문화원장의 인사말 △김진하 군수·오세만 군의회 의장의 축사 △우수수강생 시상 및 감사소개가 진행되었다.

또한 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서는 한시, 한문서예, 한글서예, 한국화, 수채화, 민화, 인두화, 고전 강좌 수강생들이 작품 100여점을 전시한다.

박상민 문화원장은 "수강생들의 결실이 담긴 이번 작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25개 강좌에 수강생 297명 수료

강원일보 2023. 11. 28. 이규호 기자

양양문화원이 28일 일출웨딩홀에서 문화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양양문화원은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난타·민화·사물놀이, 한국화·수채·한글서예·한문서예·통기타·민요 등의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이날 297명이 수료했다.

특히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운영된 대금 교실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취타대와 고전 교실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또 올해 문화학교는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구성,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양문화원은 30일까지 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수료생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료식 및 전시회 28일 개최 25개 강좌에 수강생 297명 수료, 서예, 민화 등 작품 전시회 선보여

유교신문 2023.11.28./ 전남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양양문화원(원장 박상민)이 지역 전통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운영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의 수료식과 작품 전시회가 11월28일 10시30분, 일출 웨딩홀과 양양문화원에서 각각 열린다.

양양문화원은 군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1996년부터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올해는 난타, 민화, 사물놀이, 한국화, 수채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통기타, 민요, 태평소, 취타대, 한시, 색소폰, 양양600합창단, 인두화, 고전 등 25개 강좌가 운영되어, 297명의 수강생이 수료한다.

양양의 역사 속 인물인 허억봉에 대한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운영된 대금 교실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취타대와 고전 교실 강좌가 새롭게 편성되어 운영되었다.

수강생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일부 강좌는 초급·중급으로 나뉘어져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출웨딩홀 2층에서 열리는 수료식에는 수료생들과, 김진하 양양군수, 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진중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문화원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물놀이 식전공연 △개식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의 인사말 △김진하 양양군수·오세만 양양군의회 의장의 축사 △우수수강생 시상 및 감사소개가 진행되고, 이어서 태평소·취타대 등 그간 수강생들이 갈고닦은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작품 전시회에서는 한시, 한문서예, 한글서예, 한국화, 수채화, 민화, 인두화, 고전 강

좌 수강생들이 작품100여 점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의 눈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박상민 양양문화원장은“수강생들의 결실이 담긴 이번 작품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길 바란다.”라며, “내년에도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600합창반



색소폰반



수채화반



한글서예반



한문서예반

편집후기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용띠해는 육십간지 중 41번째로 “갑”은 청색을 “진”은 용을 나타내기에 용띠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는 푸른 용처럼 활기가 넘치고 행복이 가득 담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문화원에서는 많은 사업 중에 전국 한시백일장,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를 비롯한 문화공연, 문화학교 25개 반과 조선시대 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 사업으로 대금반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 악대인 취타대는 양양문화제 시가행진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DB구축사업은 양양의 옛 자료를 아카이빙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누구나 쉽게 역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문화원 임원과 회원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무사히 모든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상황임에도 열심히 도와주신 양양문화원 임원과 문화원 회원여러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회원 모두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를 즐기며 행복한 문화생활과 향토 문화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기를 소망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양양문화 제35호

2023年 12月 26日 인쇄

2023年 12月 27日 발행

발행인 : 박 상 민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양양문화원

인쇄처 : 대양프리컴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조화벽 지사를 추모하며



한상호

1

마지막 국모의 원혼이 하늘에 올라 별이 되던 그 해 당신은 태어났지요¹. 열다섯 살 소녀는 기독교정신基督精神 배우려 고향을 떠났다 한명의 이름 없는 의병²이 되어 독립선언서 한 장 버선목에 감추고 고향으로 스며 들었지요.

개성에서 원산으로 가슴 졸이며 원산항에서 대포항으로 쪽배에 실려온 가녀린 불쏘시개. 그 종이 한 장 불씨로 타올라 기미년 사월의 양양 만세운동은 아우내장터 못지않았지요. 오일장 두 번 지나도록 푸르른 선혈 낭자했지요.

조여드는 체포망 벗어나려 타관 땅을 떠돌았지요. 공주 교편 시절, 부모 잃은 류관순의 세 형제를 운명처럼 도왔지요. 처녀의 몸으로 그 오라비의 옥바라지를 했지요. 목숨 건 그 사내의 청혼에 못 이겨 네 살 아래 항일반공 무정부주의자 류우석의 아내가 되기로 마음먹었지요.

당신은 한 번 더 고향을 찾았지요. 까막눈 후배들이 눈에 밝혀 학교를 세웠지요. 십삼 년 간 호랑이 선생님이로 일천이백여 개의 눈망울을 밝히자 일제는 강압으로 민족혼 배움터를 막아버렸지요³.

해방 이듬해 당신은 떠났지요.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요. 당신이 숨겼던 당신이름, 첫째며느리가 이 세상 속으로 불러내기 전까지는⁴.

2

두 번이나 연어가 되어 다녀간 당신, 남대천이 미안합니다. 알을 슬어놓았던 물속무덤 하나 기념하지 못했습니다. 삼일절행사 때나 고작 스치듯 호명되는 당신이름, 오늘 생각해보니 남대천이 참 부끄럽습니다. 연하의 남편도 세 아들도 앞세운 무남독녀 양양의 딸, 당신을 생각하면……

- 1)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1895년, 양양군에서 출생. 1975년 서거.
- 2) 원산 소재 한 성경학교로 유학, 루씨 여학교 초등과정 거쳐 개성의 호수돈여학교에서 수학. 개성 삼일만세운동 시 호수돈여교 비밀결사대원으로 활동.
- 3) 1932년 양양에 정명학원 설립. 1944년 폐교 전까지 6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함.
- 4) 1990년 장남의 아내 김정애의 노력으로 조화벽 지사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됨.





대한불교조계종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 흥련암**

낙산사 대중일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100

☎ 033)672-2447~8